

東草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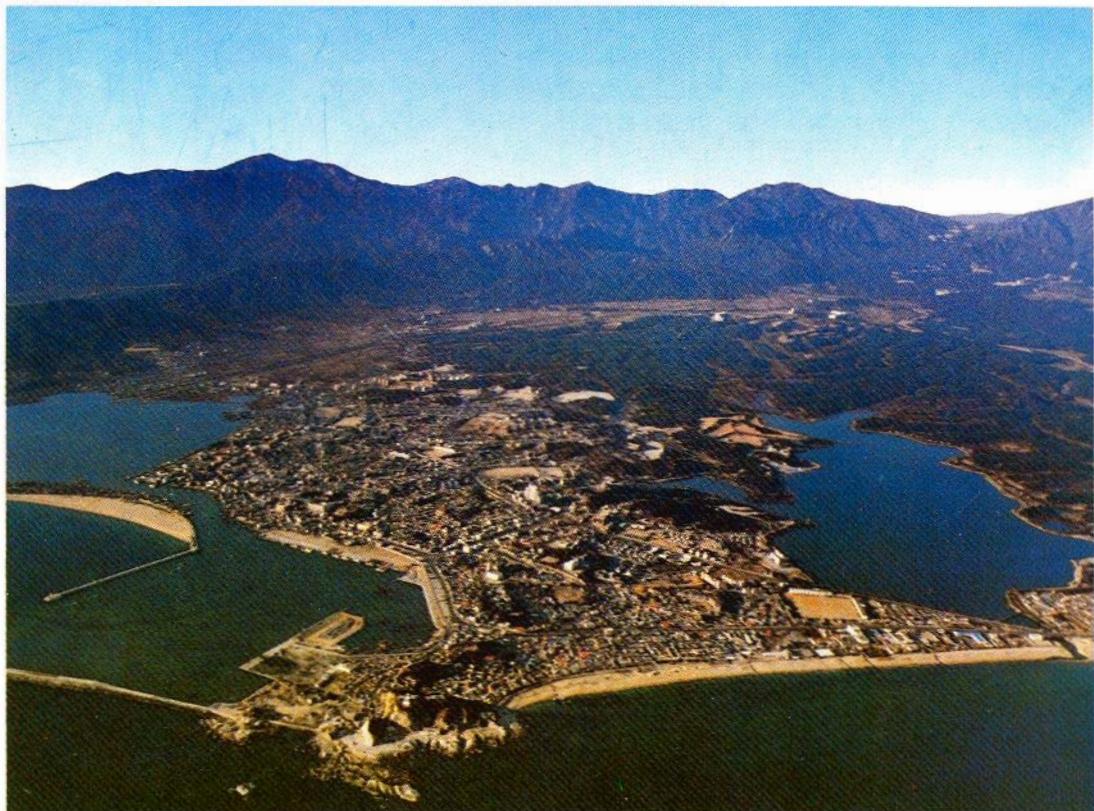
1990 / 第 6 號



東草文化院

東和建設은

束草港의 새 아침을 열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東和建設 株式會社



創設者 金益重
社長 金生麗
専務 金鍾倍
現場所長 林漢洙

本社：서울 강남구 논현동 98
☎ 546-2611~3
546-2541~2

現場事務所：束草市 동명동 1-10
☎ 33-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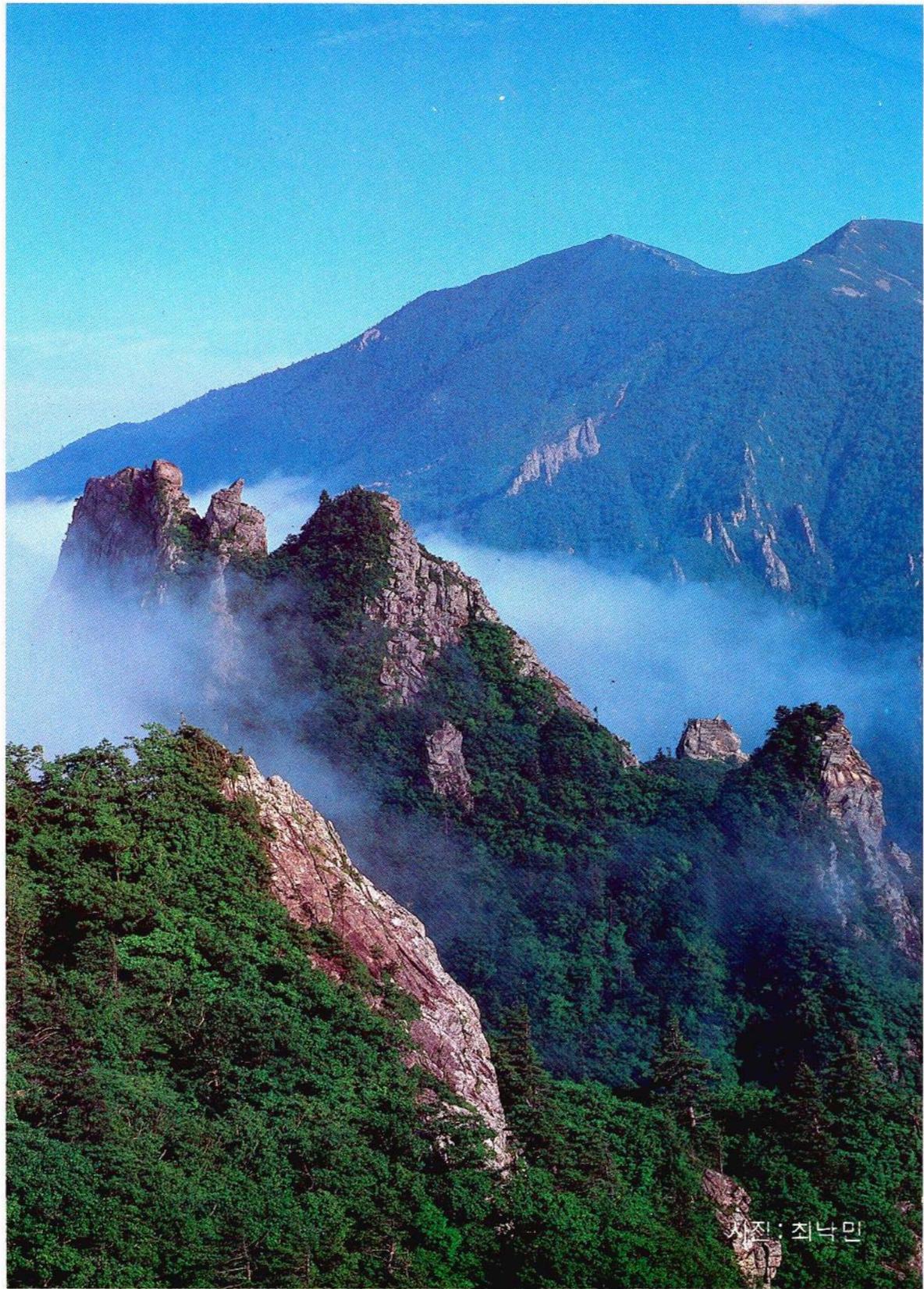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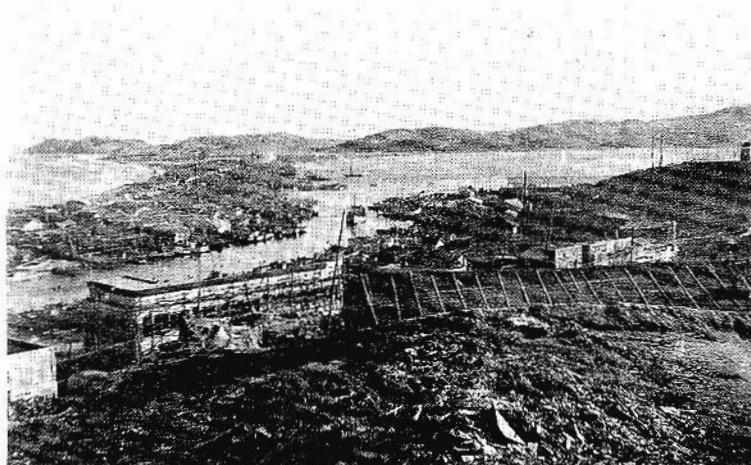


사진: 최낙민

1·9·6·0·년·대·의



束



草



속초시지 편찬자료중에서

鄉土文藝云海里波



庚午晚秋松菴村人海岩



海岩：李元植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使命을 切感한다.

한 거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거례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特質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거례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거례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차례

東草文化

1990/第六號

□ 권 두 사	지 일권 · 6
□ 축 간 사	최정식 · 7
□ 권 두 시	박명자 · 10
□ 특집 / 화랑과 영령호	주상훈 · 11
□ 논단 / 북방정책과 속초항의 확대개발	동문성 · 37
□ 내고장 인물 / 유정충 선장	· 49
• 어느 船長의 거룩한 죽음	· 50
• 유정충 선장의 죽음	안준현 · 53
□ 現場을 찾아서	· 57
• 신흥사 청동좌불상제작 현장	편집부 · 58
• 국립공원 설악산(6)	박익훈 · 61
□ 그리운 내고향	김경일 · 65
• 바다내음 그리운 내고향 속초	
□ 時論 / 傳統 價值觀은 복원되어야 한다.	· 67
• 환경오염	전재욱 · 68
• 미덕의 윤리관은 복원되어야 한다.	임만근 · 71
• 현행 전통 혼인례의 문제점	이종욱 · 74
• 2千年代를 맞은 市民像 어디까지 왔나	윤중국 · 76
• 가로수에도 鄉土의 특징을	지응준 · 79
□ 해외여행기	· 81
• 내가 본 萬里長城	김용구 · 82
• 일본을 보며, 그 속셈을 읽으며	박명자 · 87
□ 내고장 문화 단체 순례 / 教壇 동우회	최종국 · 90
□ 東草文藝	· 93
• 초대詩 - 그립다 그 한말	최명길 · 94
- 만나고 싶은 사람	박종현 · 95
- 山寺로 가는 밤길	사상철 · 96
• 제25회 설악제 경축 漢詩白日場	· 97
□ 문화유적지 순례	황진화 · 120
• 문화유적지를 다녀와서	이자영 · 121
□ 東草文化院	
• 사업 및 운영 현황	· 124
• 회원명단	· 128

題字 : 김철홍
表紙畫 : 김광수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文化



池一權
東草文化院長

속초시립 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속초는 문예 부흥 시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다. 고급 교향악단의 공연을 비롯해, 향토 음악가의 작품 발표회가 시도되는가하면, 중세 이후의 유명 인사 고서화들이 수백점 전시되기도 한다. 특색있고 규모가 큰 문화행事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물 건립 두달 만에 이런 행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얼마나 억눌려 왔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무릇 문화 향수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와,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한 헌법 제34조에 근거한다.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제11조에는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 수혜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문화적 영역 확보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안될 말이다. 우리가 지금껏 그런 상황에 방치되어 왔음을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 속초문화원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쓸 것이다.

우리 속초문화원에서는 그 동안에도 고급문화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교양강좌 개설을 비롯 여러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이러한 기

단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 수혜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문화적 영역확보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안될 말이다.

••

“우리 속초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획의도로 추진해 왔었다. 향토민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원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 이런 시도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일련의 이런 사업들의 일환으로 향토문화 지 “속초문화”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금년에도 향토사료, 각종 논단 및 시론, 기타 향토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아 소박한대로 여기 내 놓는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향토애와 문화적 열의를 모아 만든 이 잡지가 사랑을 모으리라 진심으로 기대한다.

개성 있는 鄉土文化



崔 正 植
國會議員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화이며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와 그 가치 및 신념 체계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반복되는 질박한 서민적 정서와 어우러져 그것이 쌓이면서 하루 하루가 역사가 되며 한 달이 일년이 되어 후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연히 맞닥드리는 매사의 형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 선상에서 인류의 문화로 창조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환경과의 교류 속에 특성 있는 문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 그 중에서도 동북아와 우리 한국의 문화는 남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이며 세계 국가주의를 주창하는 시기에 우주적인 세계주의에 서있어야 하며 지역적 특수성의 조화 속에 세계주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급급한 상태에 있을 수록, 우리에게 청량제로의 역할이 세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 길이, 문화와 예술의 창조성과 상상력의 발휘에 따른 여유가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정기스칸의 병사력이 강한 국가가 한 나라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보아왔던 터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문화에 강한 접착력이 수많은 외세에 견디어내는 자양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유와 여속을 확대 재생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다양성과 다각화의 시대에 각자의 개성과 특수성이 조화되는 것은 우리의 처지인 문화를 알차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가꾸어 나가는 길이 우선일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징이며 또한 속초 지역의 개성을 살리는 서민 정서에 어우러지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느끼는 공공적 행사이며 공동체 형성의 일익을 담당하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 우리가 살아가고 최후의 순간을 맞아야 하는 운명의 땅 숙명의 땅에서 우리가 남겨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아픔과 즐거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승화시켜 좀더 나은 세계를 지향해야 합

문화 환경과 문화적 갈등

“
척박한 문화환경과
문화적 갈등이 향토민들의
노력에 의해 극복된 것은
대견하다.
”

니다. 두번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기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듯, 우리지역의 문화에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고장이 됩니다. 신라의 화랑도도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듯, 천혜의 조건인 동해 바다와 명승고적인 여러 문화재, 특히 설악산의 입지적 여건을 백분 활용하여 맥박이 힘차게 뛰는 살아있는 문화의 창조만이 이 지역이 살고 이 국가가 살 수 있는 절대적 상황입니다. 모든 조건이 풍족하지 않지만 이 상황에 적응키 위해 어느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은 총체적이며 다양성있는 관광지에서 필수적인 문화행사의 주도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탈리아나 프랑스 유수의 관광지의 문화에서 보듯이 보는 것과 느끼고 가는 생활이 어우러진 전국에서도 유명한 문화 행사의 설립이 요구되는 바, 비근한 예로 강릉의 단오제에서 보듯이 문화창달이 이 지역의 대자연과 어우러지면 금상첨화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작금의 세태가 물질만능 황금만능의 세태에서, 자연 속에 인격 함양과 이 지역의 문화인들의 행사로 더욱 깨끗한 아름다운 설악이 되듯 바다와 산이 우리의 생명이며 젖줄이란 것을 서로 의식하여 실천하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맑은 공기와 물이 계속 지켜지면서 모두에게 이익될수 있고 도움이 되는 발전 방향에 문명적 요소에 문화가 일익을 담당하여 선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존의 설악제를 더욱 키워 나가기 위해 文化活動 역시 교육의 역할이 강조 되는데 우리지역에 4년제 대학의 설립이 추진중인바 이(가칭 동제 대학) 학교를 중심으로 2000년대의 국민 관광의 요람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인들의 활동 역시 중심이 되기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키워 나가면 빠른 시일에 한국 문화의 중심권으로 개성있는 속초, 문화있는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척박한 문화 환경과 문화적 갈증이 여러 문화인들의 노력으로 극복된 것이며 문화 역시 중앙집권적인 것을 지역 분산화하는 일은 우리지역에서 시작되기 를 염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날에

방금 동해 수평선을 성큼 솟구쳐 오른
태양과의 이 절대한 만남

아침 그 해산의 선혈 속에서
눈뜨는 창조의 아침 바다
낭자한 그 울음의 빛깔

철철철 넘쳐 끓는 빛부심의 천지
한 아름 벽차게 안겨오는 뜨거운 불덩이
힘찬 투망으로 눈부신 그 하체를 앞으로
내 앞으로 끌어 당긴다 이 시간
빛살 한 오리 그 누구에게 건네 줄 수 없다

둥글고 가장 벽 찬 그 대상을
한껏 팔 벌려 내 것으로 가늠하고 싶다

맨 가슴 열어 드디어 뜨거움 한 아름께 안으면
꿈틀거리는 생명에의 파문
사뭇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진다

암벽도 산도 나무도 손 들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생명의 하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지켜 서 있다.



朴明子 / 詩人

특집

花郎과 永郎湖

花郎과 永郎湖

목 차

머리글

1. 화랑도(花郎徒)의 기원
2. 화랑도(花郎徒)의 조직과 훈련
3. 화랑도(花郎徒)의 기풍(氣風)
4. 화랑도(花郎徒)의 변천
5. 영랑호(永郎湖)의 생성(生成)
6. 영랑호(永郎湖)와 화랑(花郎)
7. 영랑호(永郎湖)의 시문
8. 영랑호(永郎湖)의 유적

맺음글

머리글

속초(束草)는 설악산(雪嶽山)과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거기에서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라는 아름다운 두 호수가 있어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

1985년 속초문화원(束草文化院) 발행 항토사료 제1집 『화랑(花郎)과 영랑호(永郎湖)』에는 영랑호(永郎湖)를 영산도지(映山倒地)라고 칭하였다. 호수면에 설악산(雪嶽山)의 웅장한 경관이 거꾸로 비치는 승지(勝地)라는 뜻이다. 강릉(江陵)의 경포호(鏡浦湖)는 육지 쪽에서 바다 쪽을 향해 보아야만 제 맛이 나오고, 속초(束草)의 영랑호(永郎湖)는 반대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을 향해 보아야만 영랑호(永郎湖)가 설악산(雪嶽山)의 경관과 어울려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1973년 강원일보사(江原日報社) 발행 『태백(太白)의 산하(山河)』에는 영랑호(永郎湖)의 정취(情趣)로 ① 창해(滄海, 넓고 큰 바다)의 귀범(歸帆, 먼 바다로 나갔던 둑단배가 돌아 오는 것) ② 호면(湖面)의 낙조(落照, 저녁 햇빛) ③ 보광사(普光寺)의 모종(暮鐘, 저녁 해질 무렵에 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④ 울산(蔚山) 바위에서의 부감(俯瞰, 높은 곳에서 永郎湖를 굽어 보는 것) 등을



주상훈

양양 태생. 현재 속초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 연구위원이며 '束草의 地名' 이란 저서를 낸바 있다. 1990년 제2회 속초시 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들고 있다.

무릇 승지(勝地)란 자연(自然)만 가지고는 안되고, 여기에 인문(人文)이 가해질때 더욱 각광(脚光)을 받기 마련이다. 영랑호(永郎湖)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 영랑(永郎)의 고사가 깃든 곳이다. 신라시대(新羅時代) 청소년 단체인 화랑도(花郎徒)들이 이곳에서 수련 활동을 통해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개인한 체력을 연마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화랑도(花郎徒)에 대해 그 기원 · 조직 · 훈련 · 기풍(氣風)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과연 영랑호(永郎湖)가 화랑도(花郎徒)들의 훈련 장소였으며, 영랑호(永郎湖)라는 이름은 영랑(永郎)이라는 화랑(花郎) 이름에서 유래되었는가를 살펴보자 한다.

1. 화랑도(花郎徒)의 기원

화랑도(花郎徒)¹⁾의 설치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봄에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가 인재를 알지 못하여 근심한 끝에, 많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놀게 하여 그들의 행실을 보아 가지고 이를 등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았는데, 하나는 남모(南毛)라 하였고, 하나는 준정(俊貞)이라 하였다. 그들은 그 무리를 300여 명이나 모았는데, 두 여자는 차츰 그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게 되고, 준정(俊貞)은 남모(南毛)를 자기집으로 유인하여 놓고 독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그를 이끌어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나 사건이 발각되어 준정(俊貞)은 사형되고, 그 무리들은 실망하여 분산되고 말았다. (春始奉源花初君臣病無以知人欲使類聚群遊以觀其行義然後舉而用之遂簡美女二人一曰南毛一曰俊貞聚徒三百餘人二女爭媚相妬俊貞引南毛於私第強勸酒至醉曳而投河水以殺之俊貞伏誅徒人失和罷散)

그후에 다시 아름다운 남자들을 뽑아서 곱게 단장하고 화랑(花郎)이라 이름하여 이를 받들게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其後更取美貌男子粧飾之名花郎以奉之徒衆雲集)

이것으로 화랑도(花郎徒) 제도는 신라(新羅) 진홍왕(眞興王) 37년(576년) 국가에서 인재 등용을 위하여 조직화한 것과, 처음에는

그 지도자를 원화(源花)라고 하여 여자로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미륵선화(彌勒仙花) 미시랑(未尸郎) 진자사(眞慈師)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眞興王은」 또 천성이 멋스러워 신선을 크게 숭상하여, 민가의 아름다운 처녀를 가려서 원화(原花)²⁾로 삼았다. 그것은 무리를 모아 (그 중에서) 인물을 선발하고, 또 그들에게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가르치려 함이었으니,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大要)였다. 이에 남모(南毛) 낭자와 교정(姣貞)³⁾ 낭자의 두 원화(原花)를 뽑으니, 모여든 무리가 삼사백명이나 되었다. 교정(姣貞)은 남모(南毛)를 질투하여 술자리를 베풀어 남모(南毛)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몰래 북천(北川)으로 메고 가서 돌을 들어 끌어서 죽였다. 그 무리들은 남모(南毛)가 간 곳을 알지 못해 술피 올면서 헤어졌다. 그 음모를 아는 사람이 있어 노래를 지어 거리의 아이들을 끌어 부르게 했다. 남모(南毛)의 무리들은 노래 소리를 듣고 남모(南毛)의 시체를 북천(北川) 속에서 찾아내고는, 이에 교정(姣貞)을 죽였다. 이에 대왕은 영을 내려 원화(原花)를 폐지시켰다.(又天性風味多尙神仙擇人家娘子美艷者捧爲原花要聚徒選士教之以孝悌忠信亦理國之大要也乃取南毛娘 姣貞娘兩花聚徒三四百人姣貞者嫉妬毛娘多置酒飲毛娘至醉潛昇去北川中舉石埋殺之其徒罔知去處悲泣而散有人知其謀者作歌誘街巷小童唱於街其徒聞之尋得其尸於北川中乃殺姣貞娘於是大王下令廢原花)

그후 여러 해만에, 왕은 또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반드시 풍월도(風月道)⁴⁾를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여 양가(良家)의 덕행있는 사내를 뽑아 그 명칭을 고쳐 화랑(花郎)이라 했다.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을 받들어 국선(國仙)⁵⁾으로 삼으니 이것이 화랑(花郎) 국선(國仙)의 시초다. 그래서 비를 명주(溟州)에 세웠다.⁶⁾(累年王又念欲興邦國須先風月道更下令選良家男子有德行者改爲花娘[郎]始奉薛原郎爲國仙此花郎國仙之始故堅碑於溟州)

이것으로 진홍왕(眞興王)⁷⁾이 국가 발전을 위하여 풍월도(風月道)를 진작시킨 것과, 최초의 화랑(花郎) 국선(國仙)은 설원랑(薛原郎)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명주(溟州)에

기념비를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4 열전(列傳) 사다함(斯多含)전에는

「사다함(斯多含)은 본래 높은 가문에서 나서 풍모(風貌,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게 맑고 지기(志氣, 의지와 기개)가 방정(方正)하므로, 때에 사람들이 화랑(花郎)으로 받들기를 청하여 드디어는 화랑(花郎)이 되었는데, 그 낭도(郎徒)가 무려 천여명이나 되었고 모두 그 환심을 얻게 되었다.(斯多含本高門華胄風標清秀志氣方正時人請奉爲花郎不得已爲之其徒無慮一千人盡得其歡心)」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가 진홍왕(眞興王) 23년(562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⁸⁾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 기록과는 달리 진홍왕(眞興王) 37년(576년) 이전에 이미 화랑(花郎)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민간적인 조직으로 존재했던 화랑도(花郎徒)를 진홍왕(眞興王)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화랑도(花郎徒)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최 치원(崔致遠)이 신라(新羅) 화랑(花郎) 난랑(鸞郎)의 비문을 지었는데, 그 서문이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 한다. 이 가르침을 설치한 근원은 이미 선사(先史)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거니와, 그것은 실로 유·불·선(儒佛仙) 3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생명과 접하여 이들을 감화하였다.(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

이것으로 화랑도(花郎道)를 다른 말로 풍류도(風流道)라고 했던 것과, 우리 민족에게는 유·불·선(儒佛仙) 3교를 포함할 수 있었던 고유의 사상인 풍류도(風流道) 즉 화랑도(花郎道)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화랑도(花郎徒)의 기원에 대하여 일찌기 신 채호(申采浩)는 소도(蘇塗)⁹⁾ 제단의 무사들이 화랑도(花郎徒)로 변천되었다고 하였고,

화랑도는 원시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원시사회의 청소년 조직에서부터 기원하였으며, 이것을 후에 신라 진흥왕이 국가조직으로 정비하여 인재양성, 국가발전에 이용한 것이다.



최 남선(崔南善)은 조선(朝鮮) 고유의 신앙 단체인 부루교단에서 연유하였다고 하였고, 이 기백(李基白)은 원시사회의 미성년 집회에서 연유하였다고 하면서, 고구려(高句麗)의 조의선인(早衣先人)¹⁰⁾, 경당(扃常)¹¹⁾ 등을 예로 들어 신라(新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삼국 모두에 공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화랑도(花郎徒)는 원시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원시사회의 청소년 단체 · 조직에서부터 기원하였으며, 이것을 후에 신라(新羅)의 진흥왕(眞興王)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인재양성, 국가발전에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 화랑도(花郎徒)의 조직과 훈련

화랑도(花郎徒)의 조직 · 체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옛 문헌은 남아 있지 않다. 이 선근(李瑄根)은 교양국사총서 6 『화랑도(花郎徒)와 삼국통일』에서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하여 화랑도(花郎徒)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지도함에 이르러서는, 최고 책임자는 국선(國仙) 혹은 원화(源花)라 하고, 그 밑에 3~4인 혹은 7~8인 내외의 화랑(花郎) 혹은 선랑(仙郎)을 세운 다음, 다시 그 밑에 문호(門戶)라는 몇개의 편성

이 있어서 수백 혹은 수천의 낭도(郎徒) 혹은 문도(門徒)가 여기에 딸렸다. 화랑도(花郎徒)의 조직을 오늘날 우리의 청년단체 조직과 비교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선화랑→화랑 혹은 선랑→낭도 혹은 문도
(國仙花郎) (花郎) (仙郎) (郎徒) (門徒)
총단장 각급단장 단원

그러나 화랑(花郎) 중의 최고책임자만을 국선(國仙)이라 했는지, 혹은 화랑(花郎)을 모두 국선(國仙)이라고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선근(李瑄根)도 이 점을 의식하였는지 「국선(國仙)의 수는 1명이 원칙이었으나, 국선화랑(國仙花郎)에 추대될 만한 인물이 여럿 일 때는 모두 추대되어 둘 이상 3~4인이 있을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만약 모든 화랑(花郎)을 국선(國仙), 국선화랑(國仙花郎)이라고 했다면 여러 화랑도(花郎徒)를 통솔한 책임자로는 화주(花主)¹²⁾를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동시대에 여러 화랑(花郎)이 함께 존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5 용천사(融天師) 혜성가(彗星歌) 진평왕대(眞平王代)에 보면

「제5 거열랑(居烈郎), 제6 실처랑(實處郎), 제7 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花郎)이 거느린 낭도(郎徒)들이 풍악산(楓岳山, 오늘날의 金剛山)으로 가려고 했다. (第五居烈郎第六實

處郎第七寶同郎等三花之徒欲遊楓岳)।
라고 하여 진평왕(眞平王) 당시 화랑도(花郎徒)는 적어도 7개의 문호(門戶)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2 48 경문대왕(景文大王)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국선(國仙) 요원랑(邀元郎), 예흔랑(譽昕郎), 계원(桂元), 숙종랑(叔宗郎)이 금란(金蘭, 오늘날의 通川)에서 노닐었다.(國仙遊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等遊覽金蘭)」

또 화랑(花郎)의 자격에 대하여, 이 선근(李瑄根)은 미시랑(未尸郎) 같이 거리를 방황하던 이름모를 천애(天涯) 고아가 국선(國仙)에까지 추대된 것을 미루어¹³⁾ 화랑(花郎)은 문벌과 계급을 초월해 오로지 인물과 자질만을 기준으로 되었다고 하였으나, 당시 사회가 골품(骨品)제사회라는 엄격한 신분계급사회였음을 생각하면 화랑(花郎)은 반드시 진골(眞骨)귀족 출신 중에서 선출되었음이 분명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에 수록된 당(唐)나라 사람 영호징(令狐澄)의 《신라국기(新羅國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귀인의 자제로 아름다운 사람을 가려 뽑아서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화랑(花郎)이라 이름하고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여 섬긴다.(擇貴人子弟之美者傅粉粧飾之名曰花郎國人皆尊事之也)」

낭도(郎徒)들의 신분이나 자격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낭도(郎徒)들 중에는 후에 일반 병졸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아마 왕경(王京)에 사는 귀족은 물론 평민 자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화랑도(花郎徒)에는 같이 활동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월명사(月明師)의 경우에서 보듯이,¹⁴⁾ 노래가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화랑도(花郎徒)가 어떤 의식을 집행할 때 도와주는 등 주로 지적·정신적인 방면에서 화랑도(花郎徒)를 지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리고 화랑도(花郎徒)들의 나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대개 15~18세이고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¹⁵⁾에서 보듯이 3년 정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수련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의 수양 방법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과 권(卷) 제47 열전(列傳) 김 흠운(金歎運)전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 도의(道義)를 연마하고, 혹은 가락(歌樂)을 즐기면서, 산수를 찾아 다니며 유람하는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는 데가 없었다.(或相磨以道義或相悅以歌樂遊娛山水無遠不至)」

첫째, 도의(道義)를 연마한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족의 선통과 신앙을 존중하면서 곧 언급하게 되겠지만 화랑도(花郎徒)의 기본 덕목이 된 5계(戒)와 3덕(德)의 정신을 체득·연마한 것이다.

둘째, 가락(歌樂)으로써 즐긴다는 것인데, 오늘날 종교단체 청년단체가 음악을 즐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화랑도(花郎徒)도 멋있고 예술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기풍(氣風)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셋째,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희와 오락을 즐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산·대천을 순례함으로써 국토와 대자연에 대하여 끝없는 애착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금강산(金剛山)과 관동8경(關東八景)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고장은 화랑도(花郎徒)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었다.

화랑도(花郎徒)의 지침이 된 덕목으로는 세속5계(世俗五戒)와 3덕(德)을 들 수 있다. 세속5계(世俗五戒)는 원광법사(圓光法師)가 만든 것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5 열전(列傳) 귀산(貴山)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화랑도의 지침이 된 덕목으로는 세속5계를 들 수 있다.
세속5계는 원광법사가 만든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귀산과 추항 두사람에게 원광법사가 계명을 교화하는 장면이다.



「귀산(貴山)은 어렸을 때 추항(籌項)을 친우로 사귀어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사군자(士君子)와 교유하기를 기약하고,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않으면 장차 치욕을 면치 못할까 두려우므로, 곧 어진 사람의 곁으로 가서 옳은 도리를 듣기로 하자.’하였다. (貴山少與部人筹項爲友二人相謂曰我等期與士君子遊而不先正心修身則恐不免於招辱盍聞道於賢者之側乎)

이때 원광법사(圓光法師)가 수(隋)나라로 들어가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가실사(加悉寺)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예의로 써 존경하였다. 이때 귀산(貴山) 등은 원광법사(圓光法師)를 찾아 가서 공손한 태도로 말하기를 ‘속된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사오니 원하옵건데 한 말씀 가르쳐 주시오면 몸에 맞도록 계명으로 삼겠나이다’하니 원광법사(圓光法師)는 말하기를 ‘불계(佛戒)로는 보살계(菩薩戒)가 있어 그를 10계로 하고 있으나 그대들은 사람의 신하가 되어서 능히 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다. 지금 세속에 알맞을 5계가 있는데, 첫째 임금을 섬김에 충성으로 써 하고(事君以忠), 둘째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 써 하고(事親以孝), 셋째 벗을 사귐에 신의로 써 하고(交友以信), 넷째 싸움 마당에 다다르면 물러남이 없게 하고(臨戰無退), 다섯째 산 것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으라(殺生有擇) 하는 것인데,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라’하니 귀산(貴山) 등은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명하는 대로 받아 행하겠사오니 소위 살생유택(殺生有擇)이라는 것만은 아직 똑똑히 모르겠나이다’하니 원광법사(圓光法師)는 말하기를 ‘6재일(六齋日)¹⁶⁾과 봄과 여름 달에는 산 것을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때를 가리라는 것이다.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소·닭·개를 말하는 것이고, 세물(細物)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가 한 입도 못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건을 가린다는 것이다. 이는 오직 그 소용함에 많은 죽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가히 세속의 착한 경계라고 말할 수 있다’하므로 귀산(貴山) 등은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후에는 법사(法師)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감히 실수하지 않겠나이다.’하였다。(時圓光法師入隋遊學還居加悉寺爲時人所尊禮貴山等詣門樞衣進告曰俗士顛蒙無所知識願賜一言以爲終之誠法師曰佛戒有菩薩戒其別有十若等爲人臣子恐不能堪今有世俗五戒一曰事君以忠二曰事親以孝三曰交友以信四曰臨戰無退五曰殺生有擇若等行之無忽貴山等曰他則既受命矣所謂殺生有擇獨未曉也師曰六齋日春夏月不殺是擇時也不殺使當謂馬牛雞犬不殺細物謂肉不足一鬢是擇物也如此唯其所用不求多殺此可謂世俗之善戒也貴山等曰自今已後奉以周旋不敢失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4 원광서학(圓光西學)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후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은 백제(百

濟)와의 전투에 참가하여 법사(法師)의 임전 무퇴(臨戰無退)라는 가르침대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속5계(世俗五戒)가 널리 알려져 화랑도(花郎徒)의 실천 강목이 되었다.

3덕(德)은 경문왕(景文王)의 고사에서 나온 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2 48 경문대왕(景文大王)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문왕(景文王)의 이름은 응렴(膺廉)이고 18세에 국선(國仙)이 되었다. 응렴랑(膺廉郎)이 20살이 되었을 때,¹⁷⁾ 현안대왕(憲安大王)이 그를 불러 궁전 안에서 연회를 베풀고는 물었다. ‘낭(郎)이 국선(國仙)이 되어 사방을 두루 노닐며 어떤 기특한 일을 보았는가?’ 응렴랑(膺廉郎)은 답했다. ‘제가 미행(美行)을 행하는 사람 셋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들려 달라고 했다. ‘남의 상사로 있으면서 행동거지를 두루 겸손히 하여 남의 아랫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첫째입니다. 대단한 부자이면서 겸소하고 평이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둘째입니다. 셋째로는 본래 존귀하고 세력이 있으면서 그 위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안왕(憲安王)은 응렴랑(膺廉郎)의 이 말을 듣고 그의 사람됨이 현철함을 알았다.(王諱膺廉年十八爲國仙至於弱冠憲安大王召郎宴於殿中門曰郎爲國仙優遊四方見何異事郎曰臣見有美行者三王曰請聞其說郎曰有人爲人上者而爲謙坐於人下其一也有人毫當而衣儉易其二也有人本貴勢而不用其威者三也王聞其言而知其賢)」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11 신라 본기(新羅本紀) 47 현안왕(憲安王) 4년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후 국선(國仙) 응렴(膺廉)은 현안왕(憲安王)의 사위가 되고 현안왕(憲安王)이 죽은 후에는 그를 이어 경문왕(景文王)이 되었다.

위의 기록에서 처럼, 현안왕(憲安王)이 국선(國仙) 응렴(膺廉)에게 ‘견하이사(見何異事, 어떤 기특한 일을 보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응렴(膺廉)은 ‘견유미행자삼(見有美行者三, 아름다움을 행하는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이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에 착안하여 일

찌기 이 선근(李瑄根)은 ‘견유미행자삼(見有美行者三)’에 나타난 3 미덕(美德)을 가리켜 화랑(花郎)의 3이(異)라고 일컬으며,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3미(美) 또는 3덕(德)이라고 하여도 무방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덕행의 소유자라야만 아름다운 행실을 제대로 볼 수 있드시, 화랑도(花郎徒)들이 아름다운 덕행을 추구하였기에 ‘미행자삼(美行者三)’이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3이(異) 즉 3덕(德) 또한 화랑도(花郎徒)들의 기본 덕목으로 볼 수 있겠다.

현행 고등학교 국민윤리(國民倫理) 교과서에서는 위의 사항을 다시 현대 용어로 요약하여 세속5계(世俗五戒)를 충(忠), 효(孝), 신의(信義), 용맹(勇猛), 자비심(慈悲心)으로, 3덕(德)을 겸허(謙虛), 겸소(儉素), 순후(淳厚)로 가르치고 있다.

3. 화랑도(花郎徒)의 기풍(氣風)

화랑도(花郎徒)의 기풍을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의 기록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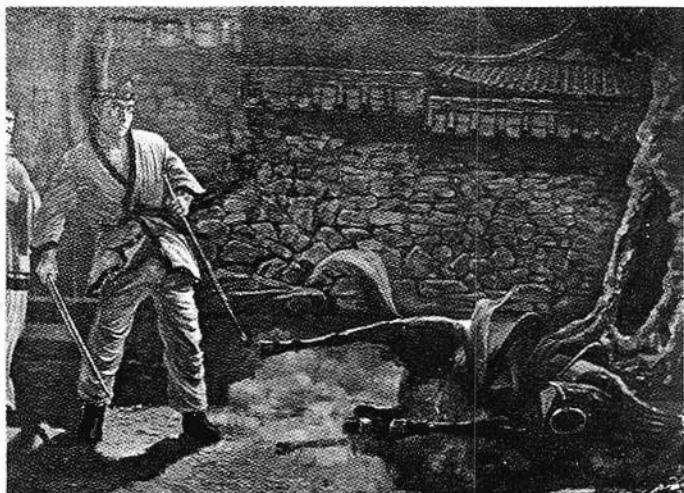
첫째,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지기(知己, 자기를 알아 주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벗)를 위하여 죽는다.(上爲國家下爲知己死之) – 비녕자(丕寧子) 전 –

둘째, 의(義)가 없는 삶 보다는 차라리 의로운 죽음이 값지고(與其無義而生不若有義而死), 천금(千金)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의(義)가 아니라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苟非其義雖千金之利不動心焉) – 해론(奚論) 전, 검군(劍君) 전 –

셋째, 장부는 모름지기 싸움터에서 죽을 뿐 한가로이 침상에 누워 가족과 함께 임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丈夫固當兵死豈可臥牀席死家人之手乎) – 소나(素那) 전 –

넷째, 전진만 있고 후퇴가 없음은 오로지 사졸(士卒)의 본분이니, 장부가 일에 임하여 혼자 결정할지언정, 후퇴하자는 무리들의 의견을 헤치지 않는다.(有進無退士卒之常分也丈夫臨事自決何必從衆) – 김영윤(金令胤) 전 –

이상의 몇가지 예로써 화랑도(花郎徒)의 장



“장부는 모름지기
싸움터에서 죽을 일,
한가로이 침상에 누워
가족과 함께 임종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렬한 기백과 씩씩한 기풍(氣風)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화랑도(花郎徒)들은 ‘가락(可樂)으로 서로 즐긴다.(相悅以歌樂)’는 수련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드시, 노래와 춤을 생활화하여 향가(鄉歌) 문학에 많은 명작을 남겼다. 득오(得鳥)는 죽지랑(竹旨郎)을 사모하는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를 지었고, 충담사(忠談師)는 기파랑(耆婆郎)을 찬양하는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를, 월명사(月明師)는 제망매가(祭亡妹歌) · 도솔가(兜率歌)를, 요원랑(邀元郎) · 예흔랑(譽忻郎) · 계원(桂元) · 숙종랑(叔宗郎) 등은 현금포곡(玄琴抱曲) · 대도곡(大道曲) · 문군곡(問群曲)의 가사를 지었다.¹⁸⁾ 이와같이 화랑도(花郎徒)에게는 거의 음악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랑도(花郎徒)의 기풍(氣風)은 당시 신라(新羅)의 종교적 정신 세계가 반쳐주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 치원(崔致遠)이 신라(新羅) 화랑(花郎) 난랑(鸞郎)의 비문을 지었는데, 그 서문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 한다. 이 가르침을 설치한 근원은 이미 선사(仙史)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거니와, 그것은 실로 유·불·선(儒佛仙) 3

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모든 생명과 접하여 이들을 감화하였다.(接化群生) 또 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는 노(魯)나라 공자(孔子)의 취지이며, 또 모든 일을 억지로 처리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실행함은 주(周)나라 노자(老子)의 가르침이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착한 행실만 신봉하여 행함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가르침이다.(國有玄妙之道曰風流設教之源備詳仙史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家出則忠於國魯司寇之旨也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이것은 화랑도(花郎徒)의 근본 정신이 고유의 전통과 윤리 사상을 토대로 하여 새로이 전래된 유·불·선(儒佛仙) 3교의 기본 정신을 잘 조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儒教) 사상은 앞서 언급한 세속5계(世俗五戒)의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 화랑도(花郎徒)에 승려가 포함되어 있어서 노래 가사를 짓는다거나, 의식을 집행한 것은 불교(佛教)와의 관련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화랑도(花郎徒)는 불교(佛教)의 미륵(彌勒) 신앙과 결부되어 있었다. 지도자인 화랑(花郎)은 도솔천(兜率天)에서 내려온 미륵(彌勒)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 자

체가 미륵(彌勒)을 쫓는 무리로 일컬어졌다.
화랑(花郎) 김 유신(金 庾信)의 무리를 당시 사람들이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다는 것이 그 실례가 된다.¹⁹⁾

또한 화랑(花郎)을 다른 말로 국선(國仙) 선랑(仙郎)이라고 했고, 화랑도(花郎道)를 다른 말로 풍월도(風月道) · 풍류도(風流道)라고 하면서 국토 순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신선(神仙) 사상과의 관련을 의미한다.

이밖에 김 유신(金 庾信) 등 화랑(花郎)의 출전(出戰)에 주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고대의 전쟁에는 주술적인 면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처럼 화랑도(花郎徒)에도 제의(祭儀)적인 면이 남아 있어서, 화랑(花郎)은 무장(武將) 외에 제사장(祭司長)의 성격도 겸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4. 화랑도(花郎徒)의 변천

화랑도(花郎徒)의 성과에 대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미륵선희(彌勒仙花) · 미시랑(未尸郎) · 진자사(眞慈師)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花郎徒제도의 제정)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회개하여 선으로 옮아가게 하고, 웃 사람들에게는 공경히 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온화하게 하도록 하니, 오상(五常)과 육예(六藝), 삼사(三師)와 육정(六正)의 도(道)²⁰⁾가 대대로 널리 행하게 되었다.(自此使人悛惡更善上敬下順五常六藝三師六正廣行於代)」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홍왕(眞興王) 37년과 권(卷) 제47 열전(列傳) 김 흠운(金 欽運) 전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진 재상(宰相)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빠져 나오고, 뛰어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겼다(賢佐忠臣從此而秀良將勇卒由是而生)」

즉 진홍왕(眞興王) 아래 삼국통일의 대업을 거쳐 신라(新羅) 말엽까지 역대의 국가 지도인물들이 거의 모두 화랑도(花郎徒) 출신이었음을 찬양한 것이다.

화랑(花郎)의 총 수효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7 열전(列傳) 김 흠운(金 欽運)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삼대(三代)²¹⁾의 화랑(花郎)은 무려 200여 명이나 되고, 그들의 꽂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행실은 모두 전기(傳記)와 같다.(三代花郎無慮二百餘人而芳名美事具如傳記)」

고려(高麗) 고종(高宗) 2년(1215년)에 편찬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권(卷) 제1 법운(法運) 전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원랑(原郎)²²⁾으로 부터 신라(新羅) 말에 이르기 까지 무릇 200여 명이었고, 그 중에 4선(四仙)이 가장 어질었는데, 모두 세기(世紀) 속의 기사와 같다.(自原郎至羅末凡二百餘人其中四仙最賢具²³⁾如世記中)」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의 세기(世紀)는 김 대문(金 大問)의 《화랑세기(花郎世記)》가 틀림없겠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전기(傳記) 역시 《화랑세기(花郎世記)》로 생각된다. 《화랑세기(花郎世紀)》가 현존하지 않으므로,²⁴⁾ 그것을 인용한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을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이름이 전해지는 대표적인 화랑(花郎)을 시대순으로 열거하면 사다함(斯多含), 백운(白雲), 설원랑(薛原郎), 미시랑(未尸郎), 김 유신(金 庾信), 김 영운(金 令胤), 근랑(近郎), 죽지랑(竹旨郎), 호세랑(好世郎), 구참공(瞿畧公), 거열랑(居烈郎), 실처랑(實處郎), 보동랑(寶同郎), 관창(官昌), 문노(文努), 보천(寶川), 부례랑(夫禮郎), 준영랑(俊永郎), 기파랑(耆婆郎), 김 응렴(金膺廉), 요원랑(邀元郎), 예흔랑(譽暉郎), 계원(桂元), 숙종랑(叔宗郎), 효종랑(孝宗郎) 등을 들 수 있다.

화랑도(花郎徒)는 진홍왕(眞興王) 이후 삼국통일기인 무열왕(武烈王) · 문무왕(文武王) 때 가장 융성하였고, 그후에도 이전 같지는 못했으나 계속 유지되었다. 진홍왕(眞興王) 때는 신라(新羅)가 팽창하는 시기였으므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용감한 인재가 많이 요구되었

화랑도들은 “기락으로 서로 즐긴다”는 수련방식이 있어, 노래와 춤을 생활화하여 향가문학에도 많은 명작을 남겼다.

사진은 풍류를 즐기는 화랑들에 대한 기사(삼국사기)



고, 그에 따라 민간 조직이었던 화랑도(花郎徒)가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 계속하여 삼국통일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화랑도(花郎徒)가 더욱 융성하였다.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평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들의 태도도 안일하게 되고, 그에 따라 화랑도(花郎徒)도 쇠퇴하였다. 신라(新羅) 말에는 화랑(花郎)의 명칭이 주로 선랑(仙郎), 국선(國仙) 등으로 불리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화랑도(花郎徒)가 초기와 같이 무술 단련, 국가정신의 양양에 힘쓰기 보다는 점차 명산대천을 유람하는 방향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와서도 화랑도(花郎道)의 부흥이 시도되었다.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훈요10조(訓要十條)에서 해마다 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개최할 것을 명하였다. 연등회(燃燈會)는 부처를 숭상하는 불교(佛教) 행사이고, 팔관회(八關會)는 토착신앙과 불교(佛教)가 융합된 행사, 또는 민족의 전통적인 제전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고려(高麗) 후기 이 인로(李仁老)는 과한집(破閑集)에서 팔관회(八關會)가 다른 아님 화랑도(花郎道)의 유풍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라(新羅)의 옛날 풍속에, 남자로서 풍모

가 아름다운 자를 택해 구슬로 써 장식하고 화랑(花郎)이라 일컬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떠받들었으며, 때로 3천여명의 무리를 이루기도 하였다……우리 태조(太祖)가 일어나게 되자 옛 나라의 유풍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하면서 겨울에 팔관성회(八關盛會)를 베풀고 양가의 자제 4명을 택해 예의(霓衣, 天人이 입는 무지개옷)를 입고 뜰에서 춤추게 했다.」

또 고려(高麗) 18대 의종(毅宗)도 만년에 반포한 교서(教書)에서 화랑도(花郎道)의 중흥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옛 신라(新羅)에서는 선풍(仙風, 花郎道)이 크게 행해져 이 때문에 용왕이 기뻐하고 백성과 만물이 편안하였다. 그러므로 역대 왕들이 그 유풍을 오래도록 숭상해 온 것이다.」

이상으로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화랑도(花郎道)가 민족의 전통적인 제전, 또는 고유사상이라는 면에서 이해되고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도, 화랑도(花郎道)는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사상으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화랑(花郎)이란 말은 남자 무당을 가리키게 되어 이를 ‘화랭이’라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결립승(乞粒僧)의 무동(舞童), 사당패(寺黨牌)의 거사(居士)까지 지칭하게 되었다. 그리므로 신라시대(新羅時代)의 화랑(花郎)이 오늘날의 무당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5. 영랑호(永郎湖)의 생성(生成)

영랑호(永郎湖)는 성인(成因)상으로 볼 때 석호(潟湖)이다. 동해안에는 석호(潟湖)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강릉(江陵)의 경포호(鏡浦湖)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요한 호수를 언급하자면 주문진(注文津)의 향호(香湖), 양양(襄陽) 현남면(縣南面) 포매리(浦梅里)의 매호(梅湖), 손양면(巽陽面) 여운포리(如雲浦里)의 연개, 손양면(巽陽面) 학포리(鶴浦里)의 쌍호(雙湖), 속초(東草)의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봉포리(鳳浦里)의 광포호(廣浦湖), 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의 송지호(松池湖), 거진읍(巨津邑)과 현내면(縣內面)에 걸쳐 있는 화진포(花津浦), 그 북쪽 휴전선 너머에 있는 고성군(高城郡)의 감호(鑑湖), 영랑호(永郎湖), 삼일포(三日浦), 통천군(通川郡) 흡곡(歙谷)의 시중호(侍中湖) 등을 들 수 있다.

석호(潟湖)는 원래 육지였던 곳이 후빙기(後冰期) 때 얼음이 녹으면서 해면 상승 작용으로 바다로 변하고, 그 전면에 해류·조류·하천 등의 작용으로 사주(砂洲)·사취(砂嘴)가 발달하여 바다와 격리되어 이루어진 호수이다.

지구의 역사는 약 45억년 쯤 되며, 이것은 시생대(始生代)·원생대(原生代)·고생대(古生代)·중생대(中生代)·신생대(新生代)로 구분된다. 신생대(新生代)는 약 6천5백만년 전부터이며, 이것은 다시 제3기와 제4기로 구분된다. 제4기는 약 2백만 년 전부터이며, 이때부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다. 제4기는 다시 홍적세(洪積世, 플라이스토세)와 충적세(冲積世, 현세)로 구분되는데, 홍적세(洪積世)는 빙하시대로서 빙하기(氷河期)가 5번 그 사이에 간빙기(間冰期)가 4번 교대하다가, 지금부터 1만년 전에 제5 빙하기(氷河期)가 끝나고 후빙기(後冰期)에 접어드는데, 그 후빙기(後冰期)가 바로 충적세(冲積世)이다. 그때 해빙으로 해면이 약 200m 정도 상승하여 이전에 육지였던 곳이 침수되어 바다로 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中國) 사이의 황해(黃

海)는 육지였던 것이 이때 바다로 변하였고, 동해(東海)도 호수였던 것이 이때 바다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지구상의 모습도 오늘날과 비슷한 모양으로 되었고 인류 문명도 크게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침수된 바다 전면에 해류·조류·하천의 작용으로 사주(砂洲)·사취(砂嘴)가 발달하여 바다와 격리되어 호수가 되고, 이렇게 형성된 석호(潟湖)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천에 의한 토사의 운반에 따라 자연적 혹은 인공의 힘에 의하여 점차 줄어들게 된다. 호수 부근이 토사운반에 의하여 습지 혹은 농경지로 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나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아도 현재의 호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랑호(永郎湖)의 경우, 지금부터 500년 전 기록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호수 둘레가 30리(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후 조선(朝鮮) 후기 『읍지(邑誌)』에서는 모두 20리(里)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석호(潟湖)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의 운반으로 자연적으로 매립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주목되는 사실이다.

6. 영랑호(永郎湖)와 화랑(花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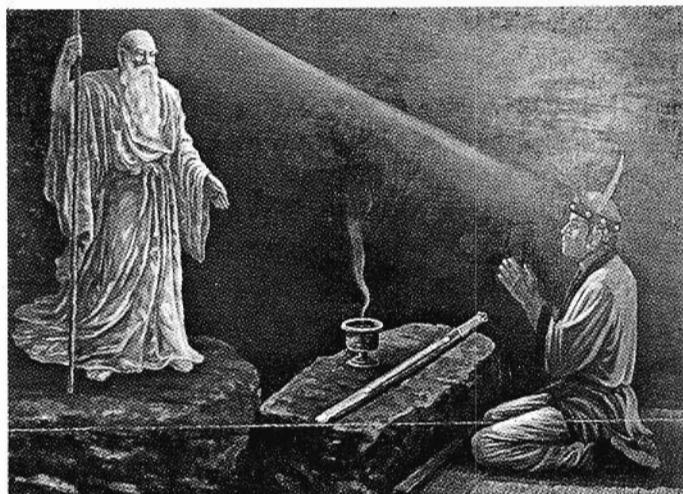
영랑호(永郎湖)라는 이름이 신라(新羅) 화랑(花郎) 영랑(永郎)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3년 강원일보사(江原日報社)에서 발행한 『태백(太白)의 산하(山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동해안을 만유(漫遊,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여행함)하던 신라(新羅)의 낭도(郎徒)들이 이곳에서 놀았고, 특히 그중 영랑(永郎)이라는 선도(仙徒)²⁵⁾가 이곳 경색(景色)에 취하여 오래 놀았다하여 영랑호(永郎湖)라 이름지었다 한다.」

1982년 속초시(東草市)에서 발행한 『설악(雪嶽)의 뿌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화랑도는
민족의 전통적인 고유사상으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화랑이란 말은
남자무당을 가리키게 되어
이를 ‘화랭이’라고 하였으며,
나이가서는 걸립등의 무등,
사당패의 거사까지 지칭하게
되었다.



「영랑호(永郎湖)의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花郎)이었던 영랑(永郎)이 동료인 술랑(述郎) · 안상(安祥) · 남석(南石) 등과 금강산(金剛山)에서 수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에서 삼일동안 놀고 난 후 각각 헤어져 신라(新羅) 서울 금성(金城)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영랑(永郎)만은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즐기고, 고기를 낚고, 풍류의 멋을 다하였다. 그런 후 사람들이 영랑호(永郎湖)라고 부르게 되었다.」

1983년 ‘뿌리깊은나무’에서 발행한 『한국의 발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시대에 화랑인 영랑 · 술랑 · 안상 · 남석 등이 무술대회에 나가던 길에 이 호수에 들렀었는데, 영랑이 그 풍광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무술대회에 나갈 일 조차 잊어버린 일이 있고 난 뒤로 이 호수에 이름이 영랑호로 불렸다고 한다.」

1985년 속초문화원(東草文化院)에서 향토사료 제1집으로 발행한 『화랑(花郎)과 영랑호(永郎湖)』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新羅) 화랑(花郎) 영랑(永郎)이 같은 낭도(郎徒)인 술랑(述郎) · 남랑(南郎) · 안상(安祥) 등과 함께 금강산(金剛山)에서의 수련을 끝마치고, 명승지 삼일포(三日浦)에서 3일 동안 유람한 후, 각각 헤어져 영랑(永郎)은 동

해안을 따라 신라(新羅)의 수도 서라벌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호수를 발견하게 된다. 명경(明鏡)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雪嶽山) 울산(蔚山) 바위와 웅크리고 앉은 범바위가 그대로 물 속에 잠겨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한다. 영랑(永郎)은 서라벌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호수를 영랑호(永郎湖)라고 부르게 되었다.」

전해오는 얘기를 최근에 기록한 것이므로, 문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비슷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사실인지의 여부가 궁금하다. 속초문화원(東草文化院) 발행 『화랑(花郎)과 영랑호(永郎湖)』에는 위의 기록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지만,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위의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준영랑(俊永郎)을 줄여서 영랑(永郎)이라고도 불렸다는 것이 권(卷) 제3 백률사(柏栗寺)에 기록되어 있다.²⁶⁾

「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영랑(俊永郎)의 낭도(郎徒)라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영랑(永郎)의 낭도(郎徒)에는 오직 진재(眞才) · 번완(繁完) 만이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그 역시 내력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世謂安常爲俊永郎

徒不之審也永郎徒唯眞才繁完等知名皆亦不測人也)」

여기의 영랑(永郎), 즉 준영랑(俊永郎)이 영랑호(永郎湖)에서 놀았다는 영랑(永郎)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화랑도(花郎徒)들이 동해안으로 유람을 와서 이 영랑호(永郎湖)에서 논 것은 사실이다. 전술한 것처럼, 그들의 수련 방법 중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람하는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테가 없었다.(遊娛山水無遠不至)」라고 되어 있듯이, 그들은 국토순례를 중요시 했고, 그 중 금강산(金剛山)과 동해안을 가장 즐겨 찾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여러 곳에 그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천수(天授, 唐나라 则天武后的 연호) 4년, 즉 효소왕(孝昭王) 2년(서기 693년) 3월에 부례랑(夫禮郎)은 낭도(郎徒)들을 기느리고 금란(金蘭, 오늘날의 통川)으로 유람을 떠났다.(天授四年癸巳暮春之月領徒遊金蘭)」—권(卷) 제3

백률사(栢栗寺) —

「국선(國仙) 요원랑(邀元郎) · 예흔랑(譽昕郎) · 계원(桂元) · 숙종랑(叔宗郎) 등이 금란(金蘭)에서 노닐었다.(國仙邀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等遊覽金蘭)」—권(卷) 제2 48 경문대왕(景文大王) —

「제5 거열랑(居烈郎), 제6 실처랑(實處郎), 제7 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花郎)이 거느린 낭도(郎徒)들이 풍악산(楓岳山, 오늘날의 금剛山)으로 유람하려고 했다.(第五居烈郎第六實處郎等七寶同郎等三花之徒欲遊楓岳)」—권(卷) 제5 융천사(融天師) 혜성가(彗星歌) 진평왕대(眞平王代) —

영랑호(永郎湖)는 이곳 외에도 휴전선 너머 고성군(高城郡)에도 있고, 내금강(內金剛)에 해당하는 회양군(淮陽郡)에는 영랑봉(永郎峰)이 남아 있다.

또 동해안에는 영랑호(永郎湖) 이외에도 화랑(花郎)들의 얘기가 많이 남아 있다.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에 있는 6각으로 된 4기등을 사선봉(四仙峰)이라고 하는데, 신라(新羅)의 4국선(國仙) 술랑(述郎) · 남랑(南

郎) · 영랑(永郎) · 안상(安詳)이 여기 와서 놀다 갔다 하여 사선봉(四仙峰)이라고 한다.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도 상기 4명의 화랑(花郎)이 3일간 놀던 곳이라 하여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하며,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도(花郎徒)들이 호수가의 한 바위에 '술랑도 남석행(述郎徒南石行)'²⁷⁾이라는 유명한 단서(丹書, 바위에 글자는 새기고 그것을 설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붉은 칠을 한 글자)를 새겼으며,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는 호수 가운데 있는 섬에 사선정(四仙亭)이라는 정자가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선정(四仙亭)은 박군(朴君) 숙정(淑貞)이 존무(存撫, 왕명으로 지방을 순찰하던 高麗時代의 직책)로 있을 때 지었고, 좌주(座主, 高麗時代에 과거의 급제자가 시험관을 일컫는 말) 익재(益齋) 선생(李齊賢)이 기(記)를 지었다.(四仙亭朴君淑貞存撫時所置座主益齋先生爲之記)』

간성(杆城)의 선유담(仙遊潭)²⁸⁾ 역시 그러하며,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 · 한송정(寒松亭)²⁹⁾도 화랑(花郎)의 고사가 깃들어 있다.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 1348~1351) 때 문인 이곡(李穀)의 기행문인 『동유기(東遊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강릉존무사(江陵存撫使) 성산(星山) 이군(李君)이 경포(鏡浦)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배를 타고 중류(中流)에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날이 아직 기울기 전에 경포대(鏡浦臺)에 올랐다. 대(臺)에는 전에 집이 없었는데, 요즈음 호사자(好事者,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가 그 위에 정자를 지었으며, 옛날 신선의 돌풍로(石龕)가 있으니 대개 차를 달이는 그릇이다. 삼일포(三日浦)와 더불어 경개가 막상막하로 되 명랑하고 헌칠하기는 그보다도 낫다. 비가 와서 하루를 묵고 강성(江城)을 나와 문수당(文殊堂)을 구경하니, 사람들의 말이 문수(文殊) · 보현(普賢) 두 석상(石像)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라 한다. 동쪽에 사선비(四仙碑)가 있었으나, 호종단(胡宗旦, 高麗時代에 중국 宋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으로 관직 생활을 함)이 물속에 넣어버리고 오직 귀부(龜趺, 거북 모양을 한

비석의 받침)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한송정(寒松亭)에서 전송으로 술을 마셨다. 이 정자 또한 사선(四仙)이 노닌 곳인데, 고을 사람이 유람자(遊覽者)자 많은 것을 귀찮게 여겨 집을 헐어버렸고, 소나무도 야화(野火)에 타버렸으며, 다만 돌풍로(石竈) · 돌연못(石池)과 두 돌우물(石井)이 그 곁에 남아 있을 뿐인데, 역시 사선(四仙)의 다구(茶具)이다.(江陵存撫使星山李君候于鏡浦方舟歌舞中流日未西上鏡浦臺臺舊無屋近好事者爲亭其上有古仙石竈蓋煎茶俱也與三日浦相甲乙而明遠則過之以雨留一日出江城觀文殊堂人言文殊普賢二石像從地湧出者也東有四仙碑爲胡宗旦所沉惟龜趺在耳飲錢子寒松亭亭亦四仙所遊之地郡人厭其遊賞者多撤去屋松亦爲野火所燒惟石竈石池二石井在其旁亦四仙茶具也)」

그러므로 영랑호(永郎湖)와 관련된 전설들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화랑도(花郎徒)들이 영랑호(永郎湖)를 비롯하여 특히 동해안을 즐겨 찾았고, 또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영랑(永郎)이란 화랑(花郎)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영랑호(永郎湖)의 이름이 영랑(永郎)이란 신라(新羅) 화랑(花郎)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500년 전 조선(朝鮮) 초기 문헌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간성군(杆城郡)에는 영랑호(永郎湖)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랑호(永郎湖)는 고을 남쪽 55리(里)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里)인데, 물가가 굽이쳐 들어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 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 갔는데, 옛 정자 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永郎)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永郎湖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峰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또 고려(高麗) 충정왕(忠定王) 1년 서기 1349년에 쓰여진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도 영랑호(永郎湖)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초8일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띄웠다. 해가 저물어 상류까지 거슬러가지 못하였다.(初八日泛舟永郎湖日晚不得窮源)」

이상으로 미루어 오래 전부터, 적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 아마도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영랑호(永郎湖)라고 불리어 졌고, 그것은 분명히 신라(新羅) 화랑(花郎) 영랑(永郎)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랑(永郎)과 함께 유래했다는 사선(四仙)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오늘날 신라(新羅) 사선(四仙)이라고 하면 의심없이 영랑(永郎) · 술랑(述郎) · 안상(安祥 또는 安詳)³⁰⁾ · 남석(南石, 혹은 南郎, 南石郎, 南石行)을 지칭한다. 그러나 상기 사선(四仙) 중 영랑(永郎) 이외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 『삼국유사(三國遺事)』 등 사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본인이 고찰한 바로는 사선(四仙)이 언급된 최초의 문헌은 고려(高麗) 고종(高宗) 2년, 서기 1215년에 나온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이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권(卷) 제1 법운(法雲) 전에는 「200여명의 화랑(花郎) 중 사선(四仙)이 가장 어질었다.(二百餘人其中四仙最賢)」라고 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최초로 사선(四仙)을 언급했다.

그후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에도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의 사선봉(四仙峰),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의 사선정(四仙亭), 강릉(江陵) 경포대(鏡浦臺)의 사선비(四仙碑)는 언급하였으나, 사선(四仙)은 영랑(永郎) · 술랑(述郎) 등이라고만 하였다.³¹⁾ 그러던 것이 거기에 안상(安祥)과 남석(南石)이 추가된다.

안상(安祥)은 조선(朝鮮) 초기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처음 등장한다.

「삼일포(三日浦)란 신라(新羅) 때 화랑(花郎)인 안상(安祥) · 영랑(永郎)의 무리가 이곳에 와서 3일 동안 놀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三日浦者新羅時有花郎安祥永郎之徒遊三日乃罷故名焉)」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인 고려(高麗) 충렬왕(忠烈王) 때 나온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백률사(栢栗寺)에도 비롯 한자(漢

字)로는 다르기는 하나 안상(安常)이 기록되어 있다.

「효소왕(孝昭王)은 대현(大玄) 살찬(薩飧, 新羅의 17관등 중 제8관등인 沙飧의 다른 이름)의 아들 부례랑(夫禮郎)을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낭도(郎徒)로 모인 귀공자들 천명 가운데서도 부례랑(夫禮郎)은 특히 안상(安常)과 절친했다.……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영랑(俊永郎)의 낭도(郎徒)라고도 한다.(孝昭王奉大玄薩飧之子夫禮郎爲國仙珠履千徒親安常尤甚……世謂安常爲俊永郎徒)」

이것을 보면 신라시대(新羅時代)에 부례랑(夫禮郎)의 낭도(郎徒) 중에 안상(案常)이라는 유명한 낭도(郎徒)가 있었는데, 구전이나 다른 문헌에는 안상(安常)이 준영랑(俊永郎), 즉 영랑(永郎)의 낭도(郎徒)였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朝鮮) 초의 남효온(南孝溫)도 그것을 듣고, 비록 한자(漢字)로는 다르기는 하나, 「신라(新羅) 때 화랑(花郎) 안상(安祥) · 영랑(永郎)의 무리」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남랑(南郎)은 의심할 바 없이,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에 남아 있는, 신라(新羅) 화랑도(花郎徒)들이 새겨 놓았다는 단서(丹書, 붉은 글씨)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에서 나온 것이 틀림 없다. 남석행(南石行)은 화랑(花郎) 술랑(述郎)의 낭도(郎徒) 이름이라고 생각되는데,³²⁾ 화랑(花郎)과 낭도(郎徒)의 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석행(南石行)을 남석랑(南石郎) 또는 줄여서 남석(南石), 남랑(南郎)이라고 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실학(實學)의 선구자인 이 수광(李舜光)도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라시대(新羅時代) 사선(四仙) 즉 술랑(述郎) · 남랑(南郎) · 영랑(永郎) · 안상(安詳)이 함께 고성(高城)에서 삼일동안 놀고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지명을 삼일포(三日浦)라고 한다. 남랑(南郎)이란 단서(丹書)에서 소위 남석행(南石行)이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신선이라고 한 것은, 대개 그때에는 낭도

(郎徒)를 국선(國仙)이라고 했으므로 진짜 신선이 아니다.(新羅時四仙即述郎南郎永郎安詳同遊高城三日不返故名其地曰三日浦南郎疑丹書所謂南石行是也謂之仙者蓋其時謂郎徒爲國仙故云非其仙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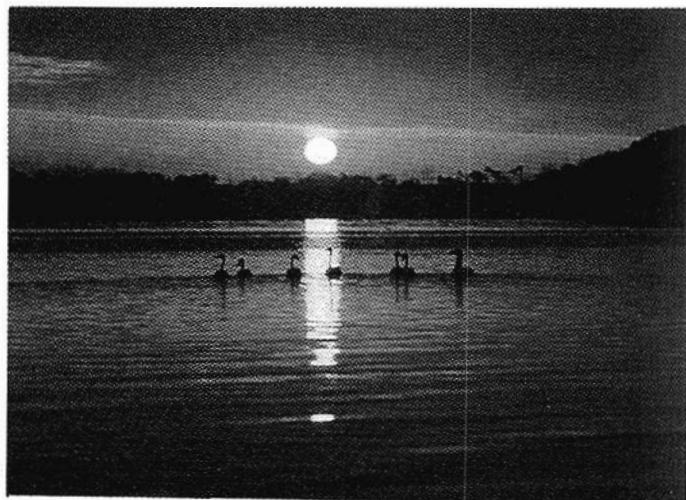
이상으로 영랑(永郎) · 안상(安祥) · 술랑(述郎) · 남랑(南郎)의 사선(四仙)은 신라시대(新羅時代)에 같이 유람한 화랑(花郎)이었다기 보다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 아마 고려시대(高麗時代) 후기 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술랑(述郎)과 남랑(南郎)은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의 단서(丹書)에서, 영랑(永郎)은 영랑호(永郎湖)에서, 안상(安祥)은 영랑(永郎)의 낭도(郎徒) 안상(安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선(四仙) 이름은 비록 다를지라도 신라(新羅)의 여러 화랑(花郎)들이 함께 이곳을 유람한 것은 여러 차례일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국선(國仙) 요원랑(邀元郎) · 예흔랑(譽昕郎) · 계원(桂元) · 숙종랑(叔宗郎) 등이 금란(金蘭－오늘날의 通川)에서 노닐었다.(國仙邀元郎譽昕郎桂元叔宗郎等遊覽金蘭)」 · 「제5거열랑(居烈郎) · 제6실처랑(實處郎) · 제7보동랑(寶同郎) 등 세 화랑이 거느린 낭도(郎徒)들이 풍악산(楓岳山, 오늘날의 金剛山)으로 유람하려고 했다.(第五居烈郎第六實處郎第七寶同郎第三花之徒欲遊楓岳)」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마침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에는 6각으로 된 돌기둥이 4개 있는데, 여러 화랑(花郎)이 함께 유람했으므로, 그것과 관련하여 사선봉(四仙峰)이라고 불리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도 사선(四仙)이 유람한 곳으로 알려지게 되고,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사선정(四仙亭)이 세워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선(四仙)의 이름이 상기 사선(四仙)으로 확정되어 졌을 것이다. 이것이 고려시대(高麗時代),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곳을 유람한 사람들의 기행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된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朝鮮時代) 궁중 무용 중에

“초파일에 영랑호까지
배를 띄웠다. 해가
저물어 상류까지
거슬러 가지 못하였다.”



사선무(四仙舞)라는 것도 있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이 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에 의하면,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팔관회(八關會)를 개최할 때, 옛 신라(新羅)의 유풍이라 하면서, 양가 자제 4명에게 예의(霓衣, 天人이 입는다는 무지개옷)를 입고 뜰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사선(四仙)이란 말은, 비록 그 이름은 현재와 다르겠지만, 이미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7. 영랑호(永郎湖)의 시문

영랑호(永郎湖)는 명승지자 화랑(花郎)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다. 고려(高麗) 후기의 학자인 안축(安軸)의 시 2수가 전한다. 안축(安軸)은 충렬왕(忠烈王) 13년 서기 1287년에 나서 충목왕(忠穆王) 4년 서기 1348년에 죽었다. 호는 근재(謹齋)이고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충숙왕(忠肅王) 17년, 서기 1330년 오늘날의 영동(嶺東) 지방에 해당하는 강릉도(江陵道)의 안렴사(按廉使, 高麗時代의 지방장관)를 지냈다. 이 때 『관동와주(關東瓦注)』라는 시문집과 경기체가(景幾體歌)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남겼다. 영랑호(永郎湖) 시도 그때 지었을 것이다.

「저문 구름 반쯤 걷히니 산은 그림 같고
기울비 새로 개이니 물결이 절로 이네.
이곳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배위에서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暮雲半捲山如畫
秋雨新晴水自波
此地重來難可必
更聞船上一聲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평평한 호수 거울인양 맑은데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 두니
등실둥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 가네.
호연(浩然)하게 맑은 흥 활동하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테로 들어가네.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옥동(玉洞)은 경주(瓊洲)를 감추었네.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연잎(荷葉)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순채실(肚蓴絲)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풍연(風煙, 멀리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이 천고(千古, 쪽 면 옛적)의 수심일세.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平湖鏡面澄

◇ 특집 ◇

滄波凝不流
蘭舟縱所如
泛泛隨輕鷗
浩然發清興
泝洄入深幽
丹崖抱蒼石
玉洞藏瓊洲
循山泊松下
空翠涼生秋
荷葉淨如洗
蓴絲滑且柔
向晚欲回棹
風煙千古愁
古仙若可作
於此從之遊」—《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고려(高麗) 후기의 학자 이곡(李穀)의 시 1 수가 전해진다. 이곡(李穀)은 충렬왕(忠烈王) 24년, 서기 1298년에 나서 충정왕(忠定王) 3년, 서기 1351년에 죽었다. 호는 가정(稼亭)이고 시호는 문효공(文孝公)이다. 금강산(金剛山)과 동해안을 유람하고 기행문 《동유기(東遊記)》를 남겼다.

「안정승(安軸)의 정회(情懷)는 황학(黃鶴)의 달이요(옛 사람의 시에 ‘黃鶴去不得返’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安軸이 한번 가고 다시 못 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생(李生, 李穀 자신을 말함)의 행지(行止, 行動舉止의 준말로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뜻 함)는 흰 갈매기의 물결이네.

이곳에 다시 온다 약속하기 어려운데
부질없는 관동(關東)의 한 곡조 노래만 듣네.
(安相情懷黃鶴月
李生行止白鷗波
重來此地誠難必
空聽關東一曲歌)」—《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조선(朝鮮) 선조(宣祖) 때의 학자 구 사맹(具思孟)의 시가 1수 전해진다. 구 사맹(具思孟)은 중종(中宗) 26년, 서기 1531년에 나서 선조(宣祖) 37년, 서기 1604년에 죽었다. 호는 팔곡(八谷), 시호는 문의(文懿)다.

「넓고 맑은 호수가 거울처럼 평평한데
조각배 타고 홍을 내니 물에 달 그림자 비치
네.」

다만 옛날(花郎들이) 놀던 신비한 발자취 흥
내낼 뿐일세.

어느 누가 감히 이름을 내세우자고 말하겠는
가?

(百頃淸湖鏡面平
扁舟載興泛空明)
當時只擬遊踪秘
饒舌何人強揭名)」—간성읍지(杆城邑誌)인
《수성지(水城誌)》에서—

조선(朝鮮) 인조(仁祖) 때의 문신 이 상질(李尙質)의 시가 1수 전해진다. 이 상질(李尙質)은 선조(宣祖) 30년, 서기 1597년에 나서 인조(仁祖) 11년, 서기 1633년에 죽었다. 호는 가주(家州)다.

「흰 구름 가에서 신선의 옷을 엮고
동쪽 땅에 홀로 오니 뜻은 묘연(渺然, 알길이
없이 까마득함)하구려.

해진 뒤, 맑은 모래 사장, 호수는 넓고
어디서 신선을 물을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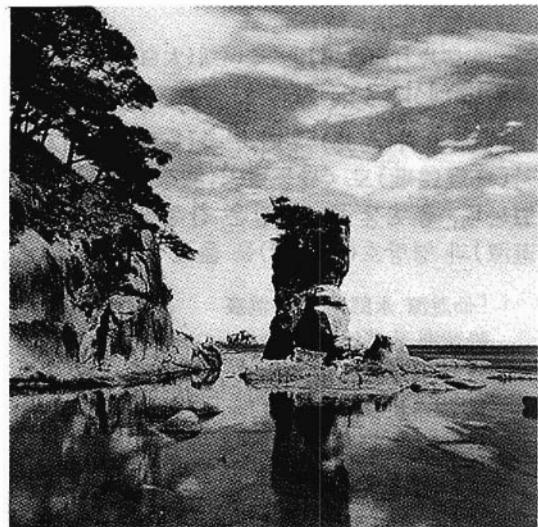
(羽衣初綰白雲邊
匹馬東來意渺然
日落沙明湖水闊
不知何處問神仙)」—강원일보사(江原日報社)
발행 《태백(太白)의 시문(詩文)》에서—

조선(朝鮮) 숙종(肅宗) 때의 문신 이 세구(李世龜)의 시 2수가 전해진다. 이 세구(李世龜)는 인조(仁祖) 24년, 서기 1646년에 나서 숙종(肅宗) 26년, 서기 1700년에 죽었다. 호는 양와(養窩)이다.

「모래 해안 동쪽 솔밭을 지나니
맑고 깨끗한 곳 바람도 없네.
호수는 맑아서 한 폭의 그림이요
설악(雪嶽)의 천봉(千峰)이 거울 속에 잠겼
네.」

(行盡長松沙岸東
澄清瀟洒更無風
明湖一曲眞如畫
雪嶽千峰倒鏡中)」—《태백(太白)의 시문(詩文)》에서—

통천 총석정에는 6각으로 된
돌기둥이 4개 있는데, 여러
화랑이 함께 유람했으므로,
그것과 관련해서 사선봉이라고
불리어졌을 것이다.



「금강(金剛)의 일만 이천 봉 두루 돌아서
명사십리 해당화 길 밟고서 왔네.
영령호반(永郎湖畔)에 서니 안계(眼界)가 터
여
술동이 장단치며 노래 부른다.
(歷遍金剛萬二岫)
海棠千里踏鳴沙
永郎湖畔初開眼
手拍瓊壺浩浩歌」—《태백(太白)의 시문(詩文)》에서—

조선(朝鮮) 숙종(肅宗) 때의 학자 김 창흡(金昌翕)의 시 1수가 전해진다. 김 창흡(김昌翕)은 효종(孝宗) 4년, 서기 1653년에 나서 경종(景宗) 2년, 서기 1722년에 죽었다. 호는 삼연(三淵)이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숙종(肅宗) 15년, 서기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肅宗이 張禧嬪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데 대하여 이를 반대한 宋時烈 등 西人이 이를 지지한 南人에게 패배당하여 정권이 西人에서 南人으로 바뀐 사건) 때 당시 영의정(領議政)이었던 아버지 김 수항(金壽恒)이 사사(賜死)되자 세상에 뜻이 없어 영평(永平, 예전에는 독립된 고을이었으나 지금은 京畿道 抱川郡에 속함)에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다. 한때 내설악(內雪嶽) 영시암(永矢庵)에도 머물렀다. 이 때 외설악(外雪嶽)으로도 자주 넘어 왔고, 비선대(飛仙臺) · 영랑호(永

郎湖) 등을 옮은 한시가 남아 있다. 이에 연유하여 최근에는 노학동(蘆鶴洞)에 ‘삼연(三淵) 김 창흡(金昌翕) 선생추념비(追念碑)’가 세워졌다.

「험한 봉이 에워 싸도 바다쪽은 트였고
모래 언덕 대(臺)에는 묘리(妙理, 묘한 이치)
가 있네.

한장(漢將, 중국 장수)이 돌아갈 때 사흘을
울었다고(永郎湖의 경치에 반한 까닭으로 돌아
가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현언(玄言)에 기록이 남아 있네.
(屏張萬岫海開門
沙阜成臺衆妙存
漢將廻時三日哭
至今猶記契玄言) —《태백(太白)의 시문(詩文)》에서—

연대 미상의 이 몽규(李夢奎)도 시 1수를
남겼다.

「맑은 호수 평활(平濶, 평평하고 넓음)하여
거울과 같고

설악(雪嶽)의 맑은 봉(峰) 병풍처럼 둘렀네.
신선(笙鶴이란 말은, 신선은 鶴다리로 만든
笙簧이란 악기를 분다는 얘기에서 나온 것으로,
곧 신선을 가리킨다.) 간지 천년에 소식은 없고
허공의 조각달만 푸른 파도 비치네.

(平湖淨色明如鏡
雪嶽晴峰擁作屏

笙鶴千年消息斷

空留片月照滄濤」—《태백(太白)의 시문(詩文)》에서—

한편 고려(高麗) 후기 안축(安軸)은 경기체가(景幾體歌)로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는데, 총 8장 중 제5장은 간성의 선유담(仙遊潭)과 영랑호(永郎湖)를 읊은 것이다.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綠荷洲 青瑤嶂 風煙十里
香冉冉 翠森森 琉璃水面
爲 泛舟景 幾何如
尊羹鱸膾 銀絲雪縷
爲 羊酪 豈 勿蓼爲古里」

같은 시기인 이곡(李穀)의 기행문 《동유기(東遊記)》에도 영랑호(永郎湖)가 나온다.

「초8일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띄웠다. 해가 저물어 상류까지 거슬러가지 못하였다.(初八日泛舟永郎湖日晚不得窮源)」

송강(松江) 정철(鄭徹)이 지은 〈관동별곡(關東別曲)〉에도 영랑호(永郎湖)가 등장한다. 정철(鄭徹)은 선조(宣祖) 13년, 서기 1480년, 그의 나이 45세 때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로 제수되어, 관동(關東) 산수를 두루 유람하면서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는데, 영랑호(永郎湖)가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高고城성을 란 더만 두고 三삼일 일浦포를 쭉
자가니, 丹단書서 눈 宛완然연호 되 四수仙선은
어디 가니. 예 사흘 머문 後후의 어디 가 뜻
를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낭湖호 거거나 가 있
는가. 清청澗간亭정 萬만景경臺디 멋고디 안듯
던고.」

8. 영랑호(永郎湖)의 유적

① 보광사(普光寺)

영랑호(永郎湖) 동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에 위치한 절. 1937년에 정화담(鄭華潭) 스님이 세웠다. 절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정화담(鄭華潭) 대법사(大法師) 보광사(普光寺) 창건(創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최근에 새롭게 단장되었다.

절 이름을 보광사(普光寺)라고 한 것은 53불(佛) 중 보광불(普光佛)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53불(佛)은 금강산(金剛山) 유점사(楡岾寺)에 모셔져 있는 불상인데, 인도(印度)에서 문수대사(文殊大師)가 삼억가(三億家)의 금을 모아 순금으로 만들어 부처와 인연이 깊은 금강산(金剛山)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절 주위에는 소나무 숲이 영랑호(永郎湖) 주변에서는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탐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옛부터 보광사(普光寺)의 모종(暮鐘), 저녁 해질무렵에 치는 종소리(이 호면(湖面)에 메아리쳐 가는 정취는 비길 데 없이 좋다고 하였다.

② 설악정(雪嶽亭)

영랑호(永郎湖) 동남쪽에 위치한 작은 산봉우리에 있는 집으로 속초궁도회(東草弓道會) 회관이다. 보광사(普光寺) 동북쪽 약 50m 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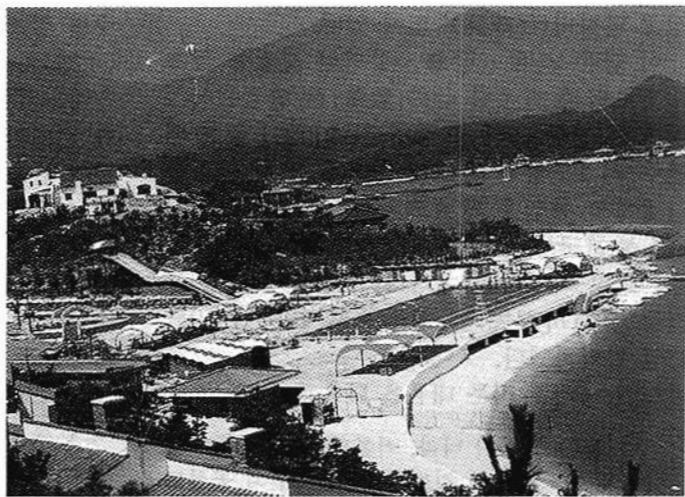
조선(朝鮮) 초기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杆城郡)에는 영랑호(永郎湖) 설명 중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 쯤 호수 가운데 들어 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永郎)의 무리들이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湖東小峰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그런데 영랑호(永郎湖)의 형태를 고려해 보면³³⁾ 영랑(永郎)의 무리들이 놀며 구경하던 곳이란 바로 이 설악정(雪嶽亭) 자리로 추정된다. 화랑도(花郎徒)들이 수련 활동을 했다면 활도 쏘았을 것이요, 바로 그 유서깊은 터에 속초궁도회관(東草弓道會館)이 들어선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무슨 인연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속초궁도회(東草弓道會)는 1964년 6월 25일 발족되어, 1972년 7월 15일에 현 건물인 설악정(雪嶽亭)을 지었으며, 현재 20여명의 궁사(弓士)들이 궁술을 연마하고 있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 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의 무리들이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③ 관음암(觀音巖)

영랑호(永郎湖) 동남쪽에 위치한 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이다. 설악정(雪嶽亭)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산능선을 향해 약 50m 정도 올라가면 바위 여러개가 모여있는 정상부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왼쪽 즉 동쪽으로 약 10보 정도 내려가면 큰 암벽이 나타나는데 이 바위가 관음암(觀音巖)이다. 속초의료원(束草醫療院) 뒷쪽(남서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큰 바위이다.

바위에는 ‘관음(觀音)’이라고 쓴 상당히 큰 글자와 작은 글자 몇자가 새겨져 있다. 1952년 6월에 이 형근(李亨根) 장군과 최홍희(崔弘熙) 장군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다.

당시 이곳은 6.25사변에 의해 수복되어 군정 치하에 있었고, 이 형근(李亨根) 장군은 동해안 일대를 관할하던 제1군단장이었다. 최홍희(崔弘熙) 장군 역시 육군 소장으로 명필로 이름이 높아, 이 글씨 이외에도 낙산사(洛山寺) 법당인 원통보전(圓通寶殿)의 현판, 내설악(內雪嶽) 장수대(將帥臺)의 현판, 양양(襄陽) 현산공원(峴山公園) 필승탑(必勝塔)의 제목 등을 썼다.

전설에 의하면 오랜 옛날 어느 도사가 이곳에서 수도를 할 때, 관음보살(觀音菩薩)이 나타나 득도(得道)를 도왔다고 하여 이 바위를 관음암(觀音巖)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화랑(花郎)들이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명산대천을 찾았다는 것은 거기에 신령이 강림한다고 믿어 신의 힘을 얻고자 했던 까닭도 있다. 김유신(金庾信)의 경우에도 때로는 혼자서 깊은 산속의 동굴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산신령의 계시를 구하기도 했다.³⁴⁾ 그러므로 화랑(花郎)들이 이곳에 온 것은 아름다운 경치 때문만이 아니고, 이곳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의 현묘한 신성성(神聖性)이 서려있는 성역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④ 이 형근(李亨根) 장군(將軍) 덕정비(德政碑)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속초의료원(束草醫療院)에서 보광사(普光寺)로 가는 길 중간 오른쪽 호수가에 있다. 지금은 이 비보다 그 옆에 ‘통천군민(通川郡民) 순국동지(殉國同志) 충흔탑(忠魂塔)’이 크게 서 있다.

본래 이 지역은 38선 이북으로 공산치하에 있다가 6.25사변으로 수복되었는데, 당시 육군 제1군단장 이 형근(李亨根) 장군이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1952년 8월 15일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 박종승(朴鍾勝) 외 13명의 발기로 비를 세워 길이 기념하고 있다.

⑤ 통천군민(通川郡民) 순국동지(殉國同志) 충흔탑(忠魂塔)

영랑호(永郎湖) 동남쪽 ‘이 형근(李亨根)

◇ 특집 ◇

장군 덕정비(德政碑)' 옆에 있다.

이 탑은 자유·평화·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괴도당과 싸우다 산화(散華)한 반공전사자 및 6.25 전몰 용사 중 통천군(通川郡) 출신 배연주 외 113명의 불멸의 충혼을 새겨 반공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세코자, 영북지구(嶺北地區) 통천군민회(通川郡民會) 신세목(辛世默)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전국에 있는 통천군민(通川郡民)의 성원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탑에 새겨진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돋는 동방의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자유·평화·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의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흘린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비석에 깊이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이곳에 모시고, 방공(防共)을 다짐하고 통일을 맹서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⑥ 범바위

영랑호(永郎湖) 남서쪽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신앙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 여기고 있어 무당들의 가무가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많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⑦ 금장대(金將臺)

영랑호(永郎湖) 남쪽 범바위 바로 옆(동쪽)에 있다. 6.25사변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제11사단장 김병휘(金炳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풍우에 퇴락되어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축조한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맺음글

신라시대(新羅時代) 청소년 단체인 화랑도(花郎徒)들은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다. 영랑호(永郎湖)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화랑도(花郎徒)들이 가장 즐겨 찾은

수련 장소였고, 영랑호(永郎湖)는 그중 영랑(永郎)이라는 화랑(花郎) 이름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을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삼국통일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영랑호(永郎湖)는 국가의 동량지재(棟樑之才)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유서 깊은 영랑호(永郎湖)변에 1988. 11. 14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속초고등학교(東草高等學校)가 신축 교사를 지어 이주하였다. 속초(東草)의 발전을 위해서는 속초고등학교(東草高等學校)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야겠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속초고등학교(東草高等學校)가 신라시대(新羅時代) 청소년인 화랑도(花郎徒)들이 수련 활동을 하던 영랑호반(永郎湖畔)으로 이주하여 위치하였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 속초고등학교(東草高等學校)에서 훌륭한 인재가 다수 배출되어 신라시대(新羅時代) 화랑도(花郎徒)들이 그려했듯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인재가 되라는 신의 소명에서 비롯된 필연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렇게 될 때 속초(東草)는 발전되고, 영랑호(永郎湖)는 더욱 더 유명해질 것이다.

또한 영랑호(永郎湖)는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를 비롯하여 청둥오리·가창오리가 날아와서 월동하는 곳 중의 하나다. 영랑호(永郎湖)의 동·식물에 대한 정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끝〉

주(註)

1) 화랑도를 한자(漢字)로 화랑도(花郎徒) 또는 화랑도(花郎道)라고 표기한다. 전자는 지도자인 화랑(花郎)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낭도(郎徒)들의 결합인 단체·집단의 의미이고, 후자는 그들의 수련 활동에 바탕이 된 사상·정신을 의미한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양자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즉 국사(國史) 교과서에는 「화랑도(花郎徒)의 기원은 옛 씨족 공동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비롯된다. 이 조직은……」이라 하여 화랑도(花郎徒)의 의미로, 국민윤리(國民倫理) 교과서에는 「우리 겨레는 일찌기 용맹과 충의(忠義)를 숭상하는 기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풍이 신라(新羅)에 이르러 체계화됨으로써……」라고 하여 화랑도(花郎道)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도 양자를 모두 사용한다.

- 2)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원화(源花)로 표기되어 있다.
- 3)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준정(俊貞)으로 표기되었다.
- 4) 신라(新羅) 고유의 현묘(玄妙)한 도(道)인 풍류(風流)를 이름이니, 곧 화랑도(花郎道)이다.
- 5) 화랑(花郎)을 국선(國仙)이라고도 했는데, 모든 화랑(花郎)을 국선(國仙)이라고 했는지, 또는 화랑(花郎) 중 대표적인 화랑(花郎)만을 국선(國仙)이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 6) 명주(溟州)는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오늘날의 영동(嶺東)지방에 설치되었던 주(州, 오늘날의 道와 비슷)의 명칭이며 소재지는 강릉(江陵)이었다.

속초문화원(東草文化院)에서 발행되는 책에는 이 기념비가 영랑호(永郎湖)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속초문화(東草文化)』 제1호 P. 46, 1984

『화랑(花郎)과 영랑호(永郎湖)』 P. 2, 1985

7) 화랑도(花郎徒) 설치 시기에 대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원화(源花)제도가 진홍왕(眞興王) 37년, 화랑(花郎)제도는 막연히 그후라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둘 다 그냥 진홍왕(眞興王) 때라고 하면서, 원화(源花)제도 폐지와 화랑(花郎)제도 시작 사이가 수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화(源花)제도는 진홍왕(眞興王) 37년, 화랑(花郎)제도는 그후 수년후인 진홍왕(眞興王) 때라고 생각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이 모두 맞게 되나, 진홍왕(眞興王)은 37년 8월에 죽었으므로, 그렇다면 화랑(花郎)제도는 진홍왕(眞興王) 때가 아닌 진지왕(眞智王) 혹은 진평왕(眞平王) 때 시작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화랑(花郎)제도가 진홍왕(眞興王)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수년 후'라는 기록을 무시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진홍왕(眞興王) 37년을 양쪽에 모두 적용하여 원화(源花)제도도 진홍왕(眞興王) 37년, 화랑(花郎)제도도 진홍왕(眞興王) 37년에 시작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화랑(花郎)제도만 진홍왕(眞興王) 37년, 원화(源花)제도는 그 이전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겠다.

8)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4 열전(列傳) 사다함(斯多含)이 진홍왕(眞興王) 23년 (562년) 가야국(加耶國, 또는 加羅) 공격 때 선봉에 서서 크게 활약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9) 삼한시대(三韓時代)에 천신(天神)을 제사하던 성지·나라 안 곳곳에 이에 딸린 신읍(神邑)을 따로 두고, 신관(神官)인 천군(天君)이 있어 영고(鈴鼓, 방울과 북)를 단 큰 나무를 세우고 천군(天君) 봉사(奉祀)의 신사(神事)를 주재하였다. 이곳은 특히 숭엄한 성역으로 다루어져,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와도 그를 잡아갈 수 없었다. 소도(蘇塗)는 '수도' 또는 '수터'로도 읽을 수 있으며, '곰'이 여신임에 대하여, '수'는 남신이라고 한다. 현대 민속상의 '솟대'도 소도(蘇塗)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10) 한자(漢字)로 조의선인(早衣仙人)이라고도 표기하며 고구려(高句麗) 관동명 중의 하나다. '선(仙)'자가 화랑(花郎)의 다른 이름인 국선(國仙), 선랑(仙郎)과 관계 있는 듯 하다.

11) 고구려(高句麗)가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긴 뒤 각 지방에 설치한 사립학교·태학(太學)이 상류층의 자제를 교육하는 관학(官學)인데 반하여, 경당(局堂)은 평민층의 자제에게 경학(經學)·문학·무술 등을 가르치던 사학(私學)이었다. 일찌기 신 채호(申采浩)가 지적했듯이 화랑도(花郎徒)는 일종의 학교였다. '도(徒)'자가 학교의 뜻으로 쓰인 예는 고려시대(高麗時代) 사학 12도(私學十二徒)가 있다.

12)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2 효소왕대(孝昭王代) 죽지랑(竹旨郎)에는 조정의 화주(花主)가, 죽지랑(竹旨郎)의 낭도(郎徒) 득오(得烏)를 정발하여 노역을 시킨 익선(益宣)을 불잡아다가 벌을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화주(花主)는 화랑(花郎) 중 책임자였기 보다는 국가조정에서 화랑(花郎) 관계 사무를 담당한 관리인 것으로 보여진다.

13)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미륵선화(彌勒仙花) 미시랑(未尸郎) 진자사(眞慈師)에는 미륵보살(彌勒菩薩)이 인간으로 화현(化現)한 미시랑(未尸郎)이 국선(國仙)에 추대 되었다는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14)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5 월명사(月明師) 도솔가(兜率歌)에는 월명사(月明師)가 왕명에 의하여 도솔가(兜率歌)를 지을 때 「승(僧)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그저 향가(鄉歌)나 알뿐 범음(梵音, 불교의 찬송가)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臣僧但屬於國仙之徒只解鄉歌不閑聲梵)」라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5) 신라(新羅)의 두 화랑도(花郎徒)가 3년 안에 시경(詩經) · 상서(尚書) · 예기(禮記) · 좌전(左傳) 등을 학습할 것을 맹세한 5행 74자의 문구를 세긴 돌. 길이 34cm, 두께 약 2cm, 폭 약 12.5cm로 1934년 경주(慶州) 북쪽 교외의 언덕에서 발견되어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에 간직되어 있다.

16) 한 달 중 깨끗이 재계(齋戒)하는 6일, 곧 음력으로 매달 8, 14, 15, 23, 29, 30일을 지칭한다. 이날은 사천왕(四天王)이 천하를 순행하며 사람의 선악을 살핀다거나, 혹은 귀신이 들품하여 사람을 잘 해친다고 하므로 매사를 거리고 삼가는 풍습이 있다.

17) 원문에는 '약관(弱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의미로 20세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그냥 어린 나이로 국선(國仙)이 된 18세를 말하는지 잘 알 수 없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15세로 기록되어 있다.

18)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2 효소왕대(孝昭王代) 죽지랑(竹旨郎), 권(卷) 제5 월명사(月明師) 도솔가(兜率歌), 권(卷) 제2 48 경문대왕(景文大王) 참조

19) 미륵보살(彌勒菩薩)은 현재는 도솔천(兜率天)에 올라가 살고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지도하는 보살(菩薩)인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입멸(入滅) 후 56억 7천만년 뒤에 이 세상에 나타나서 승림원(承林園) 안의 용화수(龍華樹) 밑에서 성도(成道)한 다음 모든 중생을 건진다고 한다.

20) 5상(五常)은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 · 신(信) 등 다섯 가지 덕목을, 6예(六藝)는 예(禮, 예절) · 악(樂, 음악) · 사(射, 활쏘기), 어(御, 말몰기) · 서(書, 글씨쓰기) · 수(數, 산수) 등 여섯 가지 과목을, 3사(三師)는 태사(太師) · 태부(太傅) · 태보(太保) 등 삼공(三公)을, 6정(六正)은 성신(聖臣) · 양신(良臣) · 충신(忠臣) · 지신(智臣) · 정신(貞臣) · 직신(直臣) 등 나라에 이로운 여섯 가지 신하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유교(儒教)에서 나온 것인데, 저자가 신라(新羅)의 화랑도(花郎道)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21)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신라(新羅) 천년의 역사를 상대(上代) · 중대(中代) · 하대(下代)의 3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김 부식(金富軾)의 창안이 아니고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있었던 것이다. 향가집으로 《삼대목(三代目)》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원랑(原郎)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卷) 제3 미륵선화(彌勒仙花) 미시랑(未尸郎) 진자사(眞慈師)에 최초의 화랑국선(花郎國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설원랑(薛原郎)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23) 원문에는 '차여세기중(且如世記中)'이라고 되어 있으나, 최남선(崔南善)이 일찌기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해제(解題)〉에서 '차(且)'는 '구(具)'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24) 최근에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郎世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진본(真本)이 아닌 후대의 위작(僞作)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화랑도(花郎徒)는 지도자인 화랑(花郎)과 화랑(花郎)을 따르는 무리인 낭도(郎徒)들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영랑(永郎)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록처럼 선도(仙徒) 즉 낭도(郎徒)가 아니고, 그 지도자인 화랑(花郎), 선랑(仙郎), 국선(國仙)이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지도자인 화랑(花郎)과 화랑(花郎)을 따르는 무리인 낭도(郎徒)를 혼동하여 사용했다.

26) 1970년 12월에 발견된 경남(慶南) 울주군(蔚州郡) 언양면(彦陽面) 천전리(川前里) 반구대(盤龜臺) 바위에는 선사시대부터 시작하여 후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문양,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많은 명문(銘文)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영랑(永郎)이라는 글자도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27) 이곡(李穡)의 《동유기(東遊記)》, 조선(朝鮮) 숙종(肅宗) 때의 학자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東遊記)》에는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朝鮮) 초기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혹자는 글자가 회미해서 판독여하에 따라 '술(述)'자 혹은 '영(永)'자로 읽을 수 있으므로 문현마다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두 《동유기(東遊記)》의 기록을 보면 이 단서(丹書)는 3자씩 2줄로 쓰여졌는데, 앞의 '술랑(述郎)' '남석(南石)' 글자는 뚜렷하고 끝의 '도(徒)'와 '행(行)'자는 좀 회미하

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현지 답사를 할 수 없어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여러사정을 고려해 보면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 맞는 것 같다.

28)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공현진리(公峴津里) 오음산(五音山) 밑에 있었던 못인데, 지금은 눈으로 변하였다. 현재는 다만 산 기슭에 한 글자 약 30cm 정도의 크기로 '선유담(仙遊潭)'이라고 새겨져 있다. 옛날 간성읍지(杆城邑誌)인 《수성지(水城誌)》에 이 글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썼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선유담(仙遊潭)에서도 이름 그대로 국선도(國仙徒), 즉 화랑도(花郎徒)들이 놀았다고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29) 이전에 강릉(江陵)에 있었다는 정자로, 남아 있는 서문(詩文)으로 미루어 보면, 과거에는 경포대(鏡浦臺)와 맞먹는 명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재 비행장 동편의 송림지대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부근에는 한송사(寒松寺)라는 절이 남아 있다.

30) 옛 문헌에도 안상(安祥), 안상(安詳)의 두가지로 되어 있다. 즉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안상(安祥), 이수광(李暉光)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안상(安詳)으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안랑(安郎)이라고도 쓰고 있다.

31) 사선(四仙)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선(四仙)이 누구 누구인지 잘 몰랐거나, 아니면 현지 사람들이 말하는 사선(四仙) 이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영랑(永郎)은 영랑호(永郎湖)에, 술랑(述郎)은 단서(丹書)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오니까 '영랑(永郎) · 술랑(述郎) 등'이라고만 했을 것이다.

32) 남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南孝溫)가 그 글뜻을 물으니 대륜(大倫, 당시 南孝溫을 안내하고 있던 高城郡 訓導 全大倫)은 말하기를, “영랑(永郎)이란 신라(新羅) 사선(四仙)의 하나요, 남석(南石)은 이 돌을 지적한 것이요, 행(行)이란 돌 위로 간다는 것이다. 세상의 문인들이 모두 이렇게 해석한다.” 한다. 나는 생각하건대 이 돌이 고성(高城)에서 보면 북쪽에 있고, 금강(金剛)에서 보면 동북쪽에 있고, 동해 바다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데, 그 ‘남석(南石)’이라 칭한 것은 더욱 해득할 수 없고, 또 여석 글자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문리(文理)가 대단히 소략(疏略)하여 아이들의 솜씨와 같으니, 옛 사람들의 문법이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 좋아하는 아이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곧 영랑(永郎)의 무리 가운데 남석행(南石行)이란 성명을 가진 자가 제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余因問其文義大倫曰永郎者新羅四仙之一而南石者指此石也行者行于石也世之文人皆解如是余惟此石自高城視之則在北自金剛山視之則在東北自東海視之則在西其稱南石尤不可解且六字成文文理大疎類兒童手古本文法應不如是若非出於兒輩之好事則是永郎之徒有姓名南石行者題名乎)

33) 이전에는 속초의료원(束草醫療院) 부근까지 호수였다고 한다. 속초의료원(束草醫療院)의 주소가, 영랑호(永郎湖)가 장사동(章沙洞) 소속이듯이 장사동(章沙洞)으로 되어 있다가, 1989. 1. 1 자로 새로 조정되어 영랑동(永郎洞)으로 옮겨진 것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 산봉우리는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대로 절반쯤이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34)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 제41 열전(列傳) 김유신(金庾信) 전에 보면, 김유신(金庾信)이 화랑(花郎) 시절 홀로 오늘날의 대구(大邱) 팔공산(八公山)인 중악(中嶽)의 석굴에서, 또는 인박산(印薄山)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하늘에 축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 文 化 院 에서는 市 誌 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市
誌 편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
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등에 관한 기록
-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등을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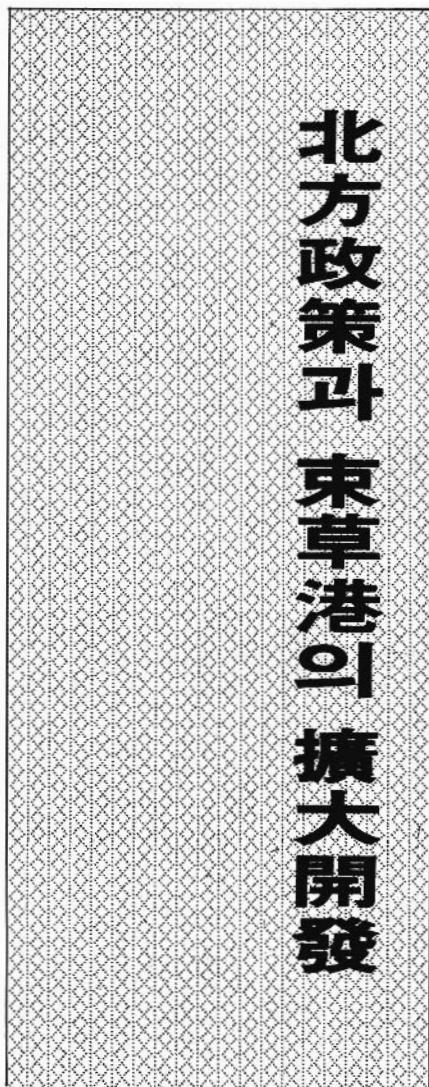
2. 수집기간 : 연 중

※ 사용한 자료는 되돌려 드립니다.

속 초 문 화 원

論壇

北方政策과 束草港의
擴大開發



董文星

현, 속초시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조선일보 기자
를 역임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에서 지역사회
개발학을 공부하는 등,
우리지역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目 次

- I. 序論
- II. 北方政策의 實體
- III. 東草港의 施設現況
- IV. 北方政策과 東草港開發의 當爲性
- V. 北方國家들과의 交流實態
- VI. 政府가 推進중인 西海岸綜合開發計劃의 實體的 內容
- VII. 結論

I. 序論

政府가 北方政策을 추진하면서 적어도 蘇聯에 그 比重을 두고 있다면 東草港은 地政學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南韓에서는 緯度上 가장 북쪽에 위치함으로서 소련과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으로 현재 國交가 正常化된 現實에서 對蘇經濟交流와 우리 企業들이 蘇聯에 진출할 때 속초항이 차지하는 經濟的 위치는 매우 重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現段階에서 北方政策과 連繫하여 東草港開發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며 正式 國交가樹立되지 않고 있는 中國을 겨냥한 西海岸綜合開發에는 엄청난 規模의 計劃과 막대한豫算을 投資하는 事業을 시행하고 있다.

政府는 中國과 蘇聯에 동시에 접근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의 狀況으로는 아직 保守化政策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中國大陸을 겨냥한 諸般 基盤施設投資에는 막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해 놓고, 改革과 開放政策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蘇聯을 겨냥한 輸出의 前進基地役割을 담당할 東草港開發은 전혀企劃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II. 北方政策의 實體

오늘날 國際情勢는 매우 급변하고 있다.
어제의 友邦이 오늘의 友邦이 되지 않고 있으

며, 지난날의 敵國을 영원한 敵國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 國際的 現實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政府가 北方政策을 公式化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6共和國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6共和國以前에 蘇聯이나 中國 또는 東歐社會主義 國家들과 非公式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리 政府의 北方政策이 可視化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86아시안 게임이 觸媒劑가 돼 公式·非公式 채널이 만들어졌고 中國 및 蘇聯과 활발한 막후 접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蘇聯과 中國이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 옴으로서 우리의 北方政策은 事實上 그 基調를 이루어 갔다고 할 것이다.

戰後 40년이상 東·西間의 理念對決로 國家間의 交流에 門戶를 굳게 닫았던 蘇聯과 中國이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이라는 非政治的 分野인 體育祭典을 통해 相互不信의 壁을 허물고 이어 각종 文化·藝術交流가 이루어 지면서 閉鎖一邊倒였던 中國과 蘇聯사는 점차 이해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余波는 우리 政府로 하여금 北方政策을 公式的으로 舉論하게 하였다. 蘇聯과 東歐의 大部分의 國家들과는 이미 公式國交가 이루어 졌고 中國과는 貿易事務所의 開設에 合意하여 경제교류의 틀을 갖추게된 段階에 이르고 있다.

6共和國에 들어 오면서 北方policy이 具體化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로 88년 2월 25일 盧泰愚大統領의 제13대 大統領就任辭(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에서이다. 盧大統領은 「…韓半島問題는 基本적으로 南北當事者들이 民主的 方式을 통해 풀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平和와 統一의 傳令使가 그 어느곳으로부터든 서울을 訪問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宣言함으로서 社會主義 國家들이 교류를 희망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意思를 천명한 것이고, 둘째로 88년 7월 7일에 있은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特別宣言”(7·7宣言)에서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킬 與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北韓이 美國·日本 등

우리의 友邦파의 관계를 改善하는데 協助할用意가 있으며 또한 우리도 蘇聯·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과 관계개선을 追求한다」고 밝힘으로서 政府의 北方policy을 公式화하였으며, 셋째로 88년 10월 14일 유엔總會演說(韓半島에 和解와 統一을 여는 길)을 들 수 있다.

盧泰愚大統領은 유엔總會에 참석하여 「…나는 지난 몇個月에 걸쳐 中國과 蘇聯 등 社會主義 國家들이 우리와의 多方面에 걸친 交流와 協力에 前進의 姿勢를 보이고 있는 것을鼓舞的 現象으로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中國이 半世紀에 걸친 斷絕의 壁을 넘어 交流와 協力關係를 넓혀가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이 韓·蘇關係에 대해 積極的 意思를 表明한 것을 注目합니다…」라고 말함으로서 韓·中·韓·蘇關係가 상당히 進陟되고 있음을 확인한데서 찾을 수가 있다.

盧泰愚大統領은 이상 3가지 演說 중에서 對北政策은 물론 對中·對蘇·對東歐政策에도 매우 積極性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蘇聯이나 中國에 대한 우리의 政策에는 北韓이라는 나라가 끼여 있어 中·蘇兩國의 運身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中國과 蘇聯은 北韓과의 同盟國이다. 그점으로 北韓은 中·蘇 두나라가 우리와의 修交를 그대로 放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北韓은 中國 및 蘇聯이 우리와의 交流를 적극 防害하고 塞기박기에全力을 다하고 있다. 89년 11월 5일 北韓 金日成의 北京訪問과 90년 9월 11일 潘陽訪問은 韓·蘇修交에 응하지 말아 달라는 切迫한 호소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蘇關係는 90년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盧泰愚大統領과 고르바초프大統領의 頂上會談이 이루어 졌고, 兩國頂上은 修交原則에 合意하였으며 드디어 90년 10월 1일에는 유엔本部에서 韓·蘇外務部長官이 韓·蘇修交合意議政書에 署名함으로서 正式修交가 成立됐다. 韓·中關係로 90아시안게임이 끝난 10월 22일 北京에서 韓國側에서 大韓貿易振興公

* 논단 *

社社長과 中國側에서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中國國際商會) 會長간의 貿易代表部 설치에 합意함으로서 兩國關係는 準外交的 次元까지 끌어 올려졌다.

北韓의 집요한 妨害工作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北方政策은相當한 進展을 이룩했다고 할 것이다. 對北韓政策에서는 그간 8次에 걸친 南北實務者會談에서 南北最高當局者會談의 개최를 합意하여 90년 9월(서울)과 10월(평양)에서 1·2次에 걸친 南北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最高當局者會談을 개최하였으나 뚜렷한 합意点을 찾아 내지 못했다.

이러한 諸般狀況으로 볼때 對蘇·對中(특히中國東北地方) 經濟交流를 확대함에 있어 그 前進基地, 역할을 할 수 있는 東海最北端에 위치한 東草港에 대한 擴張開發은 時急히 서둘러야 할 政策的 課題가 아닐수 없다.

III. 東草港의 施設現況

東草港은 東經 128도 28분 29초, 北韓 38도 12분 17초에 위치한 東海岸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 항구로서 國際開港場으로 지정된 곳이다.

오늘의 東草港이 築造되기 이전의 開港場은 속초항의 4km의 남쪽에 위치한 현재의 大浦港이었다. 우리나라가 지난날 日帝殖民地였을 당시 동해안에서 정어리잡이가 好況이던 1930년대에 日帝는 현재의 東草南港인 青草湖와 바다를 연결하여 東草港을 建設함으로서 東海中部沿岸地域의 중요한 항구로서 機能을 다하게 했다.

日帝는 속초항 周邊에 魚肝浦 등 水產物加工工場을 세워 中·日戰爭 및 太平洋戰爭 등에 物資를 調達해 오다가 1945년 8월 15일 敗戰을 맞게 됐다. 8·15後 속초항은 38도선 以北에 위치하여 北韓共產治下에 들어 갔으며 이때의 속초는 施設이나 規模의 확대없이 6·25戰爭을 치루게 됐고 國軍과 유엔군의 反擊으로 현재의 휴전선에서 停戰이 成立됨으로서 東草港은 우리나라의 領土로 收復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속초항은 지난 55년 12월 2일 海運港灣廳(당시 海務廳)의 管割港으로 들어간 후 90년 10월 現在까지 防波堤築造, 物揚場設置등 30여년간 모두 2백여억원의 政府豫算이 投入됐으나 東海沿海와 北太平洋을 겨냥한 漁業 및 產業基地로서의 港湾規模에는 크게 未洽한 실정이다.

현재 東草港의 港勢, 港湾施設規模를 살펴보면 新港(東明港) 埠頭(護岸施設) 2백 62m, 物揚場 1천4백62m로 전체규모는 1천7백24m이고, 船舶接岸能力은 5천屯級 同時 2隻, 1천屯級 同時に 8隻이며 總荷役能力은 모두 75만4천屯으로 處理物量面에서도 대단히 未備한施設이다.

그리고 80년이후 건설한 新港은 平均水心이 7.5m이지만(青草湖)은 4.7m밖에 안되는 실정이며 港內面積은 모두 1백36만2천평방m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野積場마저도 總4만3천7백20평방m밖에 안되는 지극히 狹小한 施設이어서 國際開港場인 港口로서는 國內에서도 가장 貧弱한 施設을 갖춘 港口라 할 것이다.

그런데다 交通部가 추진하고 있는 東草 新港建設工事는 매년 30여억원의 계속공사비가投資돼야 하는데도 89년도의 경우 3억원(이것마저도 追更豫算으로)의 예산밖에 策定되지 않았으며 90년도에도 2억여원의 예산으로 新港建設計劃은 엄청난 差秩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IV. 北方政策과 東草港開發의 當爲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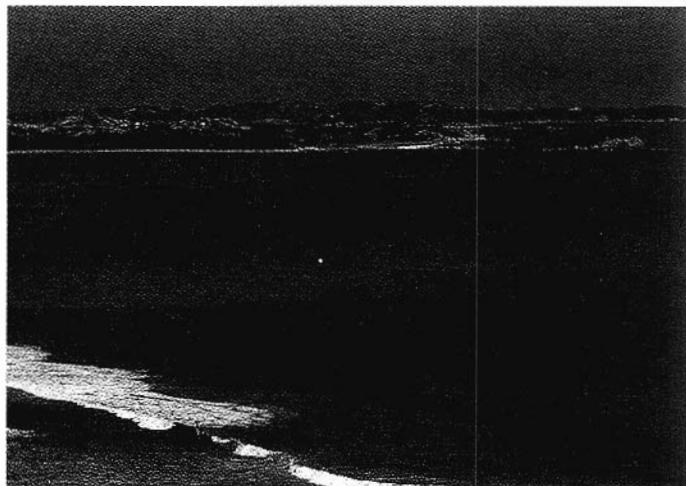
政府가 北方政策을 추진하여 蘇聯과의 修交를 이룩하고 中國과는 貿易代表部設置를 합의한 이상, 對蘇輸送등의 機能을 効率的으로 수행하려면 東草港을 보다 擴張하는 基盤施設擴大工事에 재빨리 投資해야 한다.

政府는 對蘇貿易이 增進될 경우 既存의 釜山港과 東海港만으로 그 機能을 充分히 떠맡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認識이라는 것이다.

釜山港 및 東海港에서 蘇聯의 블라디보스톡港이나 나호트카港, 보스토니치港口와의 거리



속초항은 지난 55년 12월 2일
해운항만청의 관할청으로 들어간
후 90년 10월 현재까지 방파제
축조, 물양장 설치등 30년간 모두
2백여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
되었으나 동해 연근해와
북태평양을 겨냥한 어업 및
산업기지로서의 항만 규모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는 東草港에서 이들 3港口와의 거리보다 상당히 먼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航海士들의 推定에 의하면 현재 東草港에서 釜山港까지 船舶이 運航하는 시간이면 東草港에서 불라디보스톡港에 到達하는 시간과 거의 맞먹는 거리여서, 만약 釜山港에서 불라디보스톡港이나 나호트카港까지 物資를 운반하게 된다면 東草港에서 운반하는 것보다 거의 2倍의 輸送費가 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점으로 蘇聯과의 經濟的 交流가 本格的으로 實現되게 된 現段階에서 蘇聯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東草港이 확장되고 개발되어 運送費를 節減하고 經濟的 利得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理置이다.

또 中國東北地方과 經濟的 交流가 이루어지는 것을 前提로 할 때에도 黃海와 마주보는 中國大陸은 西海岸地域을 통해 손쉽게 物資의 運搬이 이루어 질 것이지만 東北地方의 三省中吉林省과 黑龍江省의 경우에는 우리 商品이 그곳에 輸出되거나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物資를 輸入하게 될 때에는 內陸의 非鋪裝의 긴 輪送路를 거치는 中國의 東部海岸의 港口들을 이용하기 보다는 中國東北地方에서 가장 가까운 蘇聯의 불라디보스톡이나 포시아트港을 이용하면 東草港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中國東北地方과의 交流에도 東草港이 가장

적합 하다는 常識인 것이다.

그리고 北韓이 現在에는 우리와의 교류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閉鎖社會를 開放하고 對南交流에 나서게 된다면 東草港은 北韓의 東海岸에 있는 長箭·元山·興南·新浦·清津·羅津港 등과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經濟的 利點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念頭에 두고 政策當局은 東草港開發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國內輸送의 實際的面에서 考察해 볼때에도 東草港을 利用하면 많은 利點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현재 서울을 起點으로 釜山港까지 貨物輸送시간은 평균 7~8시간이 所要된다. 그러나 서울에서 東草港까지는 4~5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釜山港과 東草港에 輪送되는 貨物輸送시간의 差異는 평균 3시간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에서 東海港까지 輪送時間도 서울에서 東草港까지 수송시간에 比較하면 1~1시간30분이 더 걸리는 時間差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시간차를 前提로 한다면 서울 및 京畿地方과 中部內陸의 工場들에서 生產되는商品들을 蘇聯市場에 輪送한다면 東草港을 통한 수송이 商品原價를 상당히 낮추는 要因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8서울올림픽 以後 우리와的商品들은 헝가리·폴란드 등



일부 東歐圈 社會主義國家들에도 이미 수출되었으며, 그같은 수출은 現在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商品의 大部分이 蘇聯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鐵道를 통해 東歐에 수송 됐는데 國內에서는 蘇聯과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釜山港에서 선적돼 블라디보스톡港으로 運送됐다는 사실이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이들 상품이 東草港에서 輸出돼 蘇聯을 통해 東歐로 갔다면 거리가 가까운 만큼의 輸送費는 節減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외에 東草港開發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닐 지라도 현재 觀光圈域으로 지정돼 일체의 產業施設이 불허되고 있는것이 東草地域의 실정인데 앞으로 北方交流에 원만한 대비를 위해서는 東草港 開發과 함께 인근 지역에 大單位倉庫團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蘇聯近海에서 어획된 水產物과 輸入된 水產物의 보관을 위한 冷凍施設團地등의 建設은 時急한 問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시 제기돼야할 문제는 서울·경기 등 首都圈과 강원도 嶺西地方과 中部圈域에서 東草港으로 연결되는 嶺東高速道路와 서울과 속초를 잇는 41번 道路 및 東海岸國도의 확장이 東草港開發事業과 同時에 着工돼야 한다는 것이다.

V. 北方國家들과의 交流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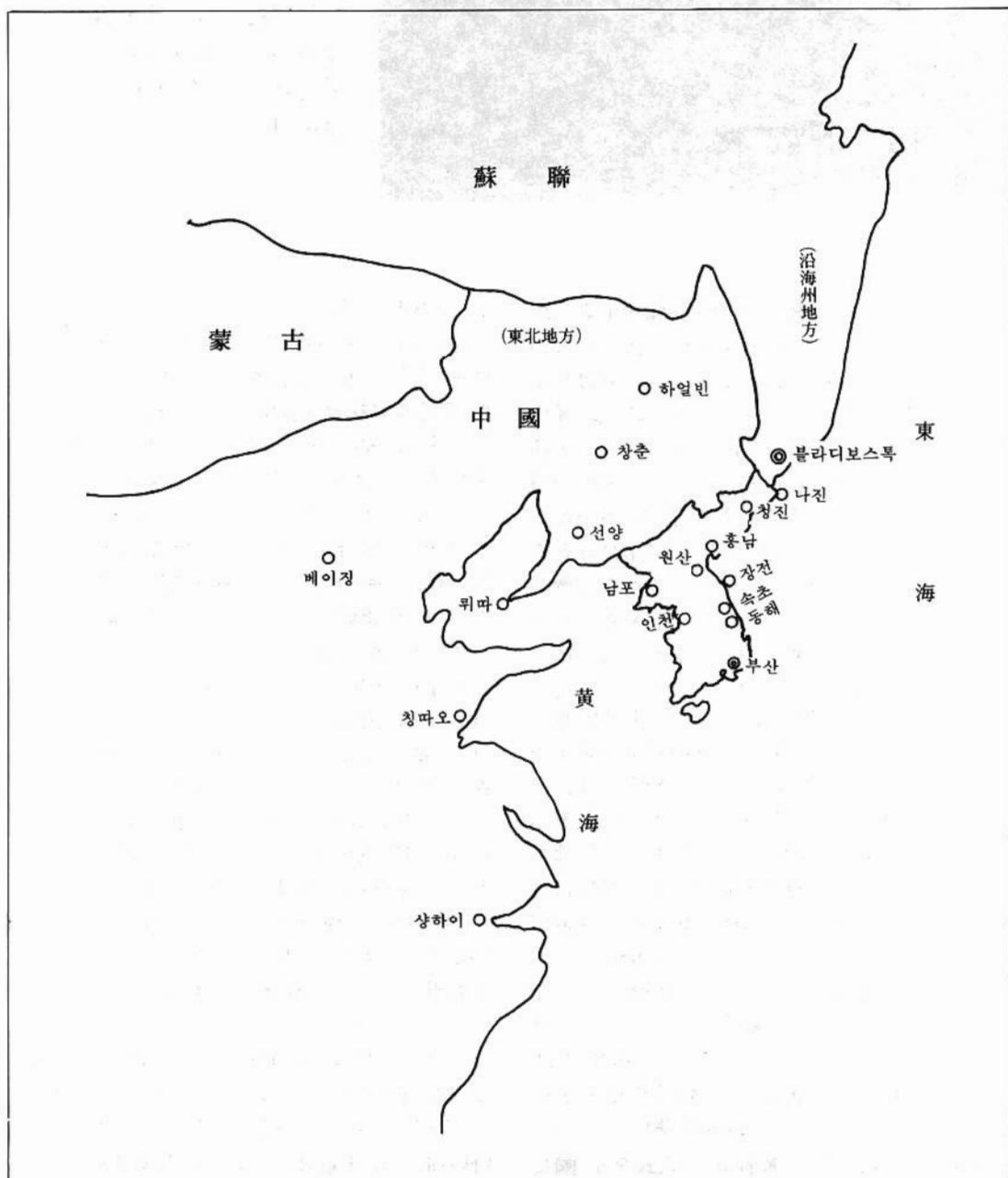
정부는 89년 2월 헝가리, 11월에는 폴란드, 90년에 들어서는 유고 및 체코政府와 大使級外交關係를 수립함으로서 戰後 95년간 東歐國家들과 이룩할 수 없었던 國交를 정상화 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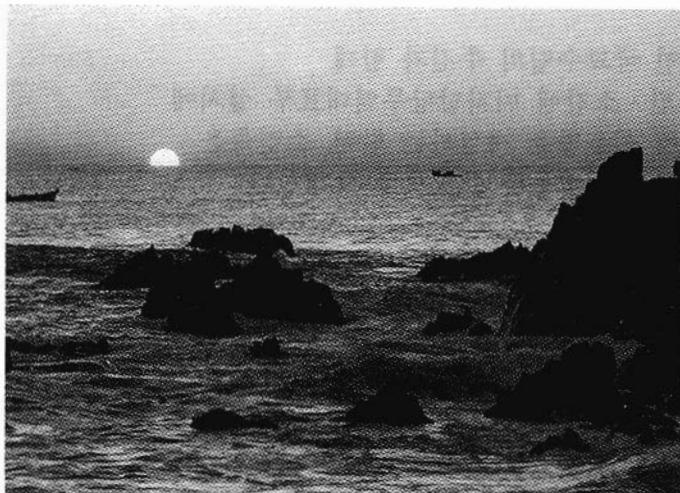
로서 相互開校의 門戶를 열게 된 것이다.

中·蘇와의 관계는 89년에도 상당한 經濟交流가 이루어 졌으며 政府 및 民間企業들의 활동으로 90년에는 더욱 활목할 만한 交流의 伸張勢로 나타났다.

같은 趨勢에서 對蘇交流의 政治 및 經濟的近況을 살펴보면, △88년 1월 蘇聯이 서울올림픽參加를 公式發表한데 이어 △88년 7월 盧泰愚大統領은 7·7宣言으로 對北方政策을 구체화 했으며 △88년 8월에는 朴哲彥대통령 정책보좌관을 극비리에 訪蘇, 修交交涉을 개시케 했다. 또 △88년 8월~10월까지 88올림픽관련, 蘇聯領事團이 滯韓 했으며, △88년 9월에는 그라노프 蘇聯體育部長官이 訪韓하는 한편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크라스 노야르스크에서 중대연설을 했다. △88년 10월 盧泰愚大統領이 유엔에서 東北亞의 平和를 강조하는 演說을 했으며 △89년 3월 崔活中외무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亞太經濟社會委員會(ESCAP)總會紀念리셉션에서 리가초프外務次長과 접촉을 가졌고 △89년 9월에는 蘇聯聯邦商工商會議所 서울사무소 開設과 大韓貿易振興公私(KOTRA) 모스크바 사무소가 開所됐으며 △89년 6월 金泳三民主黨總裁의 訪蘇, 金顯焜 國會外務統一委員長一行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89년 7월에는 모스크바에서 韓·蘇領事關係 제1차 會談이 이루어졌고 △8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韓·蘇 영사관계 제2차 會談에서 韓·蘇는 領事處交換設置에 合意, 正式으로 發効하게 되었다. 90년 2월 駐모스크바 領事處를 開設했으며 崔造中외무장관은 韓·蘇外務長官會談을 제의했

政治的인 국교수립의 추진과 함께
經濟的 측면에서는 한·소간에 비자담당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 양국은행간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소련측은
한국기업인들의 소련방문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그래서 소련당국도 자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불러 들이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다. △90년 3월 孔魯明 初代 駐蘇領事處長이 모스크바에 부임하고 韓·蘇定期航空노선 개설에 합의했다. △90년 3월 金泳三民自黨最高委員, 朴哲彥政務長官 등高位黨·政代表團이 蘇聯을 방문하고 金最高委員은 고르바초프大統領과面談, 修交原則에 합의했다. △90년 4월 파누코프蘇聯民間航空部 제1次官과 아간베간蘇聯大統領經濟顧問이 訪韓했고, 柳宗夏外務次官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經濟特別委員會에 참석중 蘇聯代表 오브먼스키와 접촉 國交正常化를 논의했다. △90년 6월 盧泰愚大統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大統領과 史上 첫頂上會議를 가졌으며, △90년 6월 韓國貿易協會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蘇聯商工會議所와 業務協定을締結하였으며 △90년 8월 金鍾仁大統領首席祕書官을 團長으로한 政府代表團이 소련을 公式訪問, 修交 및 經濟協力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金宗輝大統領外交安保補佐官은 크렘린宮에서 도브리닌 蘇聯大統領外交政策補佐官과 單獨要談을 하였다. △90년 8월 예레멘코 初代 駐韓蘇聯領事處長이 赴任했으며, △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蘇聯外務長官이 韓半島問題와 關聯, 中國, 北韓, 日本 등 3國을 訪問했으며 △90년 9월 30일 유엔本部에서 崔造中外務長官과 세바르드나제 蘇聯外務長官은 韓·蘇兩國 修交議政書에 署名하고 正式으로 國交

를 出帆시켰다.

政治的인 國交樹立의 推進과 함께 經濟的側面에서는 89년 1월 鄭周永현대그룹名譽會長이 全經聯名譽會長資格으로 蘇聯訪問을 마치고 돌아온 후 89년 1월 韓·蘇간에는 비자擔當貿易代表부 설치에 合意하고 兩國銀行간에는 직접 信用狀을 개설하는 한편 鄭周永회장과 말케비치 蘇聯邦 中央商工會議所會長간에는 韓·蘇民間經濟協力委員會 設置意何書에 署名했으며, 蘇聯側은 한국기업인들의 蘇聯訪問을公式으로 要請했다.

이무렵 大字로 모스크바에 客室 4百室(7千5百만달러 規模) 호텔 建立을 소련측에 約束했고, 三星은 소련의 테크노포럼社와 컬러브라운管合作工場을 세우기로 했으며, (株)和承은 모스크바 近郊에 年產 1百20萬 켤레의 신발工場을, (株)進道는 모스크바에 毛皮合作工場, 現代는 소련船舶 10隻(2億달러 상당)을 受注키로 했으며, 高麗遠洋은 五母船 1隻과 試堆船 10隻으로 카마카半島의 兩海에서 明太 잡이에 入喚키로 하는 등 經濟側面에서 커다란 合意를 이루어 나갔다.

지난 88년부터 始作된 韓國의 對蘇貿易量은 88년에 3億달러였고 89년에는 6億달러, 90년에는 10월말 現在 10億달러를 넘어선 實績을 나타내고 있어 蘇聯은 새로운 市場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中國의 경우 89년까지만 해도 韓國과의 正式國交樹立은 고려치 않았으나 經濟關係의改善을 내세우면서 89년 1월 4個의 貿易商社가 서울에 支社를 설치를 하겠다고 韓國銀行에 요청함으로서 經濟交流의 뜻은 그대로 持續했다.

中國이 우리나라에 支社를 설치코자 신청한 貿易會社는 홍콩의 現地法人인 蔚業實業·中遼公司와 吉林省이 볼리비아의 現地法人인 길주(JIZU)公司, 그리고 中國政府直屬 傘下機關이 직접투자해 설립한 日本의 現地法人인 中大(株) 등이 그것이다.

89년 中國은 限·中關係에 中央政府가 직접關與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의 經濟交流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던게 사실이다. 經濟企劃院의 統計에 따르면 86년부터 始作된 對中交流는 增加一路에 있으며 지난해 天安門事態를 겪으면서도 交易量은 크게 줄지않아 89년말 對中輸出量은 26억달러에 이르렀다. 이같은 數值은 北韓의 對中輸出量에 比해 4倍나 된다는 사실을 注目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그럼에도 中國政府는 89년에 이어 90년 10월 20일 北京에서 韓·中貿易代表部설치에 합의하면서도 中國側은 兩國間 國交正常化에 대한肯定的인 態度를 表明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이에 比해 蘇聯은 韓·蘇關係에서 보다 적극적인 政治的立場을 堅持함으로서 次年부터 現代는 沿海州地方에서 年間 1億달러의 森林開發에 爪수하여 1萬평방m(3億坪)의 面積에 森林을 30年間 벌채하기로 합의했으며 韓·蘇兩國은 이 개발사업에 각각 50% 持分으로 참여 함으로서 合作開發의 시범을 보이고 있다.

또 現代도 블라디보스톡 부근의 나홋카와 포시애트港에 있는 船舶修理造船所에 技術用役을 제공키로 했으며 나홋카市에는 2百室 규모의 호텔과 블라디보스톡港에 船員用 아파트를 건설해 달라는 소련측의 요청을 받아 들였으며, 大成炭座에서는 沿海州의 플래스둔地域에서 石炭을 개발키로 합의하였으며 최근에도

블라디보스톡에서 北韓을 經由하여 韓國까지 가스送油管의 設置가 可能할 것이라는 확실한 展望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韓·蘇兩國은 이제 완전히 國交가樹立돼 있다. 그러나 兩國의 政治 및 經濟的體制는 매우 判異한 실정이다. 그러기 때문에 資本主義經濟體制인 韓國과 韓國企業의 입장에서는 소련에의 투자나 合作投資를 선뜻 할수가 없는 處地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危險負擔을 감수하면서도 蘇聯과의 經濟協力を 加速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蘇聯이라는 廣大한 새로운 市場과 흔히 시베리아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소련의 遠東地方에는 石油·石炭·天然가스·다이아몬드·金·鐵·非鐵金屬등 풍부한 地下資源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소련領土의 76%를 차지하는 러시아共和國인 遠東地方에는 소련의 天然가스 매장량의 4분3, 世界石炭의 埋藏量의 50%가 이곳에 있으며 現在 西部투렌地區와 사할린油田에서는 해마다 3億屯의 原油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루크초크, 야쿠초크, 크拉斯노야르스크北部와 사할린大陸棚에서 대규모의 油田이 새로 발견 되었으며 遠東地方의 天然가스 生산량은 年產 145百億입방에 달한다고 한다.

既存가스와 油田외에 우렌고비等 北極海부근에서는 埋藏量 測定不可의 天然가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소련의 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獨逸·프랑스·伊太利等 西유럽國家들에 供給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 소련의 石炭매장량은 6兆8千屯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그 절반이 遠東地方에 문혀 있으며 年間 1千4百萬屯의 石炭을 캐내는 칸스크 아신스크 炭礦을 露天炭礦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동지방에는 數百種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5億ha에 달하는 山林地帶는 西유럽地域보다 광대하며 地球人의 4분1에 酸素를 공급해 주고 있는 源泉이고 '山과 草原에는 5百70余種의 藥草와 비타민풀(草)들이 自生하고 있으며 수많은 稀貴動物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 이곳의 江과 바다에는 연어를 비롯하여 明太, 바다개, 게 등이 많이 잡히며 아므로江

에는 1百種이 넘는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蘇聯水產物의 40%가 이곳에서 잡히고 있다. 가히遠東地方은 天惠의 倉庫인 것이다.

그러나 蘇聯當局은 이곳 資源을 개발하는데 必須的 要素인 資本·技術·勞動力を 얻지 못하고 있다. 원동지방에 居住하는 人口는 245百萬명으로서 이같은 人的 資源으로서는 이 地域開發에 人力이 턱없이 不足하고 또 良質의 人力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蘇聯當局도 自國의 經濟開發事業에 外國의 資本과 技術 그리고 良質의 労動력을 불러 들이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韓國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VI. 政府가 推進中인 西海岸 開發計劃의 資本的 内容

89년 10월 10일 政府는 西海岸開發推進委員會(위원장·姜英勳國務總理)를 열고 2001년까지 모두 22兆3千1百33億원을 投入, 西海岸地方에 產業基地工團·港灣·道路·鐵道·空港 등 총 1百26個 사업을 추진키로 決定했다.

이같은 政府의 개발계획은 長期的 眼目에서 西太平洋地域과 中國의開放을 전제로 하여 交易의 前進基地로 西海岸地域을 効率的으로 開發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政府가 밝힌 서해안종합개발의 内容을 보면 產業基地로서 牙山產業基地, 群山產業基地, 群山·長項產業基地, 大佛產業基地, 光州尖端科學產業研究團地 등 5個事業인데 이들 사업은 '89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完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地方工團建設內容을 보면 平澤工團, 大田3工團, 大田4工團, 天安2工團, 仁川工團, 唐津石門工團, 青陽尖端產業工團, 全州尖端產業工團, 大田尖端產業工團, 全州3工團, 裡里2工團, 井邑工團, 光州河南3工團, 栗村工團 등 14個 工團은 '89년에 着工하여 '93년도에 完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輸送體系開發計劃을 보면 西海岸高速道路를 비롯하여 제2京仁高速道路, 京仁高速道路, 始興~安山高速道路, 天安~論山高速道路, 長城~光陽高速道路, 洪城~禮山間國道鋪裝, 金堤~井州間國道鋪裝, 水原~天安 복선電鐵, 九老~仁川 복선電鐵, 群山~長項產業鐵道, 首都圈空港高速電鐵, 松汀里~木浦 복선延長, 大田~木

浦電鐵, 首都圈空港新設, 光州國際空港, 群山飛行場, 大川港開發, 栗村港建設등 19個사업은 '89년에 着工하여 2001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水資源干拓地開發事業으로는 錦江綜合開發, 蟬津江綜合開發, 榮山江綜合開發, 龍潭댐綜合開發, 錦山제2段階綜合開發등 5個사업인데 이는 '89년에 着工 2004년에 끝나는 것으로 計劃되어 있다.

또 電信電源開發事業은 錦山地區電源開發, 仁川一島發電所, 沃溝發電所, 南海花源發電所 등 4個사업인데 이는 모두 '89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完工키로 돼 있다.

이 地域內의 觀光文化事業으로는 月出山公園을 비롯하여 公州觀光團地, 大川安眠島觀光團地, 光州觀光團地, 多島海觀光團地, 榮山湖觀光團地, 扶餘博物館, 南原國樂院, 光州제2農水產物都賣市場 등 9個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모두 '89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政府는 總事業費 중 13兆8千8百73億원(62.2%)을 政府豫算에서, 7千6百72億원(3.5%)은 地方費에서 나머지 5兆7千3百62億원(25.7%)는 政府投資機關에서投資하는 것으로 計劃을確定했다.

西海岸開發事業의 核으로 앞으로 對中國交易을 前進基地로 활용하기 위해 89년 11월3일 착공할 大佛產業基地開發工事의 경우 총공사비 5千5百億원을 投入, 4百15萬坪에 工團을造成해 機械·自動車·製鋼·化學·石油·非金屬礦物等의 產業을誘置, '96년부터 可動함으로서 25만명의 雇傭效果도 함께 創出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西海岸綜合開發計劃에 대해 政府는 地域間의 均衡發展과 國際貿易을 同時に 겨냥하면서 2千年代를 舊한 文化觀光의 要衝地로 이 地域을 개발한다는 趣旨를 내세우고 있지만 總工事計劃의 61%가 13代大統領選舉公約과 政治的配慮라는 所象을 짚게하고 있다. 特히 京仁地域을 제외하고는 忠南地域과 全南北地域은 이제까지 政府의 開發의 惠澤을 받지 못했던 地域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當局도 이 地域의 開發을 中國을 何한 前進基地라는 말보다는 西太平洋時代를 舊한 橋頭堡라는 또 다른 말로 西海岸綜合開發이 全的으로 中國만을 겨냥한 開發事業이 아니라는 말로 稀釋하려는 意圖를 內包하고 있는듯



속초항이 정부의 북방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현재의
시설에서 북방파제를 확대하고,
부두기지 연장과 창고시설등을
신축하여야 한다.



하다.

政府의 地域間의 偏重된 豫算投入은 西海岸地域開發事業뿐만은 아니다.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82년부터 91년까지 施行중인 제2차 國土綜合開發計劃의 7개년간(82년~88년까지) 執行內容을 보면 首都圈(서울, 仁川, 京畿)에 34兆7百40億원(39%), 東南圈(釜山·大邱·慶南北)에 23兆6千6百億원(27.1%)이 配定돼 이들 두 地域에 全體投資額의 61.1%가 集中된 投資된 江原地域은 濟州道와 합쳐 3兆1千8百70億원(3.7%)이 겨우 配定됨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國土開發研究院의 報告書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豫算政策下에서는 北方政策의 前進基地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東草港의 完全開發은 妥원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政府도 지난 '79년 以後 鄧小平이 中國의 最高實權者로 등장하면서 그들의開放政策과 우리政府의 對中國接近政策이 맞아 떨어져 그간 直·間接으로 交流의 領域를 擴大해 나갔었다. 그러나 中國은 89년 6·4天安門의 北京之春에 군대와 탱크를 投入하여 群衆示威를 流自鎮壓한 이후 이제까지의開放政策을 撤面, 保守強硬路線으로 돌아서면서 共產黨의 基本統治理念인 四大基本原則의 固守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今年(90년도) 1년간의 有和政策은 北京아시안게임을 원만하게 치루기 위한 政治的手段이었을 뿐이다.

中國政府는 △社會主義의 堅持 △無產階級獨裁의 堅持 △마르크스 레닌 毛澤東 思想의 堅志 △共產黨指導의 堅持 등 본래의 基本路線을 再確認하고 있다. 東歐圈社會主義 諸國家(알바니아 除外)들이 自由化·民主化로 改革, 開放을 하고 있는 것과도 아주 다른 正反對의 閉鎖的 政治路線을 取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中國의 現實이 아닌가 생각된다.

VII. 結論

이제 政府가 推進했던 北方政策은 지난 9월 30일 蘇聯과 修交議政書에 韓·蘇外務長官이 署名함으로 제1段階北方政策은 이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蘇聯과 함께 國交樹立을 겨냥했던 中國과는 貿易代表部 설치만을 合意했을 뿐 正常的인 外交關係의樹立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韓·中兩國은 貿易代表部에 비자發給·僑民保護等 領事業務, 外交行囊의 使用, 本國과의 暗號交信機能을 賦與하고 駐在國에 免責特權을 주는 등 諒解覺書를 非公開로 交換함으로서 韓·中貿易代表部는 事實上大使館機能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나 역시 貿易代表部는 大使館 아닌 貿易代表部일 뿐이다.

특히 貿易代表部로서의 名稱使用에는 韓國側의 意思보다는 中國側이 意思가 強力하게 뒷받침 됐다는 점에서 蘇聯과 正式國交樹立로 이전에

交換設置에 合意했던 領事處의 機能에도 미달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中國政府는 오늘날 社會主義 國家들의 時代의 潮流인 改革과開放的 狀況을 외면하고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獨裁體制인 北韓과 密着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現在의 趨勢로 본다면 中國과 北韓은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開放政策과는 정반대의 閉鎖政策을 함께 追究할 것으로 보이며 中國이 89년 天安門事態 이전처럼 開放政策을 펴지 않는 한 韓·中間의 政治的 關係는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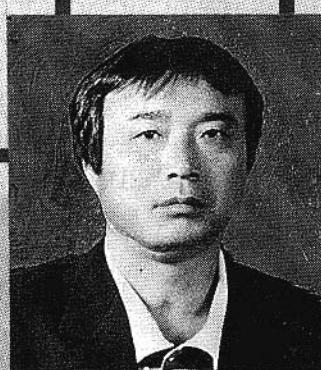
이같은 어려운 時間에 政府는 中國을 겨냥한 西海岸綜合開發事業에 22兆3千億원이라는 엄청난豫算을 策定하여 西海岸開發에着手했다. 우리政府의 財政形便上 이같은 不確實한 相對國을 향해 엄청난 投資를 一定한 地域에 集中的으로 施行하는 것은 國土의 均衡的 綜合開發이라는 側面에서도 衡平을 잊은 開發政策이라는 批判을 免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企業들은 韓·蘇國交의 正常화를 기다리면서 蘇聯內의 實相把握과 進出에 대한 착실한 準備를 해왔다. 이제 韓·蘇兩國간에

修交議政書가 署名됨으로서 우리나라 企業들은 소련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됐으며 각종 建設裝備와 物資들이 소련에 보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物資 및 原資材들을 蘇聯에서搬入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같은 効率的機能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位置에 자리하고 있는 地域이 東草港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

東草港이 政府의 北方政策에 焦點이 맞추어져 貿易港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하려면 現在의 施設에서 北防波堤를 擴大 조도까지 延長하여야 하며 지금의 產業港인 東明부두는 物揚場을 넓히며 倉庫施設등을 新築해야 한다. 政府는 이 計劃을 再檢討해야 하며 이에 投入되는 모든豫算은 全額 政府財政으로 充當해야 하며, 現在 施行하고 있는 東草港開發事業에 年次의으로 보다相當한豫算을 投入한다면 對蘇貿易港으로서 東草港은 그 機能을充分히 발휘할 것이라는 專門家들의 見解이다. 政府가 推進중인 西海岸綜合開發豫算의 50분의 1만이라도 낙후지역인 東草港開發에 投資한다면 東草地域뿐만 아니라 江原道의 位相이 달라질 것이다.

내
고
장
스
物



劉禎忠 선장

어느 船長의 거룩한 죽음

〈1990년 3월 3일자 강원일보 '신호등' 난 전재〉



조난 船長의 殺身成人

○ …「선원 21명 구조… 선장은 하나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음…오버.」

2일 새벽 제주도 모슬포어업무선국에 입전된 짤막한 통신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취한 「인간 드라마」 그 자체였다.

속초수협소속 하나호는 지난달 16일 속초항을 출항, 봄오징어 어군을 따라 제주남방 동지 나해 3백70마일 해상에서 3일째 조업중이었다.

1일 오후 1시51분께 망망대해에서 만선의

부푼꿈에 선원들이 한창 홍이 나 있을 무렵 부근해상에서 느닷없는 돌풍과 함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다.

두세차례 파도에 맞은 하나호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염습해 오는 공포감에 갈팡질팡 할뿐 속수무책이었다.

이때 선장 劉禎忠씨(45·속초시청호동 43 2~34)는 냉정을 잊지 않고 선원들을 지휘, 21명 모두에게 차례로 구명동의를 입혀 구명보트에 옮겨 타도록 했다.

그러나 자신은 이미 물이 반쯤 들어찬 조타실에 남아 「SOS」를 계속 타전했다.

「선장님! 탈출하십시오.」

선원들의 몸부림 어린 절규에도 이를 거부하고 기어이 파도속에 하나호와 함께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바닷사람들의 교과서를 행동에 옮긴 것이었다.

구명정에 옮겨탄 선원 21명은 탈진한 상태에서 구조에 나선 어선에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이들은 살신성인한 劉선장의 시체라도 찾겠다며 귀향을 미루고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다.

33세에 선장이 된 劉선장은 올해 속초고를 졸업한 자신의 외아들 昇烈군(20)을 해양대에 진학토록 해 오는 6일이 입학식이어서 가족들의 슬픔이 더욱 크다

劉선장은 속초항에서 그의 별명 그대로 「타고 난 배사람」의 길을 택했다.

〈金聖起 차장〉

('90년 3월 3일字 경향신문 사설)

어떤 船長의 거룩한 죽음

침몰하는 어선에 끝까지 남아 부하 선원 21명의 목숨을 모두 구한뒤 자신은 배와 함께 최후를 마친 한 船長의 얘기는 단순한 감탄이상의 뭉클한 감동을 안겨준다.

요즘처럼 利己主義가 팽배한 시대에 자신의 목숨보다도 선원들의 생명을 더 끔직이 생각하고 끝까지 남아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는 것은 분명 보통사람은 하기 어려운 고결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코 그의 죽음 그 자체를 미화하고 칭송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하며 生命의 尊貴性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劉貞忠선장의 죽음을 의로운 희생으로 보는 것은, 죽음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이다. 만약 선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채 남보다 일찍 下船했거나 끝까지 구조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선원들이 모두 구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원 스물한명을 차례로 차례로 救命胴衣를 입혀 하선시키고 자신은 선원들이 구조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에 남아 긴급구조신호를 계속 발신하다가 비장한 최후를 마친 그非凡한 행동이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것이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劉선장의 집에는 부인과 해양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이 혹시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기대로 빈소도 차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은채 끝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責任을 다하고 스물한명의 목숨을 살린것은 평소의 투철한 책임의식에서 나온것으로 생각된다. 선장 劉씨의 이런 殺身成仁의 정신은 저마다 제살기에만 급급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保身主義의 風土에 하나의 따끔한 경종이 되기에 족하다.

경영의 鬼才로 알려진 미국의 아이아코카도 언제가 미국인은 누구도 危機에 맞서기를 꺼릴 정도로 책임감이 무디어졌다고慨叹하고 이때문에 미국은 납세자1인당 3만9천달러의 外債를 짊어진 負債國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적이 있다.

이러한 책임회피현상은 비단 미국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것이다. 人智가 발달하고 생존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保身만을 먼저 생각하는 利己主義의 風潮가 만연하게 마련이다.

크고 작은 조직에서는 물론 公職社會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安逸만을 도모하는 世態에서 劉선장이 보여준 투철한 責任感과 부하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龜鑑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사회가 안정된 궤도위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公職者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免避의 무사안일이 팽배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劉貞忠선장의 殺身成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90년 3월 4일자 조선일보 사설〉

어느 船長의 義로운 죽음

오징어漁船 「하나」號 劉貞忠 선장의 義로운 죽음은 각박하기 그지없는 世態人心에 찌든 우리에게 훈훈한 人情의 甘露를 느끼게 한다. 그는 조업중 갑작스런 돌풍과 집채만한 삼각파도에 휘말려 배가 침몰할때 운명을 같이했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서 충격을 느끼는 것은 그의 투철한 責任정신과 고귀한 희생정신이다. 그는 조난의 위기속에서 냉철한 판단아래 선원 21명 전원에게 차례로 구명동의를 입혀 하선시킨 후 이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계속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다 침몰하는 배와 함께 실종되었다.

망망대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에게 있어遭難의 위기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위기상황을 만났을때 이를 현명하게 또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 사람은 얼마든지 당황할수 있고 얼마든지 품위를 잃을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기도 쉽다. 한 사회, 한 나라를 책임진 인물조차도 위기가 닥쳐 오면 우선 나부터 살겠다고 재빨리 처신하는 것이 흔히 보는 일이다.

만일 위기를 만나서 자기의 체면을 알고廉恥를 알며, 인간의 위신과 존엄과 책임마저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聖人이나 진배 없다. 그런 인물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하되 실제 얻기는 어려운 것이 세상사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劉貞忠 선장은 매우 희귀한 인물로서, 우리앞에 뚜렷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기에 바쁜 世態, 禮儀廉恥가 메말라버린 황포한 우리 시대에 그는 인간 정신의 고귀한 빛을 던진 殺身成仁의 고매한 典範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물론 여객기나 여객선의 선장과 승무원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희생적 봉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임을 안다. 그래서 선장과 조종사의 무책임한 운항 때문에 초래한 치명적 사고에 대해서 선장의 무책임과 不道德을 규탄하는데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劉선장은 오징어잡이 배의 책임자로서 여객이 아닌 동료선원들의 생명을 구하기위해 자기희생의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는 다른 선원들처럼 구명대를 타고 표류하면서 구조선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구조의 확률은 거의 없다는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한사람의 희생으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

그의 義로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그로 인해 구조된 이들의 생명의 가치를 되새긴다.

그리고 살아난 이들이 죽은 선장의 삶을 대신해 값진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더욱 기대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임정신과 인간애 정신이 되살아나야겠다는 것이다. 한 가정이나 회사나 사회각계의 책임을 지는 이들이 劉선장의 죽음에서 느끼고 배우는 바가 있어야할 것이다.

유정충 선장의 죽음

安 浚 憲

〈강원일보 속초 취재부장〉

우리의 주변 어디서나 흔히 만날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기고 의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속초수협 소속 하나호 선장 유정충씨. 지난 3월1일 동중국해 해역에서 복어 잡이를 하다 삽시간에 몰아친 삼각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애선에 남아 죽음의 순간까지 긴급구조신호를 타전, 21명의 동료선원들이 생환할 수 있게한 극적인 그의 행동은 이제 속초의 자랑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가 수협사상 처음 전국어민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국민훈장 목련장과 카토릭대상 그리고 5.16민족상을 추서받았대서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용기와 살신성인의 고귀한 정신은 속초의 등불이 되어 속초시민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

평창이 반공소년 이승복군을 낳았듯이 속초는 의로운 시민 유정충씨를 낳았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의 업적을 기려 후세들에 본보기로 삼기위해 지금 동상건립을 위한 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동상건립은 영웅주의를 표방 하려한다는 일부의 탐탁치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바탕으로 책임과 희생정신을 실천한 고인의 업적을 기려 국민정신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성원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유선장 동상건립에의 범 시민적 동참을 촉권하며 그의 조난과정과 일대기를 주위사람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간추려 본다.

〈하나호 침몰에서 구조까지〉

하나호가 부산 대변항을 출항한 것은 2월26일. 3월1일 오전에는 제주남쪽 350마일 해상

인 동지나해 해역에서 복어떼를 발견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10시께 파도가 다소 거칠어지긴 했으나 늘상 있던 평범한 파도였기 때문에 별 관심없이 조업준비를 끝내고 오후1시께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을 거의 끝냈을 무렵 갑판 위를 파도가 가끔씩 넘쳐 들어 왔고 배가 몹시 흔들려 선원들이 모두 선원실로 들어가 벽등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차츰 배의 흔들림이 거세지며 순간 최대 풍속이 18~20m로 빨라지는듯 싶었다. 조타실 밖으로 보이는 파고는 4~5m정도. 금방이라도 선체를 집어 삼킬듯 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유선장이 선원들에 안전을 지시하는 순간 선체 중앙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며 기관실로 파도가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배 끄리부분이 물속에 잠기며 45도쯤 왼쪽으로 기울었다. 이때가 오후2시께. 선원실벽에 불어 마음을 졸이던 선원들은 누구지 지시를 받을 틈도 없이 본능적으로 갑판 위로 뛰어 나갔다. 배는 이미 크게 기울고 있었다. 조타실옆 사무장실에 있던 장수남 사무장은 선장에게로 달려가 탈출할 것을 호소했다.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구조신호를 타전 할 겨를도 없었다. 유선장은 장사무장에게 탈출을 명령하고 조타실로 황급히 들어 갔다. 장사무장이 정신없이 바다에 뛰어들자 배는 곧 180도로 뒤집혀 지며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제주도 모슬포어업무선국에서 하나호로부터 긴급구조신호를 받은 것이 바로 이때. 「SOS」가 수초간 계속되다 끊겨버렸다. 가까스로 물에 띄운 13인용 구명벌에 올라탄 선원들은 서로 생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거센파도와

싸우며 표류하기 시작했다. 날이 어둑어둑 해지며 파도가 가라앉자 사무장인 장씨가 유선장만 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지칠대로 지친 선원들은 유선장 걱정에 앞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어둠속에서 오는 공포에 모두 질려 있었다.

구명벌에는 있어야할 비상식량은 물론, 신호탄과 비상용품이 하나도 없었다.

오후 7시30분께 구조요청을 받은 일본보안청 헬기1대가 표류하고 있는 선원들의 머리위를 2~3회 선회했으나 끝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완전히 어둠이 깔린 오후8시께로 같은 선단소속인 만성호가 300m지점까지 접근했으나 역시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허기와 절망, 그리고 침북의 공포가 계속됐다. 짓눌러 염습하는 졸음을 쫓으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던 선원들은 다음날 새벽 2시30분께 유선장이 죽으면서 타전한 구조신호로 인해 구룡포선적 유창호에 의해 발견, 구조됐다. 선원들은 만일 유선장이 긴급구조신호를 타전하지 않고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모두 살아오지 못했을 것이라 회상했다.



〈유선장 일대기〉

유정충선장은 8·15해방 이듬해인 46년 함남 북청군 신포읍 신포리에서 부친 이상용씨(75년사망)와 모친 장준희씨(79년사망) 사이에 3남1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수산물 중개업을 해와 살림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유선장이 2살되던 해 부친은 좀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38선을 넘어 서울로 떠났기 때문에 생이별 상태에서 6·25를 맞았다. 공산학정에서 부친이 월남했다는 이유로 모친 시달림을 받던 모친은 5살난 유선장과 3남매를 데리고 10월 중순께 북한을 탈출했다. 이웃사람 50여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무조건 남으로 키를 잡았다. 2달에 걸친 항해 끝에 유선장 가족이 부산에 닿은 것은 그해 12월 20일께. 피난민이 모여사는 판자촌에 집을 푼 가족들은 곧 부친과 상봉, 자리를 잡았다. 53년 부산영도국민학교에 입학한 유선장은 우리 주변 어느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 유선장은 착한아이로 부산덕원중학교를 졸업했다. 싸움을 싫어하고 말잘듣는 아이로만 기억되던 유선장이 처음 부모를 거역한 것은 덕원공고 2학년 때. 부모의 만류를 뿐리치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 버렸던 것이다.

형 정웅씨 (51.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 126)는 “동생이 늘 배를 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봐 이때 정충이는 바다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것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유선장은 입대 후 기본훈련을 마치고 월남전에 파병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병 수개월 만에 총기사고로 오른쪽 팔에 총상을 입어 의병제대를 했다.

제대를 한 유선장은 좌절의 나날을 지냈다. 바다에 대한 야망이 마음한구석에서 좌절을 씹으며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의 고통이 컸다.

유선장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부산시내 한구석에서 노점상을 차렸다. 잠깐 공고를 다녔다는 미숙한 지식으로 간단한 전기기기를

수리해주며 하루하루를 생활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바다에 있었다. 일을 마치면 혼자 부둣가 포장마차를 찾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노점상으로는 자신의 꿈인 바다에 대한 열정을 삭힐수 없어 결국 1년6개월만에 거둬치우고 또다시 방황의 날을 계속했다.

이무렵인 67년 봄. 뜻하지 않게 속초에 사는 외삼촌으로부터 편지 한통이 날아 들었다. 오징어 건조업을 하는 외삼촌이 일좀 거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유선장이 머리속엔 순간 어떤 가능성 같은것이 스쳐지나갔다.

“어쩌면 고깃배라도 탈수 있을 지 모르겠다.”

「파북한 사람, 의리와 인정이 넘치는 사람」

67년 23살되던해 유선장이 속초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후 사귄 사람들의 머리속엔 유선장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 있다.

유선장은 외삼촌의 일을 열심히 거들며 배를 탈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이 무렵 지금의 부인인 김영희씨를 만나 김씨의 위로와 격려속에서 용기를 찾기 시작했다. 유선장은 이때 조그마한 목선을 갖기로 결심하고 저축을 시작했다. 유선장이 꿈을 이룬것은 저축을 시작한지 2년 뒤인 25살때. 부친과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5t짜리 대원호를 사들였다. 유선장이 배를 산 기쁨은 경험부족과 흉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잠시뿐이었다. 속초항 사람들은 흉어를 견디다 못해 금지된 지역에서의 조업을 감행하고 있었다. 금지된 지역은 미역등 해초류가 풍부해 그런대로 생활할수 있기 때문. 바다에 대한 향수가 생활수단으로 긴박한 상황에 부딪치자 유선장은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야간미역채취를 결심하고 69년 4월 어느날밤 배를 띄웠다. 유선장이 물치쪽 금지구역서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을때 강한 헤드라이트가 비치며 무차별 난사하는 총성이 들렸다.

간첩으로 오인 받은 유선장은 턱에 관통상을 입고 실신, 여러날 후에 깨어났다. 유선장은 육군통합병원으로 후송돼 6개월간 투병생활을

했다.

유선장이 퇴원해 속초에 돌아온 것은 그해 10월. 유선장을 기다리던 김씨가 부모를 설득, 동거를 시작하며 간병을 했다. 유선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 이듬해 봄부터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으나 유선장과 김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때 유선장은 부산형네집에 있는 부모를 모셔와 봉양했으며 12월에는 아들 승열군을 낳았다.

승열군이 백일잔치를 치룬지 1주일쯤되던 날 유선장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처남 김영택씨와 또다른 어부 7명과 함께 대원호를 몰고 연안 오징어 잡이에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엔진이 멈추고 불이 나가 버렸다.

엔진고장을 일으킨 배는 속수무책으로 표류, 공해상을 떠돌았다. 표류된지 이틀이 지났을 때는 비상식량마저 바닥이 났으며 갈증을 견딜수 없었다.

유선장은 갈증을 풀어보려고 오줌까지 받아 마셨다. 4박5일 동안의 표류는 악몽의 시간이었으나 유선장에겐 또 하나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유선장이 6급 항해사 시험에 합격, 속초수협 소속 협동호 선장이 된것은 33살때인 79년이었다. 악몽같은 대원호 표류사건이후 그는 선장이 되기 위한 일념을 불태우며 공부에 열중했다.

75년 부친을 여의는 슬픔과 항해사 시험을 앞두고 모친이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 모든 고통을 선장이란 꿈을 실현하며 딛고 일어섰다.

유선장이 협동호를 탄 것은 3년.

보통 선주와 선원간의 마찰로 인해 한배에서 1~2년을 넘기 힘든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유선장은 3년 연속 다큐상을 받으며 협동호의 키를 잡았다.

그만큼 유선장은 선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웠다.

유선장의 건넌방은 선원들의 휴식공간이었다. 책자에서 온 선원은 그의 집에서 한가족처럼 생활했다. 선원들의 생리란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나 한번 유선장과 일해본 선원들은 계속 그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유선장은 후배선원 양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부하선원중에 책임감과 근면함이 엿보여 「이 사람에겐 몇억원짜리 남의 재산을 맡겨도 된다」는 판단이 서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전수시켜 선장으로 키웠다.

지금까지 유선장이 키워낸 후배 선장은 4~5명 정도. 항해사 시험공부를 할때는 아예 건너방에 가둬놓고 숙식을 함께하며 공부를 시키는 열성을 보였다. 유선장은 보기드문 효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형님이 있으면서

도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출어전 반드시 묘소를 찾아 절을 올렸다. 유선장의 생활신조는 「욕심내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의에 죽고 의에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 하라」였다는게 올해 해양대학에 입학한 아들 승열군의 말이다.

● 이 글을 쓴 안준현은 강원일보 속초·양양 취재부장이다.

● 이 사건을 신속하고 깊이있게 취재하여 보도한 공로로 제6회 서울 언론인클럽 언론상 (향토언론인 부문)을 수상했다.

● 文化部 기자로 오래 활약해 문화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논리력과 직관력이 뛰어난 민완기자는 평을 받고 있다.

故 유정충선장 동상 제막



○…90년 3월 1일 선원 21명을 구하고 동중국해에서 실종된 **劉靜忠** 선장.

육신은 돌아오지 못했으나 91년 1월 9일 동상이 제막돼 어민들과 함께 영원히 남겨졌다.

자신을 버리고 부하선원을 구한 뜻과 행동이 고귀했기에 사람들은 될 수 있는대로 그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동상제작을 위한 성금을 모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부인 **金英姬씨**(42)는 이날 「뼈를 깎는 아픔이 다소 가셔질만 했는데 다시 살아나 내마음을 울린다』고 눈물을 쏟았으나 곧 동상제작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찾으며 말없이 고마움을 표했다.

동상이 세워진 속초시 금호동 근로자복지관앞 뜰은 속초항입구에 위치, 선원들이 임·출항할때마다 **劉선장**의 동상을 볼 수 있다. **劉선장**은 책임있고 겸손했던 태고난 옛사람이었다.

머리가 좋아 늘 고기를 많이 잡았고 리더십도 강했다. 79년 첫 오징어 어배 선장이 됐을때는 대학퇴선단증 제일많은 오징어를 잡았다. 말과 행동이 거친 부하선원 틈에서도 그는 늘 경어를 사용했다.

그의 밑에는 항상 선원이 모여들었다. **劉선장**은 출어전에 꼭 부모님 묘소를 찾아 잔술을 올리며 절을 하고 떠났다.

그는 늘 선원들에게『건실하게 살자, 없으면 없는데로 살지언정 욕심 내지말자. 술 적게 마시고 벌매 아끼자』며 근면한 생활신조를 깨우쳐줬다.

『배와 함께 죽을지언정 선원은 꼭 구한다』고 말해온 **劉선장**은 그의 좌우명처럼 행동하고 바다속에 잠겼다.

언젠가 수천돈급 여객선이 속초항을 드나들게되면 국내외 관광객은 선상에서 **劉선장**의 동상을 바라보며『저사람이 그사람이냐』고 물어보게 될것이다.

現場
을
찾아
서

신흥사 청동좌불상제작 현장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좌불상을 제작하고 있다.

전국민의 염원인 남북 통일 기원과 설악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불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지난 87년 4월부터 이 대역사를 시작했다.

이 제작현장을 찾아 김혜법 주지스님과 함께 그 작업 현황 및 신흥사 전반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註

…우선 ‘청동 좌불상’이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의 좌불상을 청동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라 함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기원전 623년 인도룸비니 동산 부우수 아래서 탄생하셨다가 기원전 544년 구시나 가라성 밖 발제 언덕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하신 현세의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세워질 청동 좌불상의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높이가 58척, 그러니까 19m가 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죠. 재료는 물론 청동이고, 소요 재원은 약 37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7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92년 10월 봉불 예정입니다.

…37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떻게 충당 하시는지요?

⇒공동예치금과 경상비를 절약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도들의 시주금에 의지해야 겠죠.

…이 청동 좌불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라는 게 있을텐데요?

⇒설악산 신흥사는 분단 한반도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불교 조계종 25개교구 중 군사적 최전방 최일선 교구 본사로서 북괴 도발의 저지와 반공사상계몽등으로 호국불교의 긍지를 높여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설악산에 자리 잡고 있는 관광사찰 이어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발전상을 보여 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 세계 최대의 청동석가여래 좌불상을 모시고 전국민의 염원인 남북평화 통일 기원과 설악산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불심을 일깨워 주는 동시에 전 인류의 귀의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청동 석가여래 좌불상을 조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내친김에 신흥사의 연혁이랄까, 발자취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좀 장황하겠지만, 우리 신흥사의 역사적 배경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신흥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입니다. 신흥사는 설악산의 주찰이며 가장 역사가 깊은 고찰이죠. 신흥사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이조 후기의 것인 사적비를 비롯하여 용암, 대원 벽파 큰 스님들의 비석과 부도가 모셔져 있고 이름 모를 10여기의 부도가 나란히 서있습니다. 신흥사는 처음 신라 진덕여왕 6년 (654년)에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여 절이름을 향성사라 불렀었죠, 이 향성사 터는 현재 신흥사로 부터 쌍천계곡을 따라 1km쯤 내려간 곳인 뉴 설악호텔 자리인데, 창건 당시에 세워진 향성사지 삼층석탑(보문 443호)이 호텔정문 앞 길 건너 개울가에 남아있어 이를 증명해 줍니다.

향성사란 이름은 심향성중의 절이란 뜻인데, 심향성이란 팔부중 중에서 음악을 맡고 있는 신인 건달바가 환술로 만들어낸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심향성은 사마에서 나타나는 신기루나 바닷가에서 나타나는 해시와 같은 환시 현상에 의한 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장율사는 어느날 아침 울산바위에 올라 바로 이런 심향성을 향성사 부근에서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터에 집을 짓고 심향성에서 본 절이란 뜻으로 향성사라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46년후 효소왕 7년 698년 무술에 불에 타자 의상대사가 그뒤 3년만에 효소왕 10년(701년) 그 곳에서부터 2km쯤 상류로 올라간 지점인 능인암(이 역시 지장율사가 창건 하였는데 향성사와 함께 소실됨)터에 새로 절을 짓고 선정사라 개칭하였습니다. 낙산사 해변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낙산사를 창건하였다는 의상대사이니 그 주산인 설악산을 찾아와 큰절을 중창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낙산사 있는 곳을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 낙가산이라고 생각하였다면 그 주산인 설악산을 석가세존께서 6년 선정고행을 감행하여 성도하신 바로 그 설산으로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절 이름을 6년 고행 선정을 상징하는 선정사라 지은 것이죠. 이후 이 선정사는 조선 인조 20년 (1642)임오년까지 942년간을 법통을 이어 900여선승들이 수도정진중 다시 화마로 모두 타버리자 2년뒤인 인조 22년 (1644)에 영서, 연옥, 혜원스님 등이 선정사아래 1.5km 지점인 신흥사 자리에 터를 잡아 절을 옮겨 중창하면서 신흥사라 절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 연유를 살펴보면 영서, 혜원, 연옥, 세스님이 일념으로 중건을 염원 해오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향성사 당시의 소림암 주지로부터 비범한 신인이 출현하여 현 신흥사 터를 점지 이 곳은 수만대 삼재가 미치지 않는 신역이니라 말씀하시고 홀연히 하늘로 올라 가기에, 들연 각성하니 심신을 황홀케 하는 꿈을 세스님이 똑같이 꾸었음에 그 이튿날 아침부터 절을 중창하고, 신동으로 중건된 절이라 하여 절 이름을 신흥사라하여 지금에 이르른 것이죠.

본 신흥사는 서기 1912년부터 본산 전봉사의 말사였으나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종무를 관장하는 교구의 본사로 승격 됩니다.

명산이며 설산인 설악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25개 교구 중 제3교구

▣ 현장을 찾아서 ▣

본사인 우리 신흥사의 교구 관할은 강원도 춘천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춘성군. 철원군. 화천군 등으로 2개시와 7개군입니다.

22개의 말사가 있고 속초시 영랑동에는 신흥사 직할포교당 원각사가 있으며 반야유치원을 개설하여 5개반을 운영하고 있죠. 신행

단체인 거사림회, 달마회, 대불련, 청년회, 종·고불련, 어린이회 등 여러단체가 주일마다 법회를 개최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2개 말사인 감로암과 무혜사 포교당 및 인천시에 능인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합 26개의 말사암을 관장하는 셈입니다.



◀ 사진은 공사 진행 광경
원내는 주지 혜법 큰님

국립공원 설악산(6)



박 익 훈 / 향토사학자

옛말에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개 고기를 판다”는(羊頭狗肉) 속담이 있다.

“설악산 신흥사의 유래”라는 제목을 두고 설악산 전부를 소개하니 “국립공원 설악산” 이란 타이틀 밑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스님의 능란한 섭렵(涉獵)에 미련한 속인은 갈길조차 찾지 못해 먼 산만 쳐다보고 쓴 웃음을 짓게 된다. 조선조(造船朝) 중종(中宗) 때 과거에 등제(登第)하고도 벼슬길 마다하고 초야(草野)에 숨어 살았다는 송암(松岩) 강익(姜翼)이 지은 시조에

“지란(芝蘭)을 가꾸고자 하여 호미를 들러매고 전원(田園)을 돌아보니 반이나 마 형극(荊棘)이다
아해야 이 김 못다 매어 해 저물가 하노라”

이 시조처럼 해가 저물기 전에 쓰지 못한것이 한이 된다 해야 옳을지 아니면 “일목일초

(一木一草) 불심(佛心) 아닌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너그러운 자비(慈悲)로 돌려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하다.

비선대에 얹힌 시문(詩文)과 각자(刻字)

비선대하면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려가는 명소중(名所中)의 명소이다.

색깔이 곱고 냄새가 향기로운 꽃에는 많은 벌, 나비가 찾아들듯이 비선대야말로 많은 시인목객(詩人墨客)들이 찾아와 시를 읊고 이름을 새겨 두기도 했다.

비선대는 경관(景觀)이 아름답고 깨끗한데다가 평탄한 넓은 바위가 충계를 이루고 있어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식당”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班)이라는 소(小) 책자에 실려 있는가하면, 와선대(臥仙臺)에서 비선대까지에 이르는 골짜기를 이 지역 주민들중에는 “식당(食堂) 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경대(瓊臺) 위에서 맑은 물을 굽어보니

부채같은 청봉(青峰)이 그곳에 펼쳐졌네

이곳이 생길때에 묘리(妙理)를 가추었던가

그 세(勢) 어찌 이다지도 기장(奇壯) 한가

瓊臺俯全潭

石扇排青峰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

어떤 분은 경대(瓊臺)같이 맑은 물이라 해석하는데 경대(瓊臺)를 경대(鏡臺)로 생각한 것 같다. 경대(瓊臺)는 경궁요대(瓊宮瑤臺)를 줄인 말로서, 옥으로 만든 궁(宮)과 대(臺)라는 뜻으로 훌륭한 궁전(宮殿) 같다는 의미이고, 금담(金潭)은 가을 하늘과 같이 티없이 맑은 물이란 뜻이며, 융시(融時)란 이 땅이 처음 생길 때라는 의미로 풀이 된 다.

이 한시(漢時)는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이 비선대를 보고 지은 시이다.

비선대는 보고 또 보고 천만 번 보아도 실증이 나지않고 또 찾고싶은 뛰어난 경관(景觀)인데다가 옥으로 만든것 같이 아름다운 대(臺)위에서 가을 하늘같이 티없이 맑은 물 속을 내려다 보니 주위에 있는 모든 푸른 산봉(山峰)들의 그림자가 마치 부채처럼 펼쳐져 있어 금의첨화(金衣添花)를 다하고 있는 이런 비경(祕境)이야말로 지구가 생길때 신(神)이 모든 지혜(智慧)와 묘기(妙技)를 다하여 특별하게 만든가보다. 그렇지않고서야 어찌 이다지도 기이(奇異)하고

▣ 현장을 찾아서 ▣

옹장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절찬(絕讚)해 마지않은 식귀이다.

삼연(三淵)은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 때 주전파(主戰派)로 청(清)나라로 끌려가며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
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
동 하여라”

는 유명한 시조를 남겼다는 청음 김상현(淸陰 金尙憲)의 증손(曾孫)이요, 기사환국(己巳換局…1659) 때 장희빈(張禧嬪)의 소생(所生) 왕자를 원자(元子)로 삼자는데 반대하다가 숙종(肅宗)의 노여움을 사 진도(珍島)로 유배(流配)되어 사약(賜藥)을 받은 문곡 김수항(文谷 金受恒)의 세째 아들이다.

1689년(肅宗15) 아버지가 돌아가자 효성(孝誠)이 지극한 창흡(昌翕)은 비분강개(悲憤慷慨)한 나머지 만행 창집(昌集)과 함께 경기도 포천 땅 영평(永平) 산중에 은거(隱居)해 있다가 다시 설악산을 찾아와 내설악에다 영시암(永矢庵)이란 암자를 짓고 영원히 세상에 나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永不出世爲誓) 6년동안 설악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많은 시를 남겼다.

어느날 암자 뒷 산골짜기에 서 찬모(饌母)가 범에게 물려가고 말았다. 이를 슬퍼한 삼연은 손수 밥짓기도 곤란하

고 해서 수춘산(壽春山)으로 떠나갔다. 1721년(景宗 1)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장희빈의 소생인 경종(景宗)은 성품은 온순하였으나 자식이 없고 몸이 허약함으로 세자(世子) 책봉(冊封)을 서둘러야 한다는 노론(老論)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소론(少論)의 주장이 맞서 노론의 승리로 왕제(王弟) 연임군(延姪君 뒤에 英祖)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게 되었으나 그후 소론의 모함(謀陷)으로 노론의 대신들이 역모(逆謀)로 몰려 영의정(領議政)으로 있던 삼연의 형 창집(昌集)이 거제도(巨濟島)로 유배(流配) 되었다가 사약(賜藥)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창흡(昌翕)은 지병(持病)이 악화(惡化)되어 1722년(景宗 2) 향년(享年) 69세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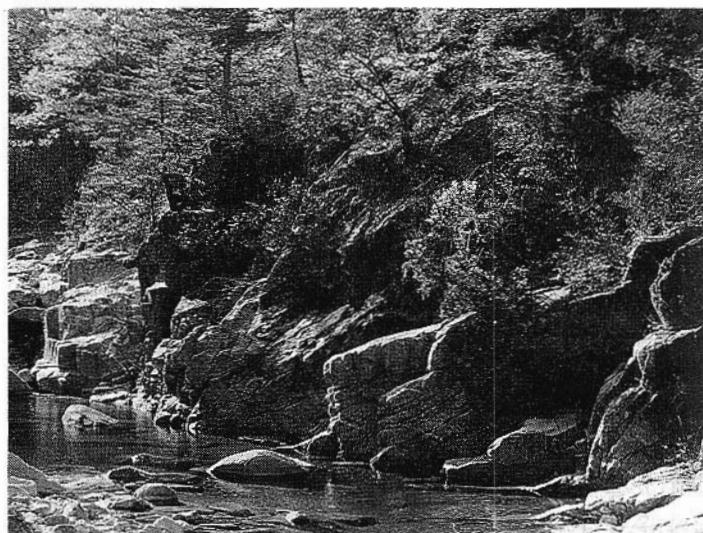
삼연은 4형제 중 가장 문재(文才)가 뛰어났고 저서(著書)로는 삼연집(三淵集)이

있다고 한국사 대사전(韓國史大事典)과 인제군지에 쓰여 있다.

1691년 그가 지은 영시암(永矢庵)이 가시덤불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민망히 여긴 설정선사(雪淨禪師)가 여러 대신(大臣)들과 도관찰사(道觀察使), 그리고 그의 덕(德)을 사모(思慕)하는 모든 선비들과 인제 군민으로부터 회사(喜捨)를 받아 암자를 재건(再建)하고 불상(佛像)을 안치(安置)하였는데 법당(法堂)이 24간(間)이고 비각(碑閣)이 1간(間)이었다 한다.

1925년 기호스님이 중수(重修)하였으나 6.25동란 때 삼연(三淵)의 유허비(柔虛碑)와 함께 소실(燒失)되고 말았다고 인제군지에 실려 있다.

한국인 족보(韓國人族譜) 안동김씨편에, 삼연은 숙종(肅宗)의 묘정(廟停)에 배향(配享)되고, 강릉의 호해정영당(湖海亭影堂)에 제향(祭享)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속초시 온정국민학교앞 도로변에 몇해전 삼연의 비를 세웠는데 뒷면에 비선대의 시문과 속초의 소야팔경이 쓰여져 있고 소야팔경중(所野八景中) 속초귀범(束草歸帆)이 조도귀범(鳥島歸帆)으로 되어 있다.

비선대에는 창흡의 시문(詩文)외에도 여러 시문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룬다.

“비선대(飛仙臺)”란 각자(刻字)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식당바위”에 초서(草書)로 비선대(飛仙臺)라고 새겨져 있는데 너무도 잘 쓴 글씨여서 초서 잘 쓰기로 이름난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의 글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백하(白下) 윤순(尹淳)의 글씨라고 문헌(文獻)에 명기(明記)되어 있다.

양양읍지(襄陽邑誌)에

“비선대는 와선대 위쪽에 있는데 천석(川石)을 보면 와선대보다 더 좋으며 북쪽에는 돌 봉우리가 높이 우뚝 솟아 있고 숲이 우거져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케 한다. 봉래(蓬萊)에도 이런 곳이 없다.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이 이른바 동방천석중(東方川石中)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했고 비선대(飛仙臺)라고 새겨진 큰 세 글자는 판서(判書) 윤순(尹淳)이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在臥仙臺之上 川石視臥仙尤勝 而北崖石章之突兀森束 令人驚吁 亦蓬萊之所無三淵金公昌翕所謂 東方川石中 上乘者

臺號三字大刻 尹判書淳筆)

이 고장에서 둘도 없는 값진 이 글씨가 날이 갈수록 비·바람과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어 마멸(磨滅)되어 가고 있어 이곳을 찾는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차를 타고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인 청간정(淸澗亭) 앞을 지나다 보면 이승만(李承晚) 대통령 휘호(揮毫)인 청간정(淸澗亭)이란 세 글자가 짙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전사(轉寫)되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필자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몇번이고 되돌아보며,

“정자도 좋거니와 글씨도 멋지구나”하고 혼자 입속말로 되씹어 본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속초에서도 이 글씨를 탁본(拓本)하여 비선대 입구에 세워두고 간단한 풀이까지 해 놓는다면 승지(勝地) 비선대가 더욱 돋보이게 되리라는 확신이 든다.

윤순(尹淳)은 영조(英祖) 때의 문신(文臣)으로 이름난 일류서예가(一流書藝家)였다. 글씨체는 중국 명(明)나라때 유명한 화가(畫家)요 시인(詩人)인데다가 뛰어난 서예가(書藝家)인 문징명(文徵明)의 체(體)를 공부하였는데 청출어람(青出於藍)으로 문징명보다 글씨를 더 잘 썼다는 평을 받았다 한다.

윤순(尹淳)은 지평(持平) 세선(世善)의 아들이요 예조판서(禮曹判書) 유(遊)의 동생이며 호(號)는 백하(白下)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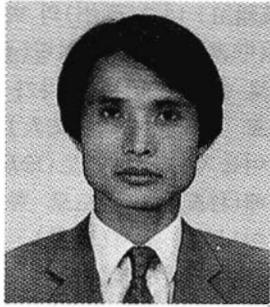
자(字)는 중화(仲和)이다. 본인도 대제학(大堤學), 이조(吏曹)·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歷任)하였으니 남못지 않은 명문출신(名門出身)인데다가 이팡사(李匡師)같은 이름 난 제자를 길러 내기도 했다.

이팡사(李匡師)는 1755년(英祖31) 나주(羅州)의 벽서사건(壁書事件)으로 회령(會寧)으로 유배(流配)되었다가 학문으로 많은 문인(文人)들이 모여들자 다시 진도(珍島)로 이배(移配)될 정도로 학문에 뛰어났고 초서(草書)·전서(篆書)·예서(隸書)에 모두 능했으며 원교체(圓矯體)라는 독특한 필체를 이루었는가 하면 저술을 통해 후진(後進)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남긴 분이다. “원교체”란 어떤 서체(書體)인지 찾지못해 안타깝기 만하다.

백하가 비선대(飛仙臺)라 쓴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기록상으로 보아 판서직(判書職) 시절에 쓴 것 같다.

그는 1741년(英祖 17) 지방 순찰중(地方巡察中) 평안북도 압록강(鴨綠江)기슭에 있는 벽동(碧潼)이란 곳에서 62세의 나이로 객사(客死)했고 저서로는 백하집(白下集)이 있다.

바다내음 그리운 내고향 속초



김경일 / 교사

1957년 속초시 대포동에서 출생했다.

속초고등학교와 관동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경기도 수원북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어부이신 아버지가 그 거친 손으로 손수 떠주신 싱싱한 회맛을 기억하고 있는 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늘 말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잠자리에 들면 찰싹찰싹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 소리가 귀에 쟁쟁히 들려 옴은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너무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탓이리라. 우리 집은 대포에서도 바닷가를 따라 돌면 나타나는 작은 마을. 지금은 전가호가 집단 이주하여 옛 모습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뒷마루에 걸터 앉으면 동해 일출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고, 낙산사, 설악산 입구, 또 해수욕장 등이 한눈에 들어오던 곳. 후덕한 인심에 이웃과 바다와 더불어 사는 순박한 사람들의 보금자리. 그 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나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듯싶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속초에 계시니 일년에도 수 차례씩 다녀오곤 하지만 어디엔들 이렇듯 천혜의 조화가 있단 말인가. 수려한 송림에 아기자기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영랑호반의 평화로움은 태공들에겐 더없는 휴식과 안락의 장소였고, 곳곳에서 잡아 올리는 월척의 환호는 낮선 이들끼리 기쁨을 함께하는 화합의 장임에 틀림없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아름다운 산책로였고, 청소년들에겐 호연지기를 기르는 심신연마의 장소였다. 또

청초호는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 물오리 등의 보금자리로 사진작가들에겐 더없는 모델이었고, 평소 많은 선박들에겐 평온한 정박처요, 태풍 시는 피난처로 속초의 중심 항구인 것이다. 무엇보다 속초를 찾는 이에게 낭만적이고 인상 깊은 것은 청호동과 중앙동을 잇는 나룻배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룻배는 속초의 귀중한 교통수단이다. 어디 이 뿐이랴, 유황수의 보고 척산온천, 실향민의 무수한 한을 안고 우뚝선 수복탑의 고적(孤寂)함은 이를 찾는 모든 이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눈감으면 너무나 많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기에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은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 맑고 심원한 동해. 장엄하면서도 계절에 따라 천의 얼굴을 하는 설악산. 이를 어느 미사여구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름만 들어도 마음 편한 곳. 포근한 어머님 가슴 같은 내 고향 속초. 내겐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에 동해와 설악의 정기를 옮겨 간직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높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한 순간도 속초인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음을 감히 고백해 본다.

부친께서 농업과 어업에



모든이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은 휴식이요, 힘이요, 낙원인 것이다. 과거가 지나버린 추억이기에 아름답듯이, 고향은 언제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보금자리이다.

종사해 오신 관계로 나는 전형적인 농어가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때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삶 자체가 그러하듯 농어가의 가정도 수확기까지의 준비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망을 하시던 부친을 따라 바다로 나아가 어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던 물고기를 잡아 올리던 만선의 기쁨과 그 생선으로 선상에서 어부의 거친 손으로 직접 만든 생선회의 싱싱한 맛은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했고, 일류 요리사의 어여

한 음식과도 비교될 수 없었다. 이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 어획량도 줄고, 그 아름답던 청초호, 영랑호며 바닷가 또한 날로 오염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내 고향 속초는 많은 실향민이 모여사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력이 강하고 여러 지역의 풍속이나 음식이 공존하는 곳. 그 중 특히 함흥냉면의 감칠 맛은 언제나 잊을 수가 없어서 냉면 생각이 날 때면 입가엔 군침부터 돌게 한다. 또 동해를 굽어보며

바닷가에서 먹는 회맛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느낌일까. 아마 전국에서 속초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설악과 동해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듯이 속초에서 느끼는 입맛 또한 잊을 수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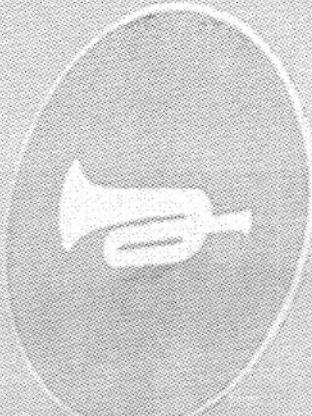
모든 이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처럼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은 휴식이요, 힘이요, 낙원인 것이다. 과거가 지나버린 추억이기에 아름답듯이, 고향은 언제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보금자리이기에 더욱 소중한 곳인가 보다.

속 초

우리는 아직 피난민이다
철조망 거두고
늠름히 걸어갈 수 있다고
그 날이 곧 온다고
살아갈수록 잠들지 못하는
북청사자들이
실향의 겨울을 울고 있다.

두고온 북녘 하늘 부르며
무너진 원산행 철교 위를
청초호 갈매기 끼룩이고
위대한 봄은 도착하지 못했다.

숯처럼 쓰러져 있는
이 도시의 성
길조차 눈이 지워버리려는데
아들이 생각한 전쟁속엔
피난민 실은 목선만이 기우뚱 기우뚱
어슴 새벽을 떠나고 있다.



時論

傳統 價值觀은
복원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사학가들은 현대를 '과학혁명의 세기'라고 부른다.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기 까지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혁명은 인류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준 것이다. 이 속에서 누려온 안락과 풍요의 뒷편에는 심각한 인류의 과제인 환경오염이란 부산물을 놓게 된 것이다. 즉 물질문명에 따른 소비의 증가는 자연의 조화된 순환원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인간 생존의 기본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환경오염의 개념,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실증적 사례 그리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대책과 속초 지역 환경보호와 발전을 위한 순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환경오염의 개념

환경오염(Enviromental Pollution) 즉 공해(Nuisance)의 개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구성 성분이나 상태가 변화하여 본래의 경우보다 인간이 그 환경을 이용하는 대에 그 효율이 악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질환, 공해와 질병) 이는



전재욱 / 동우전문대학장

단적으로 말하면 조화된 자연환경을 인간이 파괴하여 생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로마클럽은 인간의 생존과 자연환경의 훼손을 뜻하는 오염(Pollution)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지금까지 실제로 계측되어 온 여러가지 오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그러한 기하급수적 오염성 장곡선의 상한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3) 생태학적 과정에 있어서 자연의 시차(lag)에 의해서 (즉 오염물질이 배출된 후 생태계를 거쳐 다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오는 시차

때문에) 인간은 제어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을 과소평가해 버리고 그 결과 모르는 사이에 상한에 도달해 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여러 오염인자는 온 지구 상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해로운 영향은 그 발생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위 견해를 간추리면 1) 오염의 기하급수적 증가 2) 오염의 상한성에 대한 무지 3) 오염의 시차로 인해 제어조치 과소평가 4) 오염발생의 심각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은 결국 과학과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활동의 확대에 있다고 보아야겠다.

2.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자본주의의 기본적 속성의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윤 추구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과학과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생산을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소비의 촉진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정해진 수준이다. 이렇게 대량 소비를 위한 대량생산은 자원

이용의 급증으로 연결되어 환경의 파괴와 오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으로 1)인구의 증가 2)산업의 지속적 성장 3)환경파괴적 기술의 개발 4) GNP의 성장과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5)산업과 인구의 도시집중을 들고 있다. (송병락, “경제와 환경”, 환경논총 제1권)

위의 발생원인 중에서 ‘인구 증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 활동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은 우리의 생활을 안락하고 풍요하게 하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심각하게 받아드릴 때가 온 것이다.

‘빛이 강하면 그 만큼 어둠도 강하다’는 말처럼 화려한 경제성장의 뒷 그늘에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3. 실증적 사례

환경오염 중 심각한 문제만 제기한다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농약공해, 식품공해 등이다. 이 가운데 여기서 다룰 것은 우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1) 대기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율한 사건 중의 하나는 1930년 1

2월 1일부터 4일간 「벨기에」 의 공업지대인 「뮤즈」 지방에 기상역전과 무풍상태가 계속된 적이 있었던 일이다. 이때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가 전지 역을 덮어 수백명에 달하는 호흡기병 환자가 발생하고 63명이나 사망한 사실이 있다.

위 사건은 극단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이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가공할 현상들이 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탄산가스(CO_2)는 식물에 의하여 흡수되고 식물은 또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산소(O_2)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식물은 탄산가스, 산소, 질소 그리고 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주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대기오염으로 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심각한 경우에 이른다면 인류의 장래는 절망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태계의 파괴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특히 대기권의 급격한 CO_2 의 증가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가져와 북극의 빙하를 녹게 할 것이다. 이 영구빙이

1 / 10만 녹는다면 해수면이 약 6m 상승하여 지구의 많은 도시들이 물 속에 잠기리라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 정말로 인류의 위기를 눈 앞에 바라보고 있는 격이다.

2) 수질오염

수질오염의 세계적 피해를 예로 일본에서 수은 중독의 공해로 「큐우슈우」 지방의 한 어촌에서 116명이 발생하여 그 중에서 45명이 사망한 사건

이 있다.

원인은 질소공장에서 메칠수은 화합물을 배출해서 그 일대의 바다를 오염시킨 것이다. 오염된 바다에 서식하는 어패류가 일차적으로 수은으로 오염되고, 오염된 어패류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에게 발병한 무서운 병으로 손, 발이 마비되고 시력을 잃게 되며, 중추신경의 마비로 결국은 죽게되는 것이다.

물의 순환과 자원 실태를 살펴보면 지구 전체 물 자원 중 1 / 3은 증발되고, 1 / 3은 바다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1 / 3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그 1 / 3의 1 / 3인 약 1백억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시폐수나 공장 폐수의 정화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인류는 식수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듯 물을 보호해야 하며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정신을 전 인류가 갖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 하겠다.

4. 환경오염의 방지와 대책

환경오염의 방지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범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한 방지책과 피해대책이 논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행위도 스스로 막아나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법률적 대책으로는 공해

방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정하여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화를 통해 행동적 대책을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해야한다.

생활인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기관과 매스컴을 통하여 공해에 대한 범 국민적인 계몽과 방지책을 홍보해야 하며 물자적약의 생활화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환경 보호연구회, 연구보고서 1집 참조)

5. 속초지역 환경보호와 발전을 위한 제언

“인간의 오늘날의 가장 큰 죄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각할 시대가 왔다”는 슈바이찌박사의 충고에 귀를 기울려야 할 때인 것이다.

참으로 설악관광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충고의 절박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일과성이 아닌 영속성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몇 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곳은 천혜의 절경인 설악산과 수정같이 맑은 동해를 갖고 있는 ‘축복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권을 찾는 관광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니 관광인구의 수용과 편의 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 부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관광문화의 저급화를 초래하여 사치와 낭비로 흘러가고 관광의식과 자연보호에 대한 무지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초시를 비롯한 시정당국과 속초시 번영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및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등을 고려한 장·단기 도시계획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금강산권의 개발과 연계시켜 볼 때 설악권의 관광개발이 더욱 신중하게 대처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속초시발전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시민 대표, 지방행정 담당자, 도시공학자, 환경문제 전문가, 지역개발 학자, 사회학자, 생태학자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참여케 하며 범 시민적 합의를 형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및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등을 고려한 장·단기 도시계획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금강산권과의 개발과 연계시켜 볼 때 설악권의 관광개발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美德의 倫理觀은 복원되어야 한다

요즈음처럼 價値觀의 混亂이
팽배한 적도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混亂한 社會에서 사노라면
어떤 것이 真實이고 어떤 것이
虛實인지 도무지 分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價値觀의
渴藤이라기 보다는, 價値가
不在인 現實이며 無法天地라고
表現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社會가 명들어 가는 여러가지
病理現狀中에서, 橫暴가
極에 達하는 青少年의 非行,
無秩序란 交通道德, 職業人の
倫理觀 缺乏에 관해서 마음에
지녔던 所見을 整理해 보려고
한다.

20代 初盤의 青年이 某 區內
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를
40代 後半의 어른이 그青年에
게 “여기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다”라고 점잖게 타일
렸더니 그青年은 오히려 “當
身이 뭔데 날 訓戒하느냐 當身이
나한데 담배 사줘 봤어”라고
대들면서 그분의 難堪까지
잡았다는 6月 初旬의 朝鮮日報
記事를 接할 때 참으로 暗澹한
마음과 울분을 禁할 수가 없었
다. 世上이 왜 이다지도 過激
해 졌으며 웃 어른을 恭敬하는
마음, 公衆道德을 지키는 마음
들은 童話속에서나 들을 수

林滿根 / 청호국민학교장

있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
는지?

毎日 報道되는 殺人事件,
人身賣買, 組織暴力輩, 自殺은
極에 達해 어린 中學生까지
恣行하는 作態! 참으로 世上은
末世라고 항간에 떠도는 말들
이 實感나게 느껴지고 있어
子女를 養育하고 있는 우리
既成人 모두에게 큰 衝擊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내 슬하에서 자란 子息은
바르고 곧게 자라 났으며 問題
는 없는 것인지? 어느 家庭이
나 子息은 父母로부터 가장
所中한 存在요 重要한 關心의
對象임은 不問可知다. 부모는
그들을 사랑하고 尊重한 나머
지 그들의 要求條件을 可能한
한 充足시켜 주려고 努力하는
가운데, 자칫 그 度가 지나쳐
拒逆할 수 없는 上典으로 떠

받들게 됨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子息은 장차 내 가정
을 責任질 家族의 기둥이요
우리 社會를 이끌어 갈 우리
모두의 希望인 것이다. 커가는
子女는 한 個人的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앞서, 장차 社會의
건전한 성원이 되도록 이끌어
갈 義務와 責任은 父母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既成人 모두
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 子息은
勿論 남의 子女에게도 항상
여러가지 言行을 銳意注視하
여, 하면 안되는 일 道德的
價値基準에 嫌惡感을 주는
行動에 對해서도 누구나가
先導的으로 가차없이 꾸짖을
수 있는 社會의一般的 雾圍氣
와 共感帶가 形成定着될 때
青少年의 非行은 줄일 수 있다
고 믿는다.

다음은 交通道德에 관해
論해 보려고 한다. 東草의
中心距離에서도 交通秩序의
不在와 道路交通法上의 違法事
態는 자주 皮膚로 直感할 수
있는 지극히 寒心스러운 場面
들이 많다. 儼然히 그어져
있는 橫斷步道가 있음에도
아무곳에서나, 疾走하는 自動
車와 勝負나 겨루듯 車道를
마구 橫斷하려는 非義俠的
行動, 信號燈이 設置되어 있는
交叉路 前方에서 赤色點燈으로

車를 멈추고 줄지어 있는 車들 속에서 右廻轉이나 할듯 右便 信號燈을 깜박거리며 車線을 無視한 채 앞질러 돌아와 停車 하고 있는 남의 車線앞에 버스 듬히 끼어드는 没知覺한 一部 運轉者들, 無資本으로 路邊에서 生業手段으로 하는 零細商人은 덮어 두고라도 店舖앞 인도에 많은 商品을 버젓이 陳列을 하여 步行者를 不便하게 하는 알팍한 商人們의 商魂, 이들은 모두가 個人的的 利己主義 및 自主意識이 強한所致로서 道德心이 不定하고 예의를 저버린 사람들도 편협된 利己主義者들이다. 이러한心理가 累積되면 결코 傲慢과 驕慢의 所有者가 될 것은 名譽觀火한 일일진데 不道德하고 傲慢 放恣한 行動으로 距離秩序를 無法化하는 雜輩들은 市民 모두에게 度外視 嘗하고

不待接받는 生活樣式이 가슴 속 깊숙히 정착될 때 밝고 明朗한 交通秩序를 期約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의 大多 數 職場人们的 職業觀을 보면 남이 生活하는 職業에 對해서는 分析도 없이憧憬的思考에서 無條件的으로 美化를 하고自己가 直接 몸 담고 있는 職場에 對해서는 항상 過小評價 또는 批判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實相을 볼 수가 있다. 하물며 經營者로 하여금 產出期待에 副應한 目標指向의 經營過程에서의 施行錯誤의 人問題點과 結果論의 분출된 事案에 對해서 항상 生業의手段으로 몸 담고 있는 職場과 每日 얼굴을 맞대고 生活하는 上司에 對하여 自己의 生覺과信念을 달리한다고 하여 對話의 機會도 가져 보지도 않은

채 一方的 批判과 聲討하는 근시안적 行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現代產業 社會는 傳統社會와 달리 構造의 으로 異質的 集團으로 構成된 社會로 身分 出身 信仰 思考方式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雲集되어 있어 于先 남의 耳目에 對하여 意識을 하게 되고 때로는 使命感의 結如로 自己의 職分과 役割을 卑下하려는 雜念도 있으나 異質的 集團들은 각자 自己나름대로의 獨自性을 충분히 發揮하면서 經營者의 目的추구와 職場人 모두의 共同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頑固적으로 남을 理解하고 協同하는 態度와 能動의 으로 봉사하는 心念으로 從事할 때 職場은 和氣가 充滿해지고 生產的 雾圍氣는 造成되는 반면, 我執과 偏見에 사로잡힌 獨斷的 思考方式의 所有者는

청소년들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이끌어 갈 책임은 우리
기성인에게 있다.



職場破壞는 勿論 自身마저도
不幸에 빠지는 結果를 招來하
고 만다는 事實을 인식해야
하겠으며 어느 分野 어느 職種
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없어서
는 안될 所重한 價值가 있는
것이 職業의 本質이거는自己
에 주어진 職分과 役割에 對해
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主人
意識으로서 일에 대한 보람과
責任 그리고 어였한 稔持를
갖고 積極的으로 일하려는

眞正한 職業倫理觀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다.

道德이 타락하였고, 秩序가
무너졌으며, 良心이 通하지
않아 不安, 焦燥, 拜金, 不信들
이 쌓여 마치 고무풍선처럼
터질것만 같은 超緊張속에
살고 있는 이 時代에 우리들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父母
의 사랑에 對한 報恩의 情으로
父母를 恭敬하고 근심하지
않게 모시는 生活觀과, 禮儀와

道徳을 사람됨에 있어 척도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人間들과는 相從조차 않았던
슬기, 樂業과 勤業을 職業의
所信으로 간직했던 우리 祖上
들의 倫理觀을 오늘에 再照明
하여 先人們이 지켜온 전통사
회의 美德과 倫理觀은 어떠한
形態라도 復元되어 維持 存續
시켜야 되겠다.

現行 傳統 婚姻禮의 문제점

婚姻은 順天之理 合人情之宣라 하였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르고 사람은 正義에 핵하는 것이라 하여 男女合體之義요, 男女合體則 男尊則 女尊 男卑則 女卑는 男女平等의 精神이다. 古禮에 糟糠之妻란 귀밀 머리 함께 풀고 六禮를 갖추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終身함을 幸福으로 여겨왔다.

우리나라 六禮란

1. 婚談 : 新郎側과 新婦側이 婚姻할 것을 相議하는 請婚과 許婚의 節次

2. 四禮 : 新郎側이 新郎의 生年月日時를 적어 新婦側에 보내는 節次

3. 擇日 : 新婦側이 婚姻할 日字를 定해 新郎側에 보내는 節次

4. 納幣 : 新郎側이 新婦側에 婚姻禮物을 보내는 節次

5. 大禮 : 新郎이 新婦의 집에 가서 婚姻儀式을 치루는 節次

6. 于歸 : 新婦가 新郎의 집으로 들어가는 節次

위의 節次를 行함으로서 六禮를 갖춘다고 본다.

現在 언론매체를 통해 問題点으로 指摘되는 바 올바른 納幣儀式을 記述하고자 한다.

요사이 四柱를 納幣의 函속



이종욱 /
前 양양향교 총무

에 넣어 보내는데 四柱가 定婚節次임을 안다면 마땅히 納綵(四柱)와 납폐(函보내기)는 区分해서 따로 行하여야 한다.

納綵는 定婚을 하는 四柱를 주고 받는 儀式인 바 兩家의 家族이 人事하고 앞으로의 婚姻 節次等을 相議하기 為해서 만난다면 兩家 家族들만이 한자리에 모여 行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簡素한 納綵는 定婚의 節次임으로 祖上에 告함이 當然하다. 또 양측이 家勢를 誇示하듯이 폭넓게 손님을 請하여 虛禮虛飾의 約婚式은 禁止되어야하며 婚姻은 사람의 만남이지 財物의 誇示는 아님을 銘心하여야 한다.

納幣란(幣錦을 들인다) 禮約을 意味하는데 新郎側에서

新婦側에 禮物을 들이는 까닭은, “선비는 禮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자선비(女士)도 禮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新婦가 新郎을 따라 나서게 하려면 新郎이 新婦에게 禮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禮書에 絲緞은 玄江이었으나 青江을 쓰는데 青은 陰을 의미하고 江은 陽을 意味는데 陰陽色緞을 넣어 陰陽和合을 象徵함이다. 函속에 여러가지를 많이 넣어 財產형세를 자랑하기보다 清江으로 옷 한가지씩 넣어 衆懲의인 禮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이 納幣의 節次는 예부터 嚴肅하고 謙虛하게 치루어왔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서로의 낯을 붉혀가며 옥신각신하는 아름답지 못한 廣景으로 우리 周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잡하고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現代人们에게 약간은 形式에 치우친 옛 風俗을 그대로 再現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소 簡素化하여 약간의 홍도 넣어가며 行하는 禮는 바람직하다. 또 친구들이 가는 것이 慣例로 굳어버렸다면 兩者 婚姻祝賀의 뜻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納幣를 할 때 친구들이

안된다. 우리 後孫들의 정신 속에 그저 우리 것이라면 無視하고 輕蔑하는 思想과 外國것이라면 無條件 좋아하는 思想이 우리의 風俗을 땅속 깊은 곳에 묻히게 만들었다. 最近들어 公職社會에서 일고 있는 新精神運動이 일어나고 있는데 新의 意味를 外來思想에서 찾을까 우려된다. 温故而知新이라는 热語는 옛것을 再吟味

函을 지고 가서 新婦側에 발자욱마다 돈 봉투를 깔아야 밟고 들어가는 行動은 惡習 中의 惡習으로 婚禮秩序를 素亂케 하는바 심히 悲痛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問題는 납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婚需 관계로 驅迫을 받는가하면 심지어 離婚까지 이르게 된다. 이 모든 作態를 金錢萬能主義가 빼어낸 產物로만 보아서는

해서 새로운 것을 찾자는 말이다. 그런데 現代를 사는 우리들은 先祖들의 좋은 風俗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더한층 退步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솔직히 認定하고 옛것을 소중히 여기어 繼承發展하는 風土가 하루속히 이社會에 자리 잡기 바란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선조들의 좋은 풍속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더한층
퇴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2千年代를 맞은 市民像은 어디까지 왔나

창조주의 섭리 속에 2천년대를 맞는 우리시민은 폐허 속에 오늘을 꽂고 과거를 돌이켜 보며 세계의 역사적 현실과 조국의 긴박한 혼돈의 현실을 어떠한 사고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감당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또 피해서도 안될 사명자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속에 한부분의 위치를 감당할 속초시민들은 이 현실 역사에 바람직한 시민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부류를 네가지로 분류해나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며 또 어느 것이 바람직한 시민상인가를 반성하고 또 자신을 가다듬어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으로 정립시켜 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또한 이 지역사회 소망이라 믿는다.

1. 첫째 사명자적 시민상

인간은 유아독존적 존재가 아니라 공생공존의 한 분자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간삶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자신보다는 우리라는 연대적 사고를 앞세우며 인간이 추구하는



윤종국 /
속초지역 개발문제연구소장

모든 것을 공히 향유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쉬지 않고 추진하는 자를 사명자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사명의식이 투철한 자는 남의 눈치나 보며 적당주의로 얼버무려 고난의 현장을 피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가야할 진리의 지표를 향하여 가고자하는 의에 사상이 투철한 자를 사명자라고 할 수 있다. 과연나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때 만족한 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양심을 저 높은 곳에 매고 반성과 회계로 정리하고자 애쓸때가 많다.

2. 두번째 무관심주의적 시민상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에 모든 일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또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할때 부단한 발전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만 국한하는 자가 있다. 이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가든지 나 자신은 알 바 아니고 세월따라 되어지고 갈 것 뿐이다. 나 자신만 생각해서 모든것이 해결되고 충족되고 만족하면 되지 남의 일에 또 나 자신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으면 알아 무엇이 있으랴 이웃집에 불이나고 내 집에 옮겨붙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며 내 이웃의 자녀들이 악의 구렁이에 빠져도 내자녀만 빠지지 않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도 나와는 직접 관계와 영향이 없는 한 무슨 상관이랴. 물질이 풍족하고 내가 사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만이 아니가. 이런 사고의 사슬에 에매인 시민 그중에 한자리를 차지한 자신은 아닌가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볼때다.

3. 셋째 개인주의자적 시민상

인간은 개인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개인개인이 합쳐 가정을 또 사회를 구성 했기에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 가정의 행복과 불행의 두갈래 길을 형성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과 또 우리 국민도 개인은 모래알과 같이 둘둘하고 우월하다는 평은 외국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우월성인가 아니 가정은 풍요속에 육적 행복에 만족하면서도 내 지역의 사회 내 조국의 참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는 뒤전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라면 불행한 시민에 틀림 없을 것이다.

우리의 근세사를 잠깐 들이켜 36년간을 일본의 식민지 생활 속에 단면을 보면 자기개

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형제 내 동포에게 괴롭고 무거운 짐을 지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권세의 틀에 짓눌려 즉개한 망국적 개인주의자가 얼마나 많았으며, 6·25를 통해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 형제의 목숨을 앗아 가게한 인간 배반자적 개인주의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면 지난 이야기는 비정상적인 삶의 현장이기에 그렇게 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 세대는 어떠한가. 오늘도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실담이 되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부류, 금력과 애합해서 자기의 영예를 하늘 끝까지 올려보려는 부류, 이 모든 참 삶의 진리를 역행하는 반창조주적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가! 이 또한 이 지역의 운명을 질 시민양심에 따라 반성해 볼 문제이다.

4. 넷째

인간은 자기 보호가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다. 자기가 존재할 때 가정도 사회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것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쓰다못해 자신의 양심까지 배반하면서 처세하는 부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과 창조주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영위할 인간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목적의 근본 뜻을 아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도가 똑바로 서야 하고 사회는 정의

바람직한 시민상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다.
사진은 제2회 시민 문화상 수상자들.



가 구현 되어야 한다. 이를 부정할자 누가 있으랴.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 왜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보호한답시고 도리어 자신을 망각시키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모두의 주체성까지 자존심 까지 망가시켜 버리는 자는 없는가. 한탄스럽게도 지역사회에 내라고 하는 부류에 속한 자가 아니였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도 많다.

하여간 위의 네가지로 대분 한 현실 시민상을 어떻게 누가 바람직한 시민상으로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당면한 과제라 본다. 이를 기필코 달성해야 하며 할 사명자적 시민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또 자신을 던져 이를 이룩하고자 하는

용기를 십분 발휘하는 시민상이 이지역사회를 일깨울 때가 왔다. 2천년대를 맞는 속초가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바로 정리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역사적 사명을 주어진 분량 대로 감당해 갈 때 지역간의 견제와 세계속에 각광받은 관광속초로 기반을 굳어질 것이다. 이것이 시민모두의 소망인 줄 믿는다.

가로수에도 鄉土의 특징을

우리 고장 속초는 여러 타지방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사는 특수한 도시라고들 한다. 그런 걸 대변이라도 하듯 노변의 가로수들까지도 프라타나스·베드나무·벗나무·은행나무·소나무·단풍나무·히말리아시다 등 다양하다.

다른 도시들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렇기도 하지만 평범함을 말할게 아니라 특징있는 지방을 몇군데 들어 보겠다. 진해하면 벗꽃을 연상시킨다. 이른봄부터 군항제다 축제다 하면서 야단법석 전국이 술렁대고, 울릉도하면 동백꽃 얼마나 고우면 사랑하는 님을 비교하는 노래까지 있을까. 천안하면 삼거리 삼거리하면 능수버들 듣기만해도 어깨춤이 절로 날 듯한 기분이 든다. 이젠 조금씩 가까워져 가볼 수 있을 듯도 한 북녘땅에 있는 영변 약산의 진달래. 소월의 詩가 연상되기도 한다.

가까운 이웃 도시 강릉을 보자.

강릉하면 감의 고장이라던가. 늦가을 잎이 몽땅 다 떨어진 나무에 주홍빛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정겨운 풍경을 많이 본다. 이 감나무를 가로수로 택해 강릉 전 시가지에 점차적으로 식수한다는 말을



지응준 /
설악서예학원장

들었다. 얼마나 멋 있을까. 더구나 대관령 아흔아홉고개의 전설과 얹혀있어 씩 잘 어울릴 것 같다. 특징없는 것이 특징인듯한 우리 고장은 명성은 온통 설악산에 빼겨 버린 것 같지 않은가. 외지에 갔을 때 어디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종종 있다. 속초에 산다고하면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잘 몰라 하다가 설악산이 있는 곳이라 하면 아~ 그렇구나 한다.

사시사철 계절따라 뚜렷한 색상의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설악. 산과 바다의 조화를 이루고 거기다 모자라 호수와 온천 까지 곁드린 명승 아닌가 그중에서도 설악하면 가을단풍을 첫손꼽는다. 그 단풍을 산에 다만 두고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시중에도 모셔오면

어떨까. 그것도 이른봄부터 홍조를 띄우는 홍단풍으로 말이다.

지자체를 앞두고 발전일로에 있는 우리 고장을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술적인 어려움이야 많겠지만 우리의 가로수를 홍단풍으로 가꿨으면 좋을 것 같다.

곁들여 우리 市에 어울릴 수 있는 색상을 골라 모든 건물의 외벽을 정책적으로 통일시키면 어떨까.

금상에 첨화라 하지 않던가. 보다 특색있는 도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킴은 물론 내고장을 찾는 분들께 정겨운 추억을 간직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인상깊은 도시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자 적어본다.



천년지계로 나무를 심고, 백년지계로 사람을 심으라…

지구상에는 인간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동물이 각자
의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 중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
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사고능력과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창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교육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실험정신이 오늘날의 문화
와 문명을 꽂피웠다면 이는 자연 다음으로 위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의 50억 가까운 인
간이 한결같이 그 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은 아닙
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차이에 따라 문명의 발달정도 또
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천년지계
로는 나무를 심고, 백년지계로는 사람(인재)를 심으라…”
라고 말씀하신 선현들의 가르침과 조상님들의 교육열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
열의 결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취지문 중에서

財團法人 一山獎學會



이사장 김종록

理事長

理 事

監 事

金

尹

池

金

李

金

金

鍾

弘

一

鍾

香

其

鳳

綠

烈

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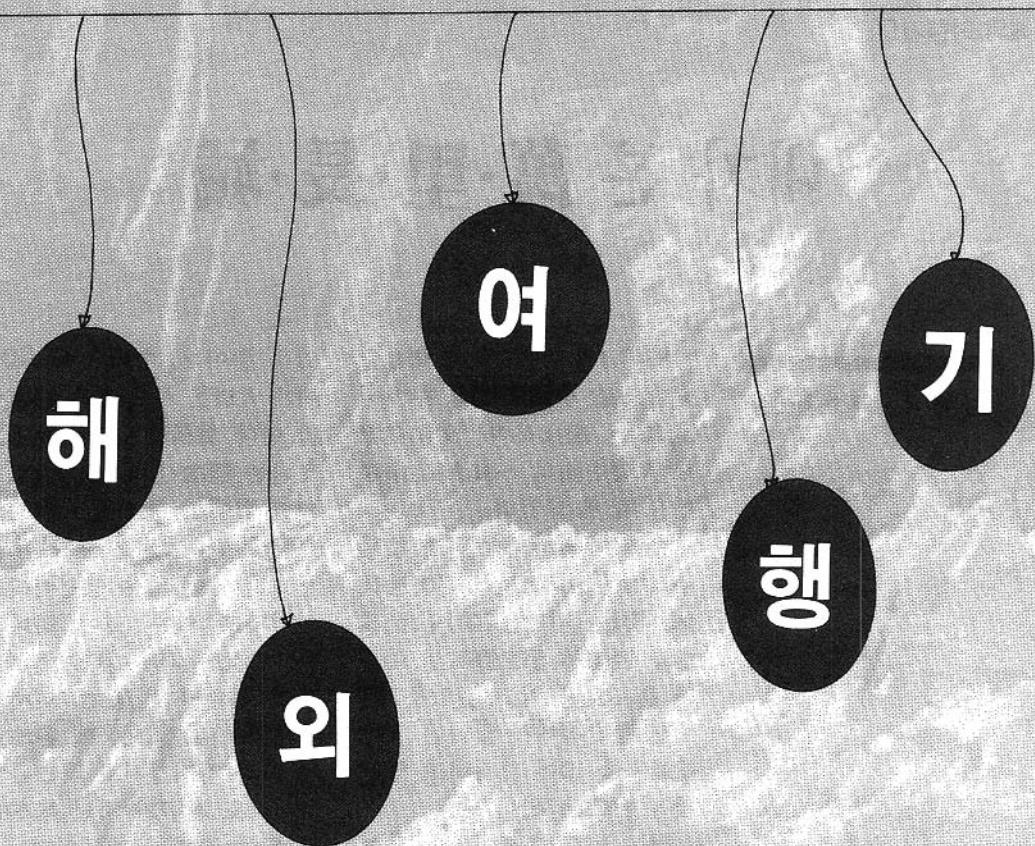
昊

圭

根

明

煥



내가 본 萬里長城

일본을 보며, 그 속셈을 읽으며

내가 본 萬·里·長·城

김용구 / 前 문화원장

89年 4월 韓國文化院 聯合會
主管으로 全國文化院 中에서
32名을 選拔하여 文化交流
親善 訪中國의 一員으로 中國
땅을 豲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中國하면 옛날
부터 大國이라 불려왔고 近代
에 와서는 비단(綢緞) 陶瓷器
書畫 刺繡등 手工藝로서 이름
난 存在로만 알고 왔었을 뿐,
오랜 歷史 속에서 빛나는 文化
遺產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왔다.

나는 먼저 中國이라고 하는
넓은 나라의 歷史性과 地理를
生覺하지 않을 수 없다. 山地
租宗은 崑崙山이요 水之租宗은
黃化水라 하였듯이 江하면
數千里를 흐르고 山하면 이름
난 山들뿐이다.

저 넓은 기름진 땅을 흐르는
江流域에서의 水上生活을 하는
데서부터 遊牧民이 철따라
移動하는 고비沙漠까지 生覺만
하여도 너무나 交差가 甚했다.

곳에 따라 風土가 다르고
言語가一定치 않다. 뿐만아니
라 氣候에서부터 人間心理까지
도 모두가 다르다.

世界人口의 1/4을 차지한다
고 自稱하는 中國 사람들, 이
中에는 아직도 戶籍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저 살고만

있을 뿐이다. 中國人 GUIDE
에게 人口를 물으니 約 14億이
라 한다. 算術의 人口를 算定치
못하는 理由가 여러가지 있겠
지만 위에서 言及한 大陸의 인
点도 生覺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넓은 땅덩어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있
다. 그것은 漢字이다. 漢字는
煩雜 하지만 表意文字로서의
論理性이 있기 때문에 各地方
에 따라 가지가지로 發音된다
하더라도 漢字가 지닌 基本的
인 뜻은 通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中國이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빛나는 文化와
끈기있는 大陸性氣質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돌아본 곳은
홍콩, 鵝林, 滿洲, 西安, 北京,
上海 그리고 黃州였다. 가는
곳마다 航空을 利用하지 않고
는 그 넓은 땅을 다닐 수가
없다. 山水가 秀麗하기로 세계
에서 빼어난 鵝林은 街路樹부
터가 온통 桂樹나무이고 數千
리를 흐르는 離江邊의 山川은
그야말로 風景如畫로서 이를
다 筆設로서 表現할 수 없다.

鵝林文化院의 招請으로 中國
固有의 曲藝와 魔術을 觀覽하
고 떠난 곳이 바로 古代 실크
로드 交易의 重要한 中繼地이
자 人類最初文明의 하나인
黃化文明을 誕生시킨 蘭州의



땅 鵝林과의 거리가 먼 탓인지 初夏에서 晚冬의 體感을 받게 했다. 한나라 땅덩어리지만 아직도 土窟生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때마다 隔世之感이 들었다.

다음에 간 곳이 말과 책에서만 듣고 보던 11代 王朝 1,000年의 都邑地 西安이다. 西安은 中國 6대 古都로 불리우는 古都중의 古都로 옛 이름을 長安이다. 특히 中國歷史上 周秦韓唐代는 西安 最大的 全盛時期를 누렸던 年大였다. 그 規模面에서도 斷然 世界最大를 자랑하였는데當時로마의 3倍크기에 이르렀다하며 東洋帝國은 勿論 世界의 많은 나라가 長安의 都市構造를 본받아 首都를 建設하였다고 한다. 또한 位置的으로 볼 때 「비단 길」이 출발한 中國中心地에 있어 希臘系의 基督教文化 印度系의 佛教文化 中東地域의 이슬람 culture. 中國의 儒·道敎文化等이 모두受容되어當時로서는 世界 모든 文明이 交叉하는 文化的 中心 役割을 한 곳이다.

西安의 遺蹟地는 이루 다해아릴 수 없고 내가 본 中에서 몇 個所만을 大綱 추려본다면,于先 世界不可思議의 하나인 秦始皇의 兵馬俑과

牌林 그리고 秦皇陵 · 大雁塔 · 長安城 · 華清池 및 楊貴妃遺蹟만을 紙面關係도 있고 해서 言及하여 본다.

西安에서 車로 40余分 달리면 地下의 宮殿 軍團을 이룬 秦兵馬俑 第1號坑에 到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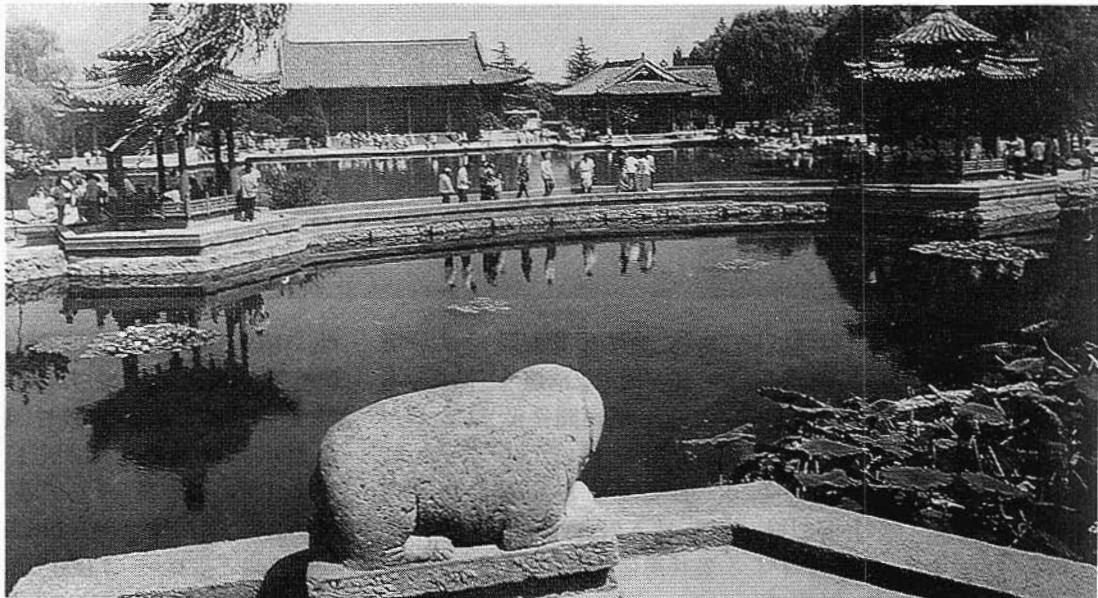
살아있는 傳說로서 秦始皇의 巨大한 地下宮殿, 兵馬俑의 威容을 볼때 나는 濛胧한 꿈에 사로잡혀 虛像을 보는 것만 같았다. 各坑마다 到列한 兵士는 크기가 平均 1.8m 程度로 當時 兵丁들의 貌囊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氣勢가 충만되어 있을 뿐아니라 2,000年的 神秘스러운 壮觀을 나타냈다. 모두가 “갑옷”을 입고 秦始皇을 호위하고 있다. 兵馬들의 姿勢는 활을 쏘는 姿勢, 칼을 든 姿勢 等 多樣하며 長安을 지키는 首都 警備兵과 將軍像 武士像 砲射像 立射像 그리고, “말”과 戰車等 갖가지 數많은 洞을 볼 때果然 秦始皇은 死後에도 地下에서 100萬 軍團을 거느리는 皇帝로서 王臨하고 있었다.

2,000年間 地下에서 沈默으로 그들의 歷史와 民族을 지켜온 保衛軍團의 查閱을 받고 있는 皇帝의 權勢와 威風은 「史記秦始皇本紀」에 記錄된

바 그대로서 期間의 傳說 아닌 傳說이 現實로 드러났다. 現在 까지 發掘된 文物의 數는 1,2,3號坑과 車馬坑에서만도 戰車 13輪 馬車를 끄는 “말”이 500匹 騎兵隊 말이 116匹 騎馬兵과 步兵이 7,000余名 그리고 青銅器가 10,000余点이라 한다. 이 兵馬俑이 世上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其規模와 內容을 찾을 수 없고 어느面에서는 오히려 迷宮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 한 時代의 歷史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實感케 한다. 아직도 地下에 무엇이 어떻게 묻혀져 있는지는 미지수다.

秦始皇陵은 兵馬俑 近處 1.5km 地點에 있다. 皇陵은 外城의 길이가 6.2km 內城이 3.3km나 되는데 皇帝在偉時에 年70萬名式 이 勞役에 勤員되어 36年間에 걸쳐 이루어졌다 고 한다. B.C210年 여름철에 死亡한 秦始皇陵 안에는 물이 있고 그 위에 金銅으로 된 棺속에 死體가 鞍裝되어 있다는 것이다.

秦二世(둘째아들이 皇帝가 됨)는 秦始皇宮內의 宮女中 아기가 없는 者는 모두나 墓안에 殉葬한 채 電을 封鎖했다는



事實에 對하여 이제까지 半信半疑해 왔으나 最近의 考古學界에서는 端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證明되었다. 唐初의 높이는 120M의 能墓였으나 오랜 歲月속의 風雨 等으로 지금은 80m밖에 안된다. 아직 까지 開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巨大한 地下文物을 整理할 수 있는 科學的技術과 分類作業水準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中國各處에 散在한 數千의 地下寶庫도 位置나 規模를 알면서도 손을 못 댄다는 것이다.

다음은 2,000年史를 한눈에 볼 수 있는 西安의 碑林이다. 文字 그대로 碑石의 金을 이루고 있는데 唐代의 名筆石刻이 라는 데서 其價值가 높게 評價된다. 天下의 名筆들의 牌는 唐代以後 金·元·明·清代의 著名한 牌石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았는데 唐玄宗(745)이 쓴 石經에서부터 王羲之의 興福寺殘牌와 孫令權의 神道牌

等 2,300余點이나 되는데 牌의 크기가 大概 15尺 內外되는 石刻들이 즐비하게 集列되고 있었다. 2,000年的 歲月이 지난 이 牌石들은 우리에게 書藝史的 價值뿐 아니라 문화·경제·외교·정치史에 걸쳐 學問的인 研究의 對象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228面의 石版刻으로 된 65萬字의 「唐開成石經」과 唐代의 「大秦景交流行中國牌」(中國과 시리아間의 基督教의 호름인 景教가 流入된 過程을 담고 있음) 또는 「唐廣智三藏牌」(印度의 밀교가 어떻게 中國 日本으로 傳해지게 되었는가를 적은 來歷)을 為始한 無數한 石刻들이 史的面에서 重要한 根據가 되고 있다.

한편 彫刻 美術의 側面에서는 篆·隸·楷·行·草書等 數千年間의 書體를 眺望할 수 있고 또한 牌刻의 아래, 위, 옆에 새겨진 裝飾紋樣等은 其때의 藝術性을 더한층 빛나

게 하고 있다.

다음은 世界 10大 名塔中の 하나가 西安의 大雁塔이다. 唐太宗이 어머니 文德皇后的 恩德을 기리기 為하여 唐高宗 때 印度의 高僧 玄奘法師가 創建한 慈恩寺乃에 小雁塔과 같이 세워져 있었다. 唐初에는 벽돌로 10層이었는데 지금은 7層뿐이다. 높이가 65m 形態는 樓閣式 方形塔으로서 造形美가 古雅하고 清朴하게 보였으며 塔을 바라볼 때當時의 佛教가 얼마만큼 隆盛했는지를 실감케 했다. 小雁塔은 13층에 높이 44m의 正方形으로 이루어진 벽돌 塔이다. 이 塔의 事緣인 즉 옛적에 地震이 나서 東쪽部分이 갈라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地震에 依하여 元來의 塔대로 합쳐 졌다는 天合, 即하늘이 합쳐져었다는 內容이다.

西安은 七區六縣에 面積 9,800平方 現在 人口 530萬. 明大에 長安으로 西安으로

改稱되면서 부터 區劃된 옛 都市 構造 그대로다. 얼핏 보면 現代에 와서 區劃된 都市 構造 같은 錯覺을 일으킬 정도로 四方이 바둑판처럼 直線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西安을 끼고 흐르는 渭河의 近處에는當時 700余個의 阿房宮이 있었는데 지금은 廢墟로 남아 있으나 이것이 火災로 3個月間이나 됐다고 하니 可히 其規模가 어마어마 하였음을 斟酌할 수 있다.

長安城은 當時 世界最大의 城郭이다. 東西의 길이가 1km, 남북이 10km, 全體가 40km나 되는 巨大한 城壁인데 높이가 12m, 燈이 18m로 五車線 車道만 하고 中間사이사이에 樓閣이 서 있으며 唐代는 土城이 든 것을 明代에 벽돌로 逐條된 것으로서 城 外廊圍에는 깊은 水深의 濠를 파서 外敵이 侵入할 수 없게 하였다. 城의 東西南北에는 4大門을 두고 그사이마다의 小門을 合치면 18門이 있고 東西南北樓와 鍾塔 鼓塔이 있어 낮에는 鍾을 밤에는 북을 쳐서 4大門을 열고 닫게 하였는데 북 10번 치면 門 10개가 닫혔다고 한다. 또한 실크로드의 出發點이 바로 이곳이다.

西安에서 西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驢山이 있고 唐代 第2의 宮殿인 華清宮(塔華清池)이 있다.

이곳은 名稱 그대로 華麗하고 清明한 氣運이 充滿한 크고 작은 宮殿과 沫(池) 그리고 30余채의 亭子외에도 18個의 温泉水湯을 비롯하여 大小健物

들이 아름다운 舫으로 둘러싸여 있다.

唐代皇帝의 行宮으로 千古風流의 榮辱을 간직한 곳이다. 周幽王 때 健立唐代에 이르기 까지 宮名이 몇번 改稱되어왔으나 唐玄宗때 많은 健物을 짓고부터 華清宮으로 됐다.

亭子마다 지붕들이 마치 제비의 날개같이 飛上의 姿態로 曲線美를 나타내면서 古典的體臭가 풍기는 像牙하고 미려한 建築尾가 지난, 3,000余年の 精趣를 머금고 九龍湖에 물그림자되어 하늘거리니 문득 玄宗과 楊貴妃의 익힌事緣이 머리에 떠오른다.

나는 楊貴妃의 寢室이었던 飛霜殿과 그 앞에 그려져 있는 楊貴妃의 壁畫를 돌아보고 西安事變時 莊介石總統이 1時邊身하고 있는 五間도에 다다르니 當時의 유리문에 銃彈의 痕迹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었다. (이곳 장착장에서 莊介石이 逮捕됨) 華清池에는 水溫 43度의 温泉水가 솟아나는 18個湯이 있는데 皇帝의 沐湯인 御湯, 太子가 쓰는太子湯, 皇帝의 妃嬪들이 利用하는 妃子湯等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楊貴妃專用湯을 으뜸으로 꼈다 한다.

楊貴妃는 언제든지 沐浴할 때마다 温泉水에 牛乳를 타서 몸을 씻는것으로 傳해지고 있는데 하절에는 興慶宮에서 (華清池와 같은 規模) 겨울철에는 華清池에서 榮華를 누리면서 지낸곳이다.

여기에서 楊貴妃에 대한來歷을 簡略하게 記述하면

本名은 楊王環이고 蜀나라가 故鄉이다. 그의, 나이 17세때 玄宗의 18번째 아들(壽王瑁)의 妃가 되었었다.

唐玄宗은 天下의 絶色인 며느리에 惑해서 깊은 山寺의 女僧이 되게 한 다음, 740年 10月에 玄宗의 부름을 받고 當時 玄宗이 머물러있는 華清宮으로 오게 된 것이다.

絕世美人 楊貴妃는 玄宗의 마음을 사로 잡아 그의 오빠 楊國忠까지도 큰 벼슬에 오르게 하나 政事도 어지러워지고 玄宗도 酒色에 빠지게 되자 이에 各地에서 清君論이 있게 되면서부터 15年間의 戰亂(安祿山亂) 끝에 榮華를 누리고 莫強한 權力を 쥐고 혼들던 楊貴妃도 結局 38歲를 마지막으로 馬魂鎮에서 龍愛하던 玄宗의 賜藥을 받고 755年에 世上을 떠났다.

玄宗은 그의 死後에도 恒時 楊貴妃를 잊지 못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그 넋을 달래기 為하여 馬鬼坡에 世上 사람의 눈을 避하여 暗移葬한 곳이 바로 지금의 楊貴妃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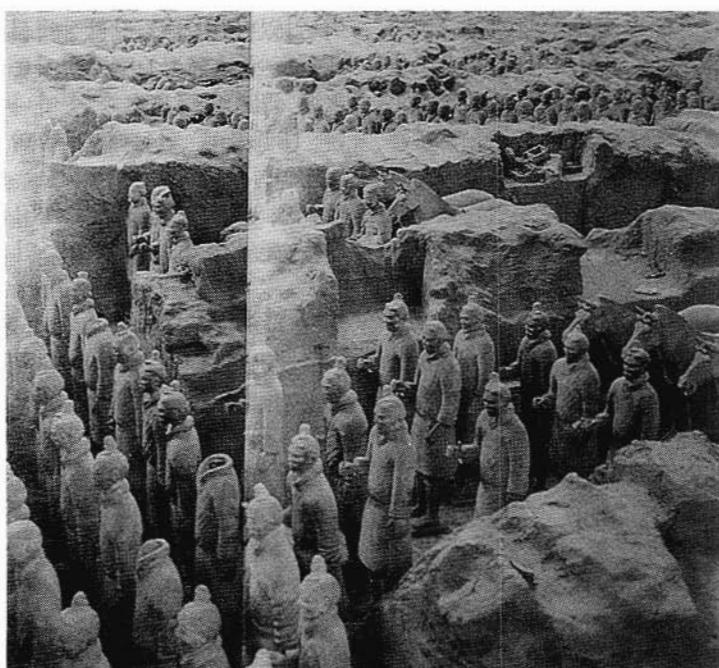
楊貴妃가 中國의 4大 美人으로 指目된 것은 其의 美貌가 말해주듯 약간 뚱뚱하면서도 훤칠한 키에 아글아글한 눈 그리고 우유빛 살결이었는데 가끔씩 고개를 살짝 뒤로 돌리면서 생긋이 웃을 때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15夜 달밝은 밤에 그녀가 宮內를 걷노라면 中天에 뜬 “달”도 無色해서 스스로 구름을 가린다는 唐나라 詩人 李太白의

글이다.

楊貴妃의 墓는 本來 繢으로 분상했었는데 한 處女가 하도 얼굴이 못생겨 電도록 시집을 못가게 되자 이를 悲觀한 끝에母女가 楊貴妃墓앞에 엎드려痛哭하니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흘린 눈물에 흙이 묻었기에 얼굴을 씻고나니 今時에 美女로 變했다는 것이다. 其後부터 이 事實이 온 世上에 알려지게 되면서 各地의 女人們이 楊貴妃墓土를 한줌씩 가져다가 바르게 된 것이 歲月이 흐르면서 漸漸 墓의 痕迹을 찾아

볼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網(그물)을 씌웠는데도 그래도 夜半에는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되자 지금의 시멘트로 封할 수 밖에 道理가 없었다는 것이 그 理由이다.



일본을 보며, 그 속셈을 읽으며



朴明子 /
詩人, 교동국교 교사

1989년 8월 15일
칼(KAL) 704. 2천 피트
상공에서 기창으로 내 조국
산하를 내려다보는 감회는
결코 단순하지 못하였다. 조상
대대로 땀 흘려 가꾸어 온
문전 옥답이 저만치 내려다
보이며 사시사철 울울창창
수목과 지하자원을 보듬어
온 산맥이 점잖게 누워있는
내 조국 산하가 어쩐지 연민이
되어 가슴 안으로 파고 들었
다. 산 꿀꿀마다 가르마 같은
길을 만들어 이웃과 정분을
나누었고 푸른 젖줄을 꺼내어
곡창을 살찌게 하였던 조상의
슬기와 땀이 안스럽게 느껴짐
은 어인 일인가.

기체가 점점 높이 오르자
구름밭인가 목화밭인가 포근
포근한 햇솜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이건 고향 어머님
무명 저고리 앞섶인가 저멀리
빙산인가 아득한 운해 속으로
조국산하를 내려다 보려니
한없이 가슴이 넓어졌다.

이 좁은 땅덩이 속에 한
민족이라는 공동 운명체에
얽혀 한 민족이라는 공동 운명
체에 얹혀 살면서 결코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형제들, 명주실 같이 질긴
인연의 집착에 걸리어 그리고
괴로워 가슴을 짜고 그리고
눈물을 감추며 살아야 했을
까.

어느듯 내 가슴도 보드라운

운해가 되어 어떤 미움도 어떤
아픔도 쓸어 안을 듯 화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바다가 되어
출렁이는듯 하였다. 우리 일행
을 태운 칼(KAL) 704는 1
억2천만 인구 우리의 우방
일본 열도를 향하여 8월의
햇살을 눈부시게 은빛 날개에
반사하고 있었다. 인구는 아시
아의 1/10도 안되면서 GNP
는 아시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일본. 세계 부의 1/
10을 차지한 일본을 두루 돌아
보며 우리에게 없는 것, 내게
모자라는 그것을 살살이 찾으
리라 나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
다.

그 위치는 우리와 가장 가까
운 동양권에 속해 있으면서
정신문화 과학문명은 서구를
뛰어 넘고 있는 일본, 어쩌면
세계 전체를 손아귀에 움킬지도
모르는 위험 수위를 느끼면서
그 무엇이 저력이 되어
오늘의 일본을 일으켰는가
그 근원을 들여다 보리라는
날카로운 메스를 몰래 갈고
있었다. 드디어 일본 인구
1억 2천만 가운데 1천2백만
인구가 집중된 도시 동경 나키
다 공항에 도착하였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고층에
서 동경시내를 내려다 보았다.
그 호텔이 변두리에 위치
하였던지 낮은 하늘에는 까마
귀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띠였다. 언젠가



참다 참다 더는 못참는 한이
끓고 끓어서 이렇게 연기로
피어나는 누구의 모습이
보이네

장호 시인의 “동경 까마귀”라는 시를 모 지면에서 읽었을 때 동경같은 세계적 도시에 무슨 까마귀가 있을까? 일본의 운명을 상징적 새로 표현했는지 의아한 느낌으로 그 시를 읽은 적이 있다. 동경 시내에 오래 묵은 고목이 우뚝 우뚝 솟아 까마귀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러가지 착잡한 심경에 뒤적이며 불면의 긴밤을 새우고 다음 날 명치신궁을 향하였다. 때마침 이슬비가 내리었고 기온은 점솜같이 답답하게 몸을 조여왔다. 울창한 수목에 휩싸여 음침하게 보이는 명치신궁을 바라보는 감회.

쇄국정치로서 전통을 고수하려는 일본의 속셈 그 무슨 음모와 계략이 사마니즘의 잔재 속에 숨어있는듯 하였다.

다음날 하코네 행. 화산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낮으막한 산이었다.

우리의 문화가 농경 문화라면 일본은 상인 문화라는 점이 여기서 또 증명되었다. 화산을 지닌 지역적 악조건을 관광으로 팔아먹는 특유의 그 속셈을 읽으면서 나는 메모장에 즉흥시를 끄적여 보았다.

“하코네에서”

1740m 상봉에서 신비한 연기가 솟아 오르네.

아득한 기원 전인가.

수억년전 용암이 끓어 넘치던 혼적이 예 남아
오늘 계란을 익히는 열기.

천길 지하 깊은 곳에서 무슨
한이

그리도 깊었던가.

화산 폭발소리 그 열기 그
불꽃

참다 참다 더는 못 참는 한이
끓고 끓어서 이렇게 연기로
피어나는 누구의 모습이 보이
네.

다음 행은 아시 호수

우리 일행은 해적선처럼 생긴 관광선을 타고 푸른 호수의 가슴을 가르며 달리었다. 아시 호수는 바다인가 착각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호수를 둘러싼 푸른 능선은 수 병풍 같았으며 융단 같은 잔디는 초록 비단 이불을 펼친 듯 아름다웠다. 아시 호수는 부드러운 여신이 실크 치마자락이라 할까 눈부시게 푸르름이 내 망막 속에 오래 오래 젖어 있었다.

지상에서 가장 어여쁜 이
내게 하나 있다면 이 호숫가에

서 마지막 삶 그 축배의 은잔
을 들어 올리리라.

그날 나는 아다미 호텔에 여장을 풀고 실내 온천장에 몸을 잠그고 전면 유리창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빛깔을 뭐라고 표현할까 비취 옥빛이라 할까.

투명한 남국의 바다 그 날 바다 표면에 내려딛는 헷살은 올이 금싸라기였을까. 부를 누리고 삶을 구가하는 소수 층에 대하여 나는 슬그머니 분통이 솟구쳐 올랐다. 내가 난이 대비되어 참담한 굴렁을 헤어날 수 없었다.

아다미 호텔은 바다를 향한 기암 위에 세워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바다로 내려가는 산보길은 영화촬영 세트처럼 곳곳에 가로등 바위들 사이사이 붉은 꽃이 어울려 뇌리 속에 각인된 한 폭의 그림처럼 잊을 수 없다.

다음 일본인 마음의 고향
교또.

일본의 천년 수도였던 고도, 신간선을 타고 얼마를 달리었더니 금빛 의상을 걸치고 호수까지 마중 나온 집이 있었다. 금각사였다. 은밀한 저 건물 안에 사리를 뇌시되었으니 작년에 보수 작업을 마쳤다

한다.

다음 나라의 동대사를 거쳐
사슴을 방목하고 있는 사슴
공원에 들리게 되었다.

사슴을 보면서 즉흥시를
써 보았다.

사슴 공원에서

관이 높아서 귀족이라는
너

여기는 원시의 초원인가
인간은 문명에 공해에 찌들
었다만

너는 여직 순수 초원에서
눈망울이 곱구나
목이 길어서 욕심을 초월했

는가

내 양손의 문명을 놓아 버리
고

네 순수의 관 앞에 무릎
꿇을지니……

마지막 코스로 오사카 성
화산도 성도 관광으로 팔아
먹는 일본.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
그러나 가장 먼 나라 인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지역적 악 조건을
딛고 땀과 노력으로 오늘을
일으켜 세계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감각적이며 알고 산뜻
한 형식미의 일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명분보다는 실리를 앞세우는
일본 문화 그러나 이율 배반으
로 현실적 힘의 논리가 수반되
지 않는 전통을 고집하는 현상
가는 곳마다 민속 신앙인가
미신인가를 모시는 불합리성.

처음에는 상냥하고 연색하지
만 깊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그들.

일본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사상이 과연 언제까지 번영의
길로 나아갈까. 착잡한 심정으
로 내 조국 땅을 밟으면 고향
집 뒷마루에 돌아온 안도감을
느끼었다.



「教壇」동우회

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교사의 꾸준한 자기연찬과 정보교환은 교육의 성과 거양을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 하겠다.

교단동우회는 1985년 가을, 당시 속초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혈기와 의욕이 넘치는 몇몇 뜻있는 젊은 교사들에 의해 발기되었다.

1986년 3월, 회원 11명의 논문, 시, 사진 작품을 모아 「教壇」 창간호를 펴내게 되었는데, 편집책임을 맡았던 趙珠顯은 창간사를 통해 ‘부끄럼없이 교단에 서는 일상이 타성으로 굳어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임을 일깨우면서 ‘서툰 희생이 아닌 자성과 극기의 장’이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교단동우회의 취지와 나아갈 길을 암시하였다.

교단동우회는 회장도 회칙도 없는 교사들의 모임이다. 필요할 때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단의 모임을 주선하고, 회원 동정을 안내하고, 「교단」을 출판하는 모든 일은 편의상 편집책임자가 대행한다.

1987년 2월에 발간된 2집은 필자가 편집책임을 맡았는데 ‘교육에 관한 많은 장서가 있고 교육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은 모두 교육의 틀을 규정 짓는 외형일 뿐, 교단에 서는 교사에 의해서만이 교육은 변화될 수 있고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교사의 꾸준한 자기 연찬은 의무인 동시에 가치’라고 발간사를 썼다.

본회 회원들은 모두가 공립학교 교사이인 관계로 그간 많은 회원들이 춘천, 삼척, 정선, 고성 등지로 전출하게됨에 따라 처음 모임에서 예정했던 대로 속초고등학교를 탈피, 강원도의 교단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제3집의 편집은 張承鎮이 맡았는데 ‘교사집단이 가장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집단’이라고 전제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없음은

곧 우리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빠져드는 매너리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단은 뿌리 내리는 단계를 벗어나서 제 색깔과 모습을 갖춰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할 단계’임을 선언, 그야말로 「묶어내는」 작업에서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3집까지 나오는 동안 崔志崑 당시 속초고 교장선생님(1990, 2월 정년퇴임)께서 격려사를 써 주셨다. ‘오늘이 갖는 교직생활에서 교육생활로 탈바꿈하는 아주 작은 「교단」의 책자는 교육인이 갖추어야 할 생명력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많은 교육인의 멋과 맛이 「교단」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린다’는 창간의 격려사를 비롯하여, ‘교육인도 외형적 장식의 화려한 유형 때문에 내면적인 나의 문화가 도전을 받아 삶의 가치체계가 흔들려서 그저 중등 교과서가 자신의 교직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이 젊은 교사들이 자아를 심오한 교육세계로 이끌어 가고자 기존의 문화를 이리 모으고 저리 바꾸어 자신의 영혼을 부여하는 작업을 함에 이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진실만이 후대에 물려주는 유산」이란 能攝의 진리에 입각한 학술적인 모임입니다. 자아의 교육인생을 다듬어 가는 선생님들의 가치문화가 교육하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강원교육의 왕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등 무수한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다.

본 회는 매년 출판기념회를 겸한 회원전체 모임을 가져 출판기념연 및 「교단」간행에 대한 반성, 개선점,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차기 편집책임자를 추천한다.

이때는 각자의 자유의사로 개진하고 의견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과 부당성, 장점과 단점, 찬성과 반대 토론을 벌여 한개의 안으로 통일, 귀결시켜가는데 묵시적으로 만장일치제

이러한 열정과 아울러 엄상빈의 맥킨리 등 정, 류석구의 동유럽 해외연수, 이용호·양승언의 학습지도 우수사례 발표, 장승진의 영어교과 시범학교 운영, 조주현의 문학교육의 효율적 방안을 위한 공개 세미나, 조회삼 선생님의 학교운영 성공사례 발표 등 지난 한 해에만도 분주하고 보람있는 활동들이 많아 자랑스럽다.

제5집(1990년도)의 편집은 严湘彬이 맡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한 새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와 논문을 특집으로 꾸밀 예정이다. 또한 창립 5주년을 맞은 이 학술모임은 점차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지방문화의 발굴과 탐색이라는 향토성을 표방함으로써 교육이라는 현장의 현안문제를 탐구하고, 강원도라는 향토를 탐색하여 명실공히 강원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교단」은 인내와 노력이며, 반성과 관심이다.

「교단」은 욕심도 권위도 아니며, 희망도 명예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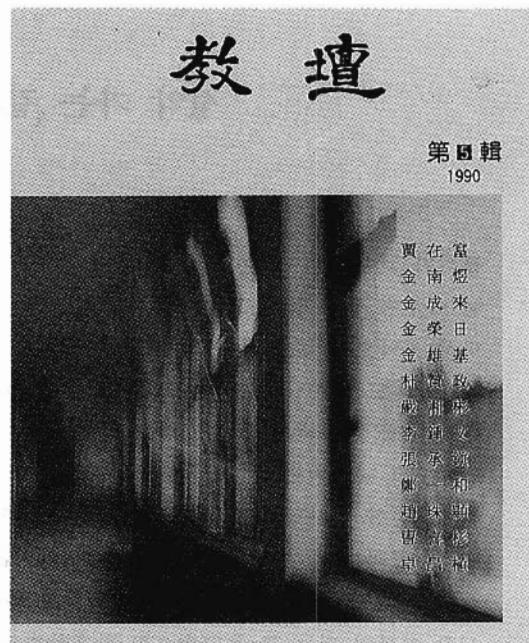
보다 넓게 생각하고, 보다 높게 보고, 보다 깊이있게 가르치기 위한 다만 하나의 디딤돌이요, 발판이라는 것. 우리 회원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

현재 회원은 20명.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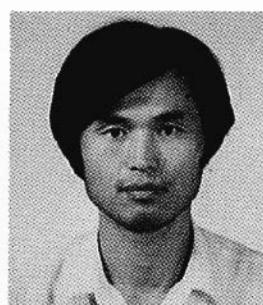
賈在富(사회, 속초상고) 金南煜(국어, 고성고) 金時鉉(영어, 속초여고) 金英日(영어, 춘천고) 金永基(국어, 춘천고) 朴찬정(생물, 간동고) 柳錫九(물리, 속초여고) 梁承彥(국어, 강원사대부고) 严湘彬(수학, 속초상고) 李龍湖(국어, 양양고) 李鍾文(국어, 정선여고) 張承鎮(영어, 동광농고) 張泰重(윤리, 속초상고) 鄭珖燮(미술, 속초상고) 鄭一和(역사, 삼척고) 趙珠顯(국어, 춘천고) 曹喜彬(역사, 하장고) 崔鍾國(미술, 속초여고) 卓昌植(역사, 속초고) 洪文杓(생물, 속초고)

를 채택하고 있는 바 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본적은 한번도 없다. 어떤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에 이런 회의 모습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초현실주의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신비로웠다고 술회한다. 그는 이 회의 방식에 매료되어서인지 그후 회원이 되었다.

1989년 12월에 발간된 제4집은 새 회원들의 가세에 힘입어 그간 160쪽 내외이던 「교단」이



230여쪽으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향상을 보았다. 편집책임자 金南煜은 '교육은 자각에서 비롯된다'면서 '교육은 실천 과정이며, 그 과정의 순수성과 정열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며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최종국

이 글을 쓴 최종국 선생은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교단동우회 회원이다. 최선생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이 「교단」지를 통해 주로 우리의 미술교육실태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설악 가는 길

들어가 보아라

늘 아프던 집과 봄 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듯 설악 가 보아라

아래 웃 도문 지나 노루목 이르러 세상 한번 힐끔 돌아보고

나이 먹듯 조금씩 몇날며칠 들어가 보아라

인내씻고 내다버린 듯 별 쳐다보고 잠들며

길 잊고 산 잎사귀로 밑 닦고 짐승의 내 나야

수 천 골짜기 중 한 골짜기 뼈끔 열어 보이는 설악 깊이 그립도록 가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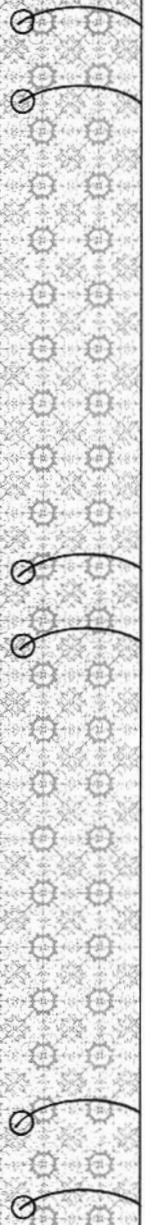
석이 능이 구엽초 자라는 가야동 골 사향노루 깍깍 우는 달빛 아래

산죽 이파리 떠는 큰 무덤속으로 황홀하게 들어가 보아라

그렇게 몇날며칠 가 보아라



東
草
丈
藝
雲



그립다 그 한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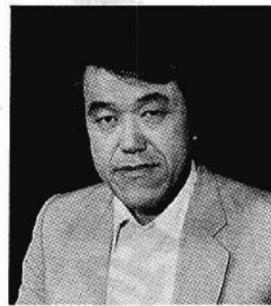
할 말은
그립다
그 한 말

강을 보았으리.
산을 보았으리.

이제는 사람
그리워
그 한 말

그대 알 수 없는 나라
멀리 간 후로

할 말은 오로지
그립다
그 한 말



최명길 / 詩人

〈약력〉

- 1940년 강릉 출생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75년 「현대문학」지로 등단
- 시집으로 「화첩사」「풀피리 하나만으로」가 있고 명상시집으로 「바람속의 작은 집」이 있다.

만나고 싶은 사람

- 땀장이

그의 일터는
두 무르팍 사이.

박종현 / 詩人

풍로에 타오르는 숯불이
휙휙 숨을 모을 때
때 묻은 냄비나
구멍 뚫린 양은 솔이나
못쓸 것들이
그에게로 오면 생령(生靈)이 되었다.

두 무르팍에 걸친 낡은 갑빠가
연륜(年輪)만큼 구멍이 승승나고
불인두는 푸른 녹을 뿐어
질기디 질긴 우리의 삶을 이어 오더니
이제는 볼 수 없는 땀장이
그는 어디에 있는가.

뚫어지면 버려야 하고
찌그러지면 내던져야 하는
새것만이 판치는 세상에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지.

비틀어진 것을
외틀어진 것을
뚫어진 것을
깨어지고 떨어진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고치고 손보느라
지금
어느 골목어귀에 앉아
황혼이 들도록
앉았는 거다.

〈약력〉

- 〈현대시학〉추천
- 전, 고성고교 교사
- 전, 〈설악신문〉 발행인

山寺로 가는 밤길

바삭마른 가랑잎 사이로
별하나가 반짝입니다.

파란 솔잎 사이로
또 하나의 별이 반짝입니다.

별은 나뭇잎 사이길로
산사를 향하여 걸어 가고 있습니다.
별은 시냇물을 밟으며
나뭇잎 입에 물고 걸어갑니다.

산사에서 흘러오는 불빛은
가랑잎에 앉아 조을고
별 하나는 또 솔잎에 앉아
소쩍새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상철 / 詩人

〈약력〉

- 경기도 여주 출생
-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서예 개인전 1회
- 한성 예술원 초대작가(세예)
- 시집 “그대 영혼을 위하여” 출간
- 월간 「우리문학」으로 등단
- 하일라 리조트 근무

壯元

雪嶽靈神鎮我東 民安國泰千辭祝
年々祭祀心同農富漁豐萬丈功

水陸交通無故裡 至誠然後天須感
江陰市魯岩洞 袁士玄
商工貿易復興中 文化傳承永不窮
三者全振惠

第十五回 雪嶽祭慶祝漢詩白日場 詩題雪嶽祭 押東同功中窮

정서: 정원철
번역: 이종욱

설악의 영신이 우리나라를 누리니 해마다 제사를 한마음으로 같이 하도다. 국태민안을 천가지 말로 빌고 부농과 풍어를 열심히 빌도다. 수륙교통무고하면 상공무역 부흥하고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니 문화가 전승하여 영원히 궁함이 없다.

삼성 김진덕 / 강릉시

名區勝槩平和上
石壁淡光卷化中

次上

從此賞人連不止
繼承發展永無窮
星坡李建晉

山高水麗海東
祝祭衣冠左右同
襄陽是舊面金闕

興寺鐘聲明舊俗
青峯漱氣繞新功

높은 산 맑은 물은 동해에 있으니 축제의 관은
좌우에 있도록 신흥사 종소리는 옛 풍속을 밝히고
대청봉 맑은 기운은 새공을 두르더라. 아름다운 땅은
평화위에 승계했고 석벽은 태화 가운데 담담한 빛
일러라. 이를 쓸아 상존한 사람에 연하여 그치지 않으
니 계승하여 발전함이 무궁하도다

• 경초 이종욱 / 속초시

風景超乎千里外
觀光來此萬邦中

年々祝祭文明事
舉手宦民福不窮

敬草李鍾旭

畫嶽佳名冠海東
精靈秀色古今同

楓林紅紫天然裡
巖窟崔嵬造物功

次下

성파 이건진 / 양양읍

설악의 아름다운 이름이 동해에 으뜸하니 정령의
수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도다. 단풍은 수풀에 붉고
붉은 것은 천연속이요 바위의 뿌리가 높은 것은 조물
의 공이로다. 풍경은 천리밖에 뛰어났고 관광은 만방
에서 오더라. 해마다 문명산업을 축제하니 모든 관민
은 무궁하리라.

유명한 설악산이 단군이 세운 우리나라니 축제를
봉행함에 온동포가 같이 하더라. 다만 한꼴에 있을
흡모함이 아니라 능히 팔역으로 하여금 그 공을 사모
하게 하더라. 융화하는 사상을 고취하는 속이요, 단합
하는 정신을 배양중이더라 높으신 산령이 응당어
듭지 않으니 장차 여음을 드려 영원히 무궁하리라

● 만성 김진욱 / 양양군

佳作

有名雪嶽擅玉東
非但一鄉欽此事
祝祭奉行舉族同
令能僕慕其功

融和思想鼓吹裏
團合精神培養中

陟降山靈應不昧
將童餘嬉永燕窮
襄陽翼陽面桃花里
晚松金振郁

佳作

雪藏高峰冠我東
巍巍偉像古今同
瀑聳聳々雷霆動
石韌蒼蒼造化功

無双絕景神僕界
祝祭行事永無窮

三陟新近德面交柯里
南漢金圭吳

● 남계 김규영 / 삼척군

설악의 높은 봉우리가 우리나라에 으뜸하니 높고
높은 위에 한상은 고금과 같도다. 폭포소리는 떠들썩
하게 우뢰같이 움직이고 암형은 푸르고 푸름이 근화
의 공일러라. 일만 구렁에 단풍은 그럼같고 큰못에
푸른 물은 벽암 가운데 있도록 쌓아 없는 절정이
신선의 지경이니 축제행사는 영원히 변함없더라.

探勝駕人酬詠裏
追蹤羈客韜聲中

吟、吟士友閑汎捐
使此疆場活不窮

京畿道富川郡德頃面
古活里

시종 김현기 / 경기도

佳作

天下靈山在我東
名補雪岳四時同
峯峦與發神奇景
物象賴生造化功

설악제를 큰 관동에서 여니 경축하는 관민이 한몸
같도다. 넓은 대와 아미 같은 관은 사습을 의지했고
물찬수와 문물은 천신하는 공일려라. 평풍과 상은
지성드리는 성안에 향으로 받들고 해물과 육물을
원하는데로 풍요하더라. 연기 달이 편안한 거리에
속초를 알리니 재앙을 없애고 복을 누리는 것이 무궁
하더라.

죽파 이만영 / 삼척군

佳作

祭宇雪嶽大閨東
慶祝官民一體同

博第峨冠依四習
庶羣文物薦新功

屏床香塵臥閣裡
海岱靈饒介顧中

首月庚衢知來草
消災享福永無窮

三陟郡道溪邑上德里
柳坡李萬榮

천하의 명산이 우리나라에 있으니 설악이라 명칭함
은 사시가 같기 때문이로다. 봉우리는 신기한 기운이
웅박했고 모든 형태는 조화의 공이로다. 찾아오는
선비는 술잔을 들고 글을 읊으며 찾아드는 나그네는
신끄는 소리만 내도다. 분부하는 선비들은 한가로이
땀을 낚으면서 이강 장으로 하여금 삶에 용기를 얻도
다.

消殃福
禱行百
神中

萬戶斯
繁榮一路
展望窮

江後市校
清菴崔燉
儀

恭

作

名區雪藏海東
舉布官民大祭同
促進農工增產深
興振文化創革新功

청암 최돈의 / 강릉시

명구 설악이 동쪽 바다에 있으니 온시의 관과 백성
들이 대제를 같이 하더라. 농공을 촉진하는 것은 증산
의 술이요 문화를 홍진함은 새것을 창신하는 공이로
다. 개양을 사라지게 함은 고요히 세번 향을 태우고
축복은 백가지 예중에 하나더라. 만호의 이골에 내일
의 바람을 번영하는 길로 발전함이 무궁하더라.

설악산 기절함이 바다 동쪽에 으뜸했고 서계 명산
에 짹을 같이 할이 없도다. 천재에 높은 정은 달보듯
이 즐겁고 사시에 아름다운 경치는 누구에게 공을
물을까. 멀고 푸른 봉우리 색은 석양 밖이요 성글게
떨어지는 종소리는 옛날 가운데서 나더라 영특한
봉우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원하여 빌건데 길이
길이 무궁하리라.

• 경호 어해훈 / 서울시

掌地域別

雪岡奇絕冠瀛東
世界名山無伴同

千載高情晉月辭
四時佳景問誰功

遠蒼峯危斜陽外
疎落鐘聲古寺中

致祭靈廟皆美俗
願祈此事永無窮

雪岡奇絕冠瀛東
世界名山無伴同

千載高情晉月辭
四時佳景問誰功

雪岡奇絕冠瀛東
世界名山無伴同



祗為靈山行大祭
我韓願此運無窮

絕奇雪嶽冠羣東
如虹千峯形不同

漢江神光瀛海接
蜿蜒漱氣造鈞功

年豐世化祝祥裡
國泰民安祝願中

少石朴應圭

소석 박응규 / 서울시

절기한 설악이 우리 동쪽에 으뜸하니 그림같은 일천 봉우리가 형상이 같지 않더라. 의의한 신광은 큰바다에 접했고 완안한 맑은 기운은 조물주의 공이로다. 해가 풍년들고 세상이 호환 축제 속이요 국태민안은 축원 가운데서라 공손히 령산을 위하여 대제를 행함은 우리나라가 힘입어 운이 무궁하리라.

설악 영산이 관동에 있으니 금강의 절경과 유명한 것이 같더라 기기한 봉우리는 천연의 기상이요 뾰족한 바위 형상은 조화의 공일러라 옥같은 이슬은 영롱하게 풀 끝을 적시있고 단풍은 찬란해서 서지 가운데 물들었도다 이번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이 좋은 땅에 관광은 길이 무궁하리라.

학운 한용현 / 서울시

雪嶽靈山閔海東
金剛絕景有名同
勝地觀光永不窮
今番祝祭人波集

奇巒巖天然像
丹楓燦爛梁霜中
王露玲瓏沾草木
驟雨雲霧滿天風
奇巒巖天然像
丹楓燦爛梁霜中
王露玲瓏沾草木
驟雨雲霧滿天風

鶴雲韓密鎗

서울江南正伊鵠亭洞美星APT三株大乳

丹楓雪岳冠吾東
霜染循山淡第同

風景明妍基地德
樣相奇絕駿勳功

誘章客宿邱陵中
空入金貞錦繡中

集京鄉多少士
瞻江南

落李康秀

이강수 / 서울시

단풍 설악은 우리 동쪽에 으뜸했고 서리가 산을 물들인 것이 순서이더라 풍경이 곱고 맑은 것은 땅의 덕이요 모양이 기이한것은 조화 응의 공일러라. 객은 구릉안을 피하니 전원을 금수 가운데 포옹하더라. 소라처럼 모인 많은 선비들은 좋은 경을 관광하니 즐거움이 무궁하더라.

설악이 높고 높아 바다 동녘에 서고 동해에는 이 산처럼 높은 산이 없더라. 채색구름과 붉은 안개는 신선의 자취요 절벽의 기암은 조물의 공이더라. 비밀을 간직한 역사는 천재에 전하고 관광객에 시 읊은 사시가 같더라. 해마다 제사를 드리니 신이 감영하여 묵묵히 서민을 도와 운이 불궁하더라.

심강 윤석홍 / 전남

雪嶽魄立生海東
海東莫與此山同
年祭辰神應感
默佑黎民運不窮

彭雲紫霞仙接
絕壁奇岩造物功
金南光世弔東明洞

藏秘史傳予載下
登臨客咏四時中
心汎尹石洪

설악이 우리 동쪽에 으뜸하니 과민이 협심하여 제사를 같이 하도다. 간절히 영령에 행복을 빌어 지성껏 봉사하니 성공에 이르도다. 제사에 숨이 정결하니 존엄하고 제수의 향기로 신이 강임하도다. 아름다운 강산은 이 속초니 문화가 날로 새로우니 운이 무궁하더라.

● 송강 김형우 / 동해시

有谷雪嶽冠五東
一體官民大祭同

切祈明靈還享福
至誠奉祀到成功

醴粢淨潔恭尊嚴祀
庶昌芬芳降降中

佳麗江峯今來草
日新文化運無窮

東海布祚洞七統三班
松固

金炯佑

雪岳靈山最我東
崇高岱屹天恩力
年祭典古來同
景像尊嚴地惠功
奉享誠心無以上
傳儀後貌有其中

鄉民獻爵芬香處
雲集衆生質不窮

三陟郡汀上洞一統七班
一邱 洪泰義

● 일죽 홍태의 / 삼척군

설악 영산이 우리나라에 가장 으뜸해서 해마다 제사는 예나 지금이나 같더라. 숭고한 터는 하늘 은혜의 힘이요 기상이 존엄함은 땅의 보살핌이로다. 봉행하는 성심은 더 이상 없고 전의는 엄숙함에 있도다. 설악제단에 전시민이 구름 같이 몰려 들것이다.

造化神憲散且格
繁榮東草樂無窮

東海弔北碑洞十統

德山金起道

謹身致敬立西東
雪嶽山前祭祀同
牲幣精禋祈靖策
醴齊芬苾願豐功
獻官真爵焚香際
執禮登壇唱笏中

덕산 김기도 / 동해시

근신치경으로 동서에 서서 설악산 앞에서 제사를
같이 지내더라. 생폐정연으로 빌었고 예제분비는 풍년
을 빌더라. 현관이 잔드리며 분향하고 집례는 단에
올라 홀을 부르더라. 조화 신령은 흠격하니 번영하는
속초가 무궁하도록.

설악이 높게 동해에 으뜸하니 축제를 모든 백성과
같이 했도다. 감히 산하의 덕을 빌고 삼가 우주의
공에 천수하더라. 화순한 시구속에 정이 감동했고
회포는 술잔 가운데 새로 열리도다. 만장한 관객이
다투어 축하하니 속초에 문명이 세상에 궁하지 않더라.

최준백 / 동해시

雪岳巍々壇海東
正堂祝祭與民同
滿場觀客爭賀
東草文明世不窮
敢祈甫拜山河德
謹報薦屬淳寅功
情感化順詩句裏
新昇懷抱酒盃中
崔峻伯

설악 정령이 우리 동녁을 도우니 해마다 제사를
같이 하더라. 척사 백리에 긴길이 연했고 화살처럼
이른 아침에 공을 축하하더라. 오배 삼산은 구름 그림
자 속이요 갈매기 앞에 만경은 바다소리 가운데더라.
한수한물에 셋기는 가을 햇빛에 많은 선비가 원함
이 무궁하더라.

• 애파 최경규 / 강릉시

雪嶽精靈鎮我東
年祭典市民同
箭至今朝頌祝功

尺思百里連長路
箭至今朝頌祝功
鳴前萬頃海聲中

鰐背三山雲影裡
鳴前萬頃海聲中

洗來漢江村陽曝

漫復市草嘗閒

羣士彬々願不窮

也波崖景主

雪嶽高名振海東
祭儀敬虔頌聲同

楓林似重秋陽節
稻黍登豐雨露功

昇設農工推進裡
繼承文化保存中

虛涵勝景風流足

涼櫟城郭記內面永懷里五三九

百世繁榮永不窮

厚崖宋寅錫

• 후당 송인석 / 강원도

설악의 높은 이름이 동해에 진동하여 제사가 경건
하니 같이 축하하더라. 단풍이 꽃과 같은 가을철이요
도서가 풍년든 것은 비와 이슬의 공이로다. 농공은
개발 추진중이요 문화를 계승해서 보존중이더라. 신령
한 땅 좋은 경치에 풍류가족하니 백세 번영이 궁하지
않더라.

제전을 벽해 동녘에 승계하여 혼연히 전시민이
같이 경축하더라. 단풍이 붉고 솔이 늙음은 천왕에
덕이요 높은 고개에 바위는 대우의 공일러라. 그은한
몸을 안개속에 잠기고 숨긴 모양은 항상 흰구름이
덮이었더라. 해마다 이 사업을 기원하니 영원히 궁하
지 않더라.

● 죽제 권영악 / 강릉시

祭典承間碧海東
渾然慶祝市民同

楓紅松老天皇德
峙聳岩懸大禹功

幽體乍潛藍霧裡
秘姿恒被白雲中

年歲於斯事

江陵市竹軒洞一光巖

祈願續行永莫窮

竹齋權寧嶽

雪岳高名冠漢東
爲靈祝祭支令同

江山秀麗天藏景
鄉土繁榮地利功

文化繼承親善裡
農漁並荷願豐中

官民一致誠心功
感應神明助末窮

江陵市魯信洞三光班

雪治全振杓

설소 김진표 / 강릉시

설악의 높은 이름이 동쪽바다에 으뜸하니 령을
위하는 축제가 예나 지금이나 같더라 강산은 수려하
여 하늘이 정치를 간직했고 향토가 번영함은 땅의
공이더라 문화를 친선한 속에 계승했고 농어촌은
풍년을 기원하더라. 관민이 한가지로 성심이 간절하니
신령이 감영하여 도움이 무궁하더라.

雪嶽靈山闡我東
 每年祭享官民同
 高樓此地非常處
 法寺仙臺永不窮

 三門四角人工成
 萬壑千峰造化功
 執笏焚香尊敬裡
 鞠躬拜饗慕宗中

 後市玉泉洞一〇一三

 星儂趙炳奎

성농 조병규 / 강릉시

설악 영특한 산이 우리 동쪽에 열리고 해마다 제사
 는 관민이 같이 하더라. 삼문사각은 사람이 만든 죄요
 만약천봉은 조화의 공일러라. 홀은 잡고 분향함은
 존경의 뜻이요 국궁배향은 사모하는 가운데 있더라
 높은 다텁 이 땅 비상한 곳에 법사 선대가 무공하도
 다.

대관령 북쪽에 설악산 동쪽인데 제례의 형태는
 일체 같더라 등반함에 무사고를 축원하고 탐험할때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더라. 멀고 가까운 형상을 관망
 하는 즈음이요 상하의 관민이 협찬하더라. 시사와
 문장들이 성의있게 축하하니 이제로부터 길조가 궁하
 지 않겠더라.

● 송계 고찬재 / 양양군

大關嶺北雪嶽東 祝願合攀無事故
 祭禮儀形一體同 通遐層巒觀望
 但今吉兆不窮也 祈禱探險有成功
 詩士文章誠意賀 上下官民協贊中
 羌陽郡翼陽面松田里
 松溪 高燈在

설악산하 영동에 여러 선비와 관민이 제전을 같이 했더라. 무당은 무사고를 기도하고 신령은 대성공하기를 호위하더라. 이것이 다 일대 문명이요 이것은 또 첨단으로 교화하는 가운데 있더라. 다만 원하건데 앞으로는 연례행사에 오랫동안 후일에 전하여 길이 무궁하리라.

만성 고남재 / 양양군

雪山之下嶺闊東
壬子官民祭典同

巫覡祈禱無別故
神靈護衛大成功

是當一代文明隆
此赤尖端教化中

但願前來年例事
久傳後日永無窮

襄陽郡翼陽面 松里里

晚惺 高南在

白斗起祖逆遼東
自古有名神興寺
特立金剛氣脉同
至今祝祭布民功
風光秀麗三千里
絕景傳聲萬國中

雪岳楓木紅紫裡
襄陽邑南門里
年歲盛事亨無窮

謙山雀懿淳

겸산 최의순 / 양양읍

백두산에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동쪽으로 우이하야 특별히 금강산을 세워 그 맥이 같더라. 예로부터 유명함은 신흥사요 지금 추구제는 시민의 공일러라. 풍광은 삼천리에 수려했고 절경은 세계에 소리가 전했더라. 설악산의 단풍이 붉고 붉은 속에 해마다 성한일이 누리기를 무궁히 하더라.

명산 설악은 단군나라 관동인데 매화마다 정하게
제사지낸 경축함이 같더라 질서가 안전한 것은 오직
근본 뜻이요 현장이 생화한 것은 이참의 공일러라
오신 손님이 환호속에 축하하고 집사들은 읍양한
기운데 봉하더라. 천지 신명이 서로보우하니 관광협회
가 운이 무궁하더라.

● 초은 이강현 / 양양군

名山雪岳擅關東 每歲精禋慶祝同

秩序安全唯予意 祀廟致貢歡呼禮
現場淨化是真功 執事奉行揖讓中

天地神明相保佑

襄陽郡西蜀龍泉里

觀光協會運無窮

超隱李康憲

名山雪岳冠我東
衍鬱金剛造化同

天聳蔚岩稽傳說
舞聳神寺博施功

銜芝仙跡浮雲外
俯瞰人波沿道中

紅艷楓峯北觀景
盛筵祝祭願無窮

襄陽郡襄陽面桃花里

石波崔商洙

석파 최상수 / 양양군

명산 설악이 우리나라에 으뜸하니 금강산을 방불케
함이 조화와 같더라 하늘이 승한 바위를 솟구침은
전설을 삼고함이요 신흥사의 이름은 널리 배운 공일
러라. 신선의 자취는 뜬구름밖에 미망하고 인파는
연도에서 구부려 엇볼러라 붉게 단장한 단풍봉우리는
장관의 경치니 풍성한 자리 축제에 무궁함을 원하더라.

금강산맥이 동쪽에 뻗으니 사시 관광객이 끊임없도
다. 곱게 물든 붉은 단풍은 삼추의 아름다움이요 높게
일어난 흰구름은 만리의 공일러라. 능히 금강산에
빼를 감춘 속과 같고 형상은 적벽에 단풍 물들인
것 같더라. 백구가 푸른 바다에 공중을 번득이며 하례
하니 축하하는 시자리에 복이 무궁하리라.

• 한서 김중래 / 양양읍

雪岳祭儀大海東
祝聲聾々舉民同

人心團合邦家慶
文化光明市政功

青草銀波仙境裡
萬山楓葉畫圖中

仲秋佳節蕪峯野
慕陽長霄里
個個技能富有窮
漢西金童來

錦繡江山一脉東
艷濃紅葉森森美
四時不絕觀光同
高起白雲萬里切
能似金剛藏骨裡
形如赤壁凜楓中

白鷗碧海翻空賓
慕陽郡慕陽面桃花會
賀祝詩筵卜不窮

羣臣李時行

화정 이시행 / 양양군

설악제를 큰 해동에서 재내니 축하하는 소리와
고고함이 온 백성이 같더라. 인심 단합함은 나라의
경사요 문화가 광명함은 시정책의 공이더라. 청초호의
은빛 물결은 신선의 지경이요 만산의 풍경은 그림
같더라. 중추가절의 황금들에 개개의 가능이 어찌
궁함이 있으리오.

驥士興酣賦不窮

襄陽郡襄陽面鶴浦里

峰隱李柱烈

天下名山檀海東 飛仙臺石今人坐
艷紅楓葉景光同 繼祖庵僧禹世功
四時勝槩神工鬼 互照層巒酬善裡
驥士興酣賦不窮 襲深古刹讀經中

봉은 이주열 / 양양군

천하명산이 단군나라 동해에 이르고 곱게 물들인 단풍잎이 광경 같더라. 비선대의 돌에는 지금 사람이 앉았고 계조암의 중은 만세의 공일더라. 돌이켜 비치는 층만에는 어둠속에 술잔을 들고 그윽하고 옛절은 경을 읽는 가운데더라. 사시로 승지의 경계에는 신공의 그림이니 소사의 취한 흥이 부담없이 궁하지 않더라.

공원 설악이 동서를 관통하니 조국의 어느 산이
가히 더불어 같겠는가. 한맥 금강이 속태가 없고 천연
의 옛굴은 중의 공이 있더라. 날로 새로와지는 문화가
광명한 속이요 구름처럼 모이는 의관들이 축원중이더라.
단풍이 드는 속초의 가을철에 마당 가득히 노는
형세를 보니 궁함이없더라.

석천 김형기 / 양양군

公園雪岳賀襄
祖國何山可與同 千年古窟有僧功
一脉金剛無倦態 日新文化光明裏
滿場遊勢看難窮 一脉金剛無倦態
束草楓林秋影陰 千年古窟有僧功
滿場遊勢看難窮 襲深古刹讀經中
襄陽郡降峴面石橋里 石泉 金亨起

名山雪嶽拓闊東 踵々軀々雄俗然 四時遊子采無絕
 連脈金剛氣勢同 奇々妙々造化功 五色楓木滿化中
 祝你年歲誠福地 美陽郡縣南面吟里
 官民福祿永無窮
 又江蘇聖澈

우강 정성철 / 양양군

명산 설악이 관동에 열려서 맥은 금강산에 연하여
 기세는 한가질러라. 준준전전은 속태를 떠났고 기기묘
 묘는 조화의 공일러라. 사시로 노는자는 끊임이 없고
 오색 풍림은 가득 찾도다. 해마다 축제는 정성껏 비는
 데 관민의 복록이 무궁하리라.

우뚝솟은 청봉은 멀리 동녘을 향해서 설악의 축제
 를 같이 협력하도다. 명성은 멀고 가까운데 높은 덕을
 연했고 좋은 곳 운림은 매양 형통한 공일러라. 첨첩한
 연기와 안개는 무한하고 거듭거듭 쌓인 암석은 태평
 한 가운데일러라. 티를 쌓는 폭포는 한가로운 골짜기
 니 사양에 돌아가는 길은 궁함을 깨닫지 못하더라.

• 갑산 정낙구 / 양양군

聲出青峯遙向東 雪峯祭協心同 洗塵濕拂閑遊谷 不覺斜陽返路窮
 名聲遠近連高德 胜界寰宇每享功 甲山黃洛九 望烟霞段章恨上
 雪峯祭協心同 洗塵濕拂閑遊谷 望烟霞段章恨上
 胜界寰宇每享功 甲山黃洛九 重巒岩石太平中

설악에 내려온 맥은 큰바다 동네이요 절절한 의관
은 축제를 같이 하더라. 승계에 높은 소리는 옛풍속에
연했고 좋은땅 금형은 세로접한 공일러라. 천추에
절벽은 충충이 서고 만장 유수는 첨첨한 가운데 일더
라. 단풍잎은 유곡사이에 소명했으니 매년 상객이
궁하지 않도다.

● 우남 장명환 / 양양군

雪落脈大溟東
秋衣冠祝祭同
勝葉仁聲連舊俗
名區錦影接新功
雲山落脉大溟東
秋衣冠祝祭同
勝葉仁聲連舊俗
千秋絕壁層上
楓葉蕭明幽谷裡
襄陽郊蓋陽面南陽里
每年賞客永非窮
愚南張明漢

一點紅蓮昇海東
萬山朝露玉珠同
丹楓雪岳豐漁祭
黃葉金書賀賞功
天造自然無限寶
人間福祉有勒中

總和技藝心之動
聖火苗魂世之窮
東谷鄭熙達
襄陽郡降峴面勿甲里

● 동곡 정희달 / 양양군

한점의 홍연암은 동쪽바다에 오르니 만산에 아침이
슬이 구슬같더라. 단풍 설악에는 풍어의 제사요 황엽
에 명서는 하례하더라. 하늘은 자연의 무한한 보배를
지었고 인간의 복지는 부지런한데 있더라. 총화한
기에는 마음에 동하고 성화에 혼은 세세마다 궁하지
않더라.

謹送無詞心遠祝
繁榮自此永無窮

原東草市東明洞

李柱哲

이주철 / 속초시

제전을 거듭 설악 동녘에서 여니 지난해 행사와
같이 하도다. 백성이 업에 편안한것은 나라의 힘이요
오곡이 풍등한것은 풍년의 공일리라. 홍을 돌우는
술호걸이 성취속에 글선비는 제목을 부르는 가운데
있도다. 졸한 재주로 글을 지어서 성심으로 축하하니
후일 번영하는 것은 궁하지 않도다.

盛開祭尊市城東
慶賀佳筵予我同
發展農工伸國力
驅除災厄賴神功
觀光遊客往來裡
覓句詩人題詠中

祭尊重開雪獻東
去年行事又今同
五穀登豐報歲豐
他日繁榮也不窮
杜才構頌誠心祝
東至年朝陽泪
青松金甃泳
桃興酒豪醒醉禪
緩吟詩士唱題中

청송 김태영 / 속초시

제전이 시 동해에 성대히 열려서 축하하는 자태가
모두 같도다. 농공을 발전시켜 국력을 펴고 재앙을
쫓아내는 것은 신의 공이더라. 관광하는 유객이 왕래
하는 속에 글짓는 시인은 옮는 중이더라. 무사를 보내
서 마음으로 멀리 축하하니 번영하는것이 이로부터
무궁하리라.

설악의 정령이 우리 동쪽을 도우니 해마다 제향을 원근이 일심하도다. 민심은 고고히 다 편안한 시책이고 음덕은 높고 높으니 큰 공을 얻었도다. 복지를 수법속에 인도해 맞고 문명을 혁명중에 진작했도다. 번영하는 앞길이 불보는 것 같으니 평화를 성취함에 길이 무궁하리라.

속초시장 홍순호

雪嶽精靈佑我東
年歲亨通遐同慶
德巍々大得功

民心皞皞安樂
福社導迎重範
仁德巍々大得功

文明振作革新中
年歲亨通遐同慶
德巍々大得功

繁榮前路如觀火
成就平和永不窮

末草市長

洪淳鷗

贊助詩

穹岳清光大海東奉心每屹將來
官民合力布儀同誠意恒深必有功
名區勝蹟難圖裡
旅客時々賓未窮

襄陽邑南門里

松村 李相益

송촌 이상의 / 양양읍

설악의 맑은 빛은 큰바다 동녁이요 관민이 협력하니 제의가 같더라. 봉심이 매양 높으니 장차의 복이요 성의가 항상 깊으니 반듯이 공이 있으리라. 석벽총이 높아서 용화한위요 냉천은 담백해서 태평한 가운데 있더라. 좋은땅 좋은 경계는 그림 그리기 어려워 손님은 때때로 구경힘이 궁하지 않더라.

천신이 비로소 바다를 동쪽에 판단하니 설악의
웅자함은 만고와 같더라. 토풍이 연기를 내며 공중에
떠서 물을 뿐이고 권금성은 사직을 매음에 나라지키
는 공일려라. 말없는 천제에 신선이 돌아가는 속이요
끊이지 않은것은 사시 관객이더라 국립공원은 참
면목이니 추풍의 축제가 즐거움이 어찌 궁하리오.

문화원장 지일권

天神肇判海之東
雪嶽雄姿萬古同

土濕生烟浮空瀧
權城防守邦功不絕時觀客中

國主公國真面目
社風祝祭樂何窮

文化院長 池一權

金剛末脈壇五東
雪嶽北風景色同
磬石採石神力動
鳶車飛空人智功
楓木紅葉連峯裡
龍潭泡烟瀧沼中
天下名區郁在此
雪嶽祭委員長 李基燮

설악제위원장 이기섭

금강으로부터 오는 맥이 우리 동쪽에 오로지하니
설악의 가을 바람과 경색이 같더라. 반석과 체암은
신이 움직이는 힘이요 술개차가 공중을 날음은 사람
지혜의 꽂이로다. 단풍의 붉음은 연봉속에 띠었고
거품 연기는 못가운데 떨어진다. 천하의 이름 난 땅이
여기에 있으니 편안한 거리의 축제가 즐거움이 무궁
하리라.

금강을 할아버지로하고 설악을 동쪽으로하니 그 남쪽에 또 이름과 같은 산이 있더라. 대청봉이 특별한 것은 하늘이 만든 물건이요 신흥사의 절 이름은 사람이 지은 공이더라. 폭포은 천리 밖으로 끌쳐 놀라게했고 풍림은 만방에 승찬했더라. 해마다 경축하는 문명 제사는 응당 관민으로 복이 무궁하게 힘일러라.

● 행정동우회장 이건석

爲祖金剛雪丘東
其南又有其名同

大青峯特天爲物
神興寺名人造功

濕沛振驚千里外
楓林勝讚萬邦中

年々慶祝文化祭
應必官民福不窮

東草市行政同友會長李建錫

天造勝區冠我東
四時不絕觀光同

丹楓滿谷賞秋色
古刹貧僧惹客

詩友景迷紅葉裡
仙翁遊去白雲中

雪山祭典奉行事
東草市康衢慶不窮

東草市老人會長尹德勲

속초노인회장 윤덕훈

하늘이 승한 땅을 지어 우리나라에 으뜸하니 사시로 떨어지지 않고 관광함이 같도다. 단풍이 골짜기네 가득하니 가을색을 열었고 고찰의 가난한 중은 객의 공을 일으키더라. 글선비들이 홍엽속의 경치에 혼미하고 선용은 훤구름 가운데 높고 가더라 설악제를 봉행하는 일은 속초의 편안한 거리에 경사가 무궁하리라.

天下羣雄集海東
 華嚴大會世誰同
 雷山風景榮茲在
 護國英才永不窮
 桂花滿叢吾疆土
 盡力豪俊偉樹功
 東宇專門大教授
 林德洙

逆賓宇宙文情際
 博席屠龍賜技中

동우전문대교수 임덕수

천하에 물 영웅들이 해동에 모이니 장엄한 대회를
 세상에 누가 같이 하겠는가. 무궁화 꽃은 우리 강토에
 만발했고 힘을 다하는 흑걸들은 크게 공을 신더라.
 손님을 맞이하여 문을 열매 정을 사귈 즈음이요 박호
 와 도통은 도기 가운데일러라. 영험한 산 풍경이 영화가
 여기에 있으니 나라를 보호하는 영재들이 길이 무궁
 하리라.

설악의 기이한 봉우리가 해동에 접하니 연도의
 호화로운 집이 벳살같도다. 충암과 괴석은 천년의
 경치요 깊은 절과 노송은 백척의 공일러라. 붉은 잎새
 와 승한 꽃은 객을 머드르는데 있고 신선이 내리는
 낙수는 푸르게 흐르는 가운데일러라. 환성으로 제사
 지내며 오히려 같이 축하하니 소사들의 글씀이 한수
 가 궁했더라.

● 노인회사무국장 박영식

雪嶽奇峯接海東
 沿道羣屋柳比同
 歡聲祭典猶共賀
 駕士題詩一首窮
 東草布委會事務面長
 聖岩朴永植

層巒怪石千年景
 淳厚老松百尺功
 紅葉勝花茜客裡
 降仙洛水碧石溪中

觀音市巷皆而祀
沿道人波必不窮

前嶺東書藝學院長
書卷 鄭元澈

天作名豆檀我東
觀光遊子四時同
艷楓連峯三秋氣
怪石層岩萬古功
駱客停車紅葉裡
歸仙過谿白雲中

설악의 남쪽 큰 영동에 관민이 협력하여 제의는
같도다. 충충봉과 첨첨봉은 신령의 기요 괴석과 기암
은 조화의 공일러라. 고을 새가 한곳에서 노래하는
속이요 가을산 사면에 그림 가운데일러라. 많은 선비
들의 시편을 응모하는일에 영구히 기념하여 칭송을
무궁히 하더라

죽현 이종열

雪窟之南大嶺東
官民協力祭儀同
永為記念頌無窮
層巒疊嶂神靈聚
怪石奇岩造化功
漢陽郡望陽面金闕里以軒李鍾烈
谷爲一方經管裏
松山四面更圍中

현암 정원철

하늘에 명구를 지어 단군의 우리 동네에 관광객이
사시가 갈더라. 예쁜 단풍이 봉우리를 연합은 삼추의
기운이요 괴석과 충암은 만고의 공일러라. 소객은
수레를 짖은 단풍속에 머르고 돌아가는 선선은
그윽한 시내 흰구름 보는 사람의 소리는 시나 시골이
나 축하하니 연도의 인파가 반듯이 무궁하리라.

문화유적지를 다녀와서

속초상고 3. 황진화

24일 오전7시 이른아침에 우리들은 속초문화원이 주최하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1박2일코스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게되었다. 기념촬영과 발대식을 마치고 7:30분쯤 순례단은 버스에 올랐다.

맨처음 도착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박물관앞에서 간단한 기념촬영을 끝내고 관람을 시작하였다. 처음 들어간 곳은 선사실이었다. 선사실에서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의 문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여겨 보았던 것은 빗살무늬토기와 세형청동김의 모형제작과정이었다. 그 제작과정을 보면 청동기시대의 우리선조들의 지혜와 슬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시대에서는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러상태의 생활상과 생동하는 주작등의 날짐승에서, 관모의 새 조각들에서 섬세하고 힘찬 고구려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백제실에서는 무녕왕릉의 무덤에서 나온 금제관, 귀걸이등의 유물이 온화하고 섬세한 백제문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었다.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았던 곳은 고려자기실과 역사자료실이었다.

고려청자는 1200℃이상의 고열에서 구워낸 것이라 그 빛깔과 문양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삼강기법으로 만들어진 청자들은 그 문양과 빛깔이 다른 청자들 보다 한층 뛰어남을 보이고 있었다.

역사 자료실은 우리나라 역사연구에 필요한 일차적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었다. 전시해 놓은 유물로는 지도, 화폐, 패찰, 묘지, 석판 등이었다. 특히 지도 부문에는 정밀성이 현대지도에 비해 거의 손색이 없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해저유물실, 문청자기실, 금속공예실등 여러곳을 관람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다. 때마침 박물관뜰에는

한글날기념 야외 조각전이 열려 뜻밖에 감상할 기회를 얻을수 있었다. 이어 순례단은 롯데월드 민속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롯데월드민속관은 우리선조들의 생활상을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형제작을 해 놓은 곳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선조들의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해 놓은 곳이라면, 롯데월드민속관은 각 시대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곳이였다.

롯데월드민속관에는 유적, 유물, 건축들을 축소 제작해 놓은 곳도 있었다. 그곳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이 즉위하던때의 모습이라든지, 석굴암의 내부조각, 안압지등의 모습을 실물과 똑같이 축소해 만들어 놓은 것이있었다. 그 모형들의 정밀함이 실로 놀라웠다. 롯데월드민속관을 끝으로 첫째날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다음날 25일에는 일찍 국립현대미술관을 관람하였다. 박물관을 들어서면서 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은 1003대의 TV모니터로 만들어 놓은 높이 18.5미터의 원추구조물이었다. 그 구조물은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씨의 작품으로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는 기획행사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진 것이었다. 향후10여년 동안 상설전시될 이 작품은 첨단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잘보여주는 획기적인 작품이라 생각되었다.

문화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박물관에는 '인간과 자연전'이 기획전시되고 있었고, 김홍수 초대전도 열리고 있었다.

김홍수씨의 작품들은 거의 중요주제를 누드로 삼았고, 작품의 모양도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 같은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김홍수씨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한국의 자연과 인간' 전시회는 우리의 아름

다운 자연과 그 속에 비추어지는 한국인의 풍요로운 내면성을 재발견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를 화폭을 통하여 찾으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며 이 전시회는 잊혀져가는 한국의 뿌리가 무엇이며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람직한 전시회라 생각되었다.

미술관의 작품들에서 나는 미술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박내현의 노점’ ‘이봉상의 산’과 같은 많은 작품들을 직접 감상하기도 하였다. 많은 작품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김창 열씨의 물방울이란 작품이었다.キャンバス 위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은 물방울이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조각 중에서도 피아노를 부숴놓은 것 같은 ‘조율’이란 작품과 면장갑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미술품들을 감상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재료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발전해 가는 우리의 현대미술을 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현대 미술관을 떠나 다음 도착한 곳은 이천 샘표공장이었다. 15분여 동안 회사의 소개와 간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디오로 본뒤 공장을 견학하였다. 이천 샘표공장은 7,000여평의 건물에 종업원은 30여명 정도 밖에 안되는 완전자동화 되어 있는 공장이었다.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공장시설을 보며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장견학을 끝으로 하고 우리 순례단은 마지막으로 여주 신륵사에 도착했다. 조금은 외진 곳에 있는 절이라 관람객 수는 많은 편은 아닌 듯 했다.

신륵사의 주변 배경은 다른 어느 절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절벽 아래로 흐르는 푸른 물결이 낙산사의 의상대를 생각하게 했다. 신륵사를 끝으로 우리 순례단의 여정은 막을 내렸다.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의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를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으며, 고장의 문화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속초문화원에 감사 드리며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 속초상고 3. 이 자 영

상쾌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오늘부터 1박2일간 청소년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적지 순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속초문화원장님의 여행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연설이 끝나고 일행은 차에 타 서울로 향했다. 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미시령의 가을모습이 한층 아름다워 보였다.

두시 십분경 첫 목적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들이 있었다.

선사시대의 토기들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는 있었으나 무늬도 없었고 그다지 섬세하지도 못했다. 주거지도 주로 동굴이었으나 신석기시대로 와서는 토기도 섬세해졌고 빗살무늬도 있었으며 살림집으로는 대부분이 움집이었으며 불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중요한 유적지로는 다량의 인골이 발견되어 집단매장풍습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양양의 오산리 유적터와 청동거文化创意마을이 발견돼 청동기 제작지점임을 알려주는 부여의 송국리 유적지가 있었다.

그리고 가야실에서는 가야의 장군이 쌓았던 장검 갑옷 투구등이 있었는데 장검은 녹이 슬어 간신히 그 형태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우렁찬 장군의 목소리와 함께 적의 간담을 써들 하게 했었을 것임이 느껴졌다. 그러나 모든 것

들중에서도 가장 돌보이는 것은 어느 지혜로운 왕이 썼음직한 왕관이었다. 관광을 온 일본인들도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조상들의 번뜩이는 지혜에 감탄하며 박물관을 나오니 밖에는 한글의 자·모음으로 만든 조각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조에 감사를 드리고 차에 올랐다.

다음에 향한 곳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이었다. 조상들의 옛풍습인 돌잔치 회갑연 등등 많은 것들을 축소시켜 전시해 놓고 있었다. 유물만을 전시해 놓았던 국립중앙박물관과는 달리 민속박물관은 조상들의 생활풍습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와 다를 바가 없었다.

민속박물관을 나와 다다른 것은 여관이었다.

낯설은 곳에서의 잠자리는 불편하긴 했지만 내일의 여행에 대한 호기심때문인지 그다지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이튿날 또다시 버스에 올라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다. 처음부터 일행을 놀라게 한 것은 조각아닌 조각이었다.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작품들이 있었으며 미술관 내에는 더 많은 작품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화가 김홍수씨의 기념초대전을 구경하고 원형전시관안으로 들어서던 우리의 시야에 잡힌 것은 세지도 못할만큼의 TV 브라운관이었다. 이 작품은 백남준씨의 작품으로 1,003개의 브라운관으로 만들어졌으며 6개월마다 백남준씨가 프로그램을 직접 바꾼다고 했다.

그리고 작품중에서 돌+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는데 수만권은 됨직한 책에 돌을 매달아 놓은 것이 꽤 인상적이었고, 김차섭이라는 분이 세계지도에 자화상을 그려놓은 것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고 같은 소재로도 다른 여러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인간과 자연전이라는 특별기획전이 열렸는데 자연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뿌리를 찾고자 기획된 특별전시라 한다.

미술관 구경을 마치고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인 이천의 샘표공장으로 향했다. 이 공장은 모든 공정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듣고 공장을 견학하는데 자동시스템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방부제가 전혀 섞이지 않은 양조간장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여주의 신륵사로 차를 돌렸다. 신륵사에 도착했을 때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대지는 촉촉히 젖어 있었다. 이 절에는 보물 226호로 지정된 다총전탑과 230호로 지정된 대장각기비가 있었다. 경내에는 은은한 향내가 퍼지고 있었고 스님의 독경소리와 함께 목탁소리도 들리는듯 했다.

오후 5시쯤 우리는 문화유적지 순례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차속에서 앞으로 내 생애에서 이런 좋은 여행을 또 할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속초문화원장님의 특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속초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1990년도 속초문화원 사업 및 운영 현황

1. 사업

가. 효행 청소년 표창

- 경로 효친 사상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효행청소년을 선발해 표창함
- 1990. 2. 7
- 수상자 명단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속초고등학교	최 용 현	중앙국민학교	김 주 영
속초여자고등학교	이 혜 원	속초국민학교	김 회 준
속초상업고등학교	박 명 희	교동국민학교	정 세 희
속초중학교	김 성 주	온정국민학교	공 윤 희
설악중학교	김 남 수	조양국민학교	이 제 니
속초여자중학교	신 윤 희	청호국민학교	이 문 정
설악여자중학교	윤 지 숙	설악국민학교	김 소 영
영랑국민학교	황 금 선	대포국민학교	김 기 오

나. 제12회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 고유 민속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건전한 애향화합을 위한場을 제공하기 위해 속초방송
국과 공동 개최.
- 1990. 2. 17.
- 동명동 수복기념탑 앞 매립지

수상자 명단

종 목	부 문	등위	수 상 자	주 소(학교명)
연날리기 멀리날리기	학 생 부 (방패연)	1	권 태 훈	설악중학교
		2	이 규 성	교동국민학교
		3	최 민 식	온정국민학교
	일 반 부	1	이 성 훈	교동국민학교
		1	차 지 환	영랑동 3/4
		2	최 순 화	동명동 5/4
연 싸 움	학 생 부	3	황 치 호	교 동 14/1
		1	권 태 훈	설악중학교
	일 반 부	1	박 중 호	교 동 1/4
		2	권 영 순	교 동 14/3
제 작		1	권 영 순	교 동 14/3
		2	김 상 근	중앙동 7/1
		3	남 상 윤	설악중학교
제기차기	놓고차기	1	박 주 영	속초중학교
		2	김 남 호	온정국민학교
		3	박 창 근	조양국민학교
	들고차기	1	장 대 철	대포국민학교
		2	박 주 영	속초중학교
		3	박 종 만	속초중학교

널뛰기	일반부 (개인전)	1	정월자	동명동
		2	권순인	중앙동
		3	탁순이	교동
윷놀이	학생부 (개인전)	1	이시정	중앙국민학교
		2	권진영	영랑국민학교
		3	최미나	중앙국민학교
윷놀이	중등부	1	민경희	속초여자중학교
	단체전	1	영랑동	
		2	금호동	



다. 향토사료 제4집 “속초의 지명” 발간

- 향토사료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속초의 지명 연구에 착수 이를 소책자로 발간 함.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에서 편집하고, 연구위원 주상훈이 대표 집필함. 주상훈 연구위원은 이 공로로 제2회 속초시 문화상 학술부문을 수상.

이 소책자는 1,000부를 발간했으나 수요가 폭발해 곧 1,000부를 재 발행해 배포함.

라. 사랑방 문화 강좌

- 1) 향토사 연구 교실 : 6월27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실시.

연 60명 참가.

강사 주 상훈(속초고교 교사)

- 2) 농악놀이 전수교육 : 8.1~8.20까지 3주간 매일 문화회관 별관에서 실시.

연 인원 40명 참가

강사 : 안두선(대포국교 교사)

마. 한시 백일장 개최

- 설악제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
- 1990. 10. 13.
- 시제 : 설악제, 암운 : 동동공중궁
- 연 49명 참가
- 수상자 명단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김진덕	강릉시 노암동 616-16	이상익	양양군 양양읍
이건진	손양면 금강리	김규영	삼척 근덕면 교하리
이종욱	속초시 조양동 11/1	이만영	삼척 도계읍 상덕리
김현기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 사곡리	최돈의	강릉시 교1동 937-3
김진욱	양양군 손양면 도하리		

바. 문화유적지 순례

- 고급 문화와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원회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국립 중앙 박물관, 과천 현대 미술관, 민속촌, 신륵사 등을 순회 방문 실시.
- 1990. 10. 24 – 10. 25.
- 참가인원 : 44명

사. 제2회 청소년 예술학교

- 청소년들의 예술 성향을 조기 발굴 지도하고자 과천 현대 미술관 관람 등 예능 교육 실시
- 교장 : 오윤근(문화원 이사)
- 지도교사 : 염상빈(속초상고 교사), 남정희(속초여고 교사)
- 참가인원 : 34명

아. 고사 박인환 선생 소장 고서화 전시회

- 고사 박인환 선생이 수집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 250점을 문화회관 별관 전시장에서 1주 일간 전시
- 1990. 11. 16 – 11. 22.
- 관람인원 연 2,500명

자. 임수철 작곡 발표회

- 향토 음악가 임수철 선생의 창작곡 아홉편의 발표회 개최
- 1990. 11. 17(토) 19 : 00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차. 속초문화 제6호 발간

- 애향 운동 전개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문화지 제6호를 편찬 발간함.
- 1990. 12.
- 2,000부 발간, 시민등에게 무료 배포.

카. 속초시지 편찬

- 속초의 연혁, 인문환경, 자연환경 등 제반 사항을 수록할 속초시지를 편찬 내년 상반기 중 발간 예정으로 작업 추진.

타. 향토사 연구소 운영

-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 설치 운영. 격월로 정기 모임 추진, 각종 향토사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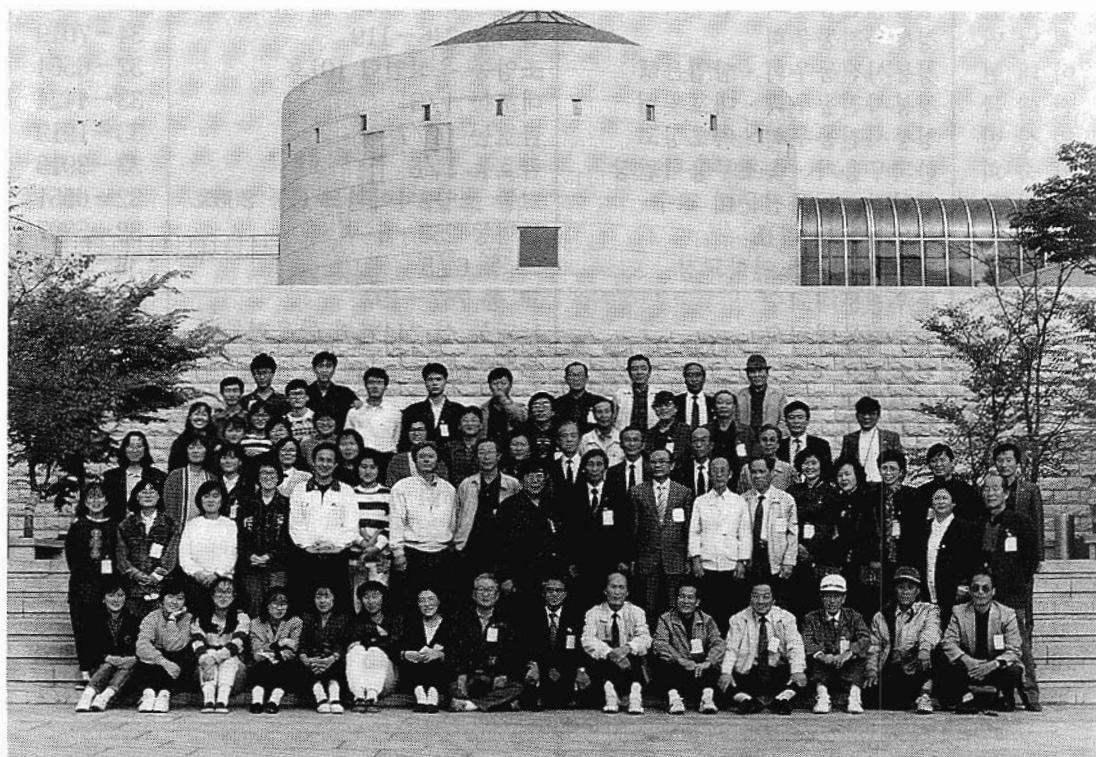


파. 문화은행 자료 수집

- 각종 향토 자료들을 수집 분류 보관함.
- 문헌자료 : 양양읍지와 3건
- 사진자료 : 1950년대의 속초 풍물 사진 20점
- 음향자료 : 외옹치 수살굿 등 4건

2. 운영

- 가. 전년도 감사 실시 : 1. 13. 사업 및 회계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이광춘, 최경순 감사(監事)가 감사(監查)실시
- 나. 제1차 이사회 개최 : 1. 16. 감사 결과 보고 및 전년도 결산안 및 신년도 사업 계획 예산안 확정
- 다. 정기총회 개최 : 2. 3. 향군회관 3층에서 실시. 전년도 결산 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하는 장 규호 이사의 후임으로 오윤근 이사 선임.
- 라. 전국 문화원장 회의 참석 : 90. 3. 13-3. 15.
- 마. 제2차 이사회 : 3. 23. 1/4분기 업무보고
- 바. 임원 변경 등기 완료 : 6. 27. 취임 임원 오윤근 이사 변경 등기 완료.
- 사. 전국 향토 문화 전문 위원 연수 교육 참가 : 90. 8. 28-8. 31.
- 아. 제3차 이사회 : 4. 14. 임원취임 1주년기념
- 자. 제4차 이사회 : 6. 12. “지방 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 지침” 전달. 2/4분기 업무 보고, 신입회원 가입 승인.
- 차. 제5차 이사회 : 9. 8. 업무보고. 90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카. 전국 향토 사료 발표회 참석 : 90. 12. 5-12. 6.
- 타.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회의 참석 : 90. 12. 18-12. 21.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윤홍렬	문인협회지부장·소설가	교동 16/3	33-1155
이상국	시인(설악문우회)	교동아파트 2동 508호	32-8586
이성선	시인(물소리 시낭송회)	교동 799-93	33-3743
최재도	희곡작가	중앙동 12/3	33-1354
주광하	외향선원	동명동 427번지	32-6283
신원하	연극협회 고문	금호동 621-47	33-4300
장규호	연극협회 고문	중앙동 500-8	32-2424
고준규	연극협회 지부장	설악동 B지구 에덴공예사	34-7533
박장건	극단 "태" 대표	청학동 6/4	32-7777
김영복	미술협회 지부장	영랑동 5/5	33-5664
김광수	예총지부장	교동로얄1차B동 409호	32-8322
장세환	전 미협지부장	중앙동 468-65	32-1278
정원철	서예가	교동 14/7	32-4909
김수철	서예가	중앙동 3/5	33-2282
엄주천	서예가	중앙동 473-25	33-3066
지응준	실악서예학원장	교동럭키아파트 6-506	31-8815
김주진	서예가	금호동 4/1	33-1234
김영봉	목공예·태백공예사	영랑동 5/5	33-5664
최춘영	속초사진동우회·속초시청	교동 6/1	32-8028
김정일	청봉사진동우회·신우사	중앙동 475-24	33-5515
최낙민	청봉사진동우회	설악동 246-119	34-7019
이태현	청봉사진동우회·상업은행	조양동 우성연립 101호	32-6564
전태극	청봉사진동우회·대포횟집	대포동 4/3	33-4424
엄상빈	청봉사진동우회·속초상고	금호동 14/7	33-1919
양숙희	한국무용가·속초무용학원장	금호동 1/6	33-3913
이진우	성악가·동우전문대 교수	교동 로얄2차아파트 C동 208호	32-6551
배기웅	성보건축사 대표	동명동 253-6	32-5397
박익훈	전 국교장·노인학교장	교동 6/5	33-5468
임덕수	동우전문대교수	교동 767-197	32-8031
최임규	동우전문대교수	노학동 산 244번지 동우전문대	32-6551
이종욱	양양향교 총무	조양동 11/1	32-6531
박순오	양양향교 장의	노학동 2/1	32-2895
김재섭	영랑약국	영랑동 137, 6/3	32-2416
윤종구	현대약국·새마을운동속초지회장	동명동 466-58	33-2533
이호순	전 고교장	동명동 514-12	33-3034
정종훈	전 국교장	청학동 428-37	32-9492
오재정	교동국민학교장	노학동 620번지	32-0925
이원재	동우전문대교수	노학동 244, 동우전문대	32-6551
김정우	전 기자·농업	장사동 2/4	31-6035
지일권	전 한국일보기자·속초문화원장	중앙동 469-15	33-5100
동문성	전 조선일보기자·재향군인회장	동명동 4/4	33-3721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최용문	전 서울신문기자·대일 레미콘 회장	동명동 250번지	33-3233
김태영	전 시정자문위원장	조양동 7/1, 923	33-3620
김형동	전 상공회의소장	교동로얄맨션 404호	33-3576
이성철	(주)새강원관광 대표	금호동 11/4	32-6943
안국준	이북5도민회장	금호동 1/4	33-3687
서동석	항운노조 위원장	교동 14/7	33-5300
김봉해	문화인쇄소 대표	동명동 450-39	33-2021
강수길	관동인쇄소·양양유도회원	교동 664-76	33-2384
이원익	전 상공회의소장	중앙동 468-27	33-2462
함영태	현대슈퍼	금호동 473-46	33-3456
김치룡	유일택시	금호동 16/3	33-3847
이기영	강원전업사	동명동 450-181	33-2130
한고본	시 정책자문위원	장사동 1/2	33-3780
고영화	영동철물대표	영랑동 5/3	33-5374
최경순	화신상회	중앙동 7/4	33-3668
윤유근	설악가방	중앙동 6/6	33-4882
김유자	정화숯불갈비	대포동 산 34-1	32-5260
심병섭	전 속초시 사회과장	동명동 569-2	33-3186
이광춘	평통위원	금호동 성진주택 9-306	33-3920
최상규	속초시 경우회장	동명동 7/1	32-3593
이건석	지방행정동우회장	동명동 469-36	33-3987
김보한	공무원	조양동 1398-6	33-4042
여석창	전 동장	청호동 587번지	33-3671
최홍순	전 동장	동명동 469-33	33-3671
강용상	전 공무원	중앙동 5/3	33-3068
황수복	사회정화위원회회장	중앙동 2/6	33-4991
리난식	전 동장	조양동 6/1	32-1210
이영일	시민서점 대표	금호동 479-26	32-3751
전수길	반도패션속초지점 대표	동명동 12/4	33-6349
원유희	물치정유소 대표	대포동 236-12	32-6855
이문표	현대전업사 대표	청학동 482-281	33-3883
김형진	평화양행대표	중앙동 376-83	33-4441
김철섭	전 JC 회장	중앙동 1/5	33-2292
황병찬	명동코너대표	중앙동 473-112	33-2136
김청호	동아횟집 대표	중앙동 1/1	33-5407
김영파	전 로타리클럽 회장	청학동 금강아파트 B동 105호	31-2649
심정현	강원일보 출판부 속초주재차장	금호동 6/7	32-1254
김기명	“프로스펙스”대리점 경영	동명동 15/4	33-8518
이소석	요식업 조합장	청학동 635-30	32-8074
이태형	전 속초중학교교감, 동우전문대교수	동명동 523	33-3618
박명자	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교동 780-118	32-6423
한기학	연예협회 속초지부장	중앙동 8/5	33-4595
홍철	연예협회 회원	청학동 483	33-2840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 번호
이 선 철	연예협회 회원	금호동 16 / 3	32-7681
오 세 권	연예협회 회원	금호동 성진주택 3-302	32-3695
김 동 만	연예협회 회원	동명동 중앙연립 나동 202	32-1861
윤 병 정	상업	중앙동 471-89	33-3042
박 종 현	시인	교동 주공아파트 2동 506호	33-8705
주 상 훈	향토사학자, 속초고등학교	영랑동 송하아파트 2-207	33-7494
탁 창 식	향토사학자, 속초고등학교	교동 대양빌라 가동 307호	33-6404
김 충 호	약사, 충정장학회 이사장	금호동 484-7	33-2211
전 영 수	상업	중앙동 471-4, 5 / 2	33-4717
오 윤 근	전 속초고등학교 교감	교동 656-5	33-8817
박 영 도	속초고등학교 동문회 간사	영랑동 8 / 1	32-4913
김 연 진	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중앙동 8 / 3	33-3198
조 영 호	상업	동명동 10 / 5	33-4591
허 장 길	중앙주택조합상무	중앙동 495-1	33-5237
박 춘 원	함경조선소	청호동 1115번지	33-2985
이 원 식	도문동장	청하동 482-285, 3 / 1	33-4181
최 현 식	신길철강상사	교동 664-164	33-2632
박 창 서	변호사	동명동 450-50	33-2689
최 무 일	제일약국, 속초라이온스클럽회장	동명동 450-118	33-3844
김 영 복	삼해장회집	대포동 421-19	32-5220
김 해 련	새싹유아원	중앙동 12 / 1	33-3704
김 동 하	속초서예학원장	중앙동 6 / 2	31-2831
김 형 기	전 속초중학교 교감	교동 655-59	33-3735
이 섭 봉	함흥냉면	금호동 1 / 3	32-5948
은 상 래	체육회 사무국장	영랑동 6 / 1	32-7184
김 용 구	전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동명동 513-52	33-3368
장 헌 영	전 속초문화원장	중앙동 500-8	33-5013
김 종 록	시정자문위원장	동명동 530-1	32-1557
김 광 수	속초자동차학원	도문동 1628-14	32-1188

표지화



金光秀

- 威興師範(44) 平壤美大(50)
- 한국전시미술대상전銅賞(79)
- 한국현대미술대상전特別賞(81)
- Asia 現代美展招待 韓國代表團長(83. 日本87)
- 江原道展(80, 82) 咸南道展招待(80~87)
- 韓國美術協會展(84~87. 국립현대박물관)
- 外遊(83. 日本, Europe, 87. 日本)
- 個人展 5回 (롯데월드미술관외)
- 束草市 校洞 482-280 T. 32-8022, 8322

편집위원

주간 위원	이 박 김 심	전 익 광 정	석 훈 수 현
간사	최	재	도

束草文化 제6호 〈비매품〉

인쇄 : 1990. 12. 10

발행 : 1990. 12. 20

발행인 : 池 一 權

발행처 : 束草文化院

인쇄처 : 江原日報社 出版局

관광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앞장설것을 다짐합니다.

雪嶽觀光株式會社

케이블카



會長
韓丙起



代表理事 社長
崔澤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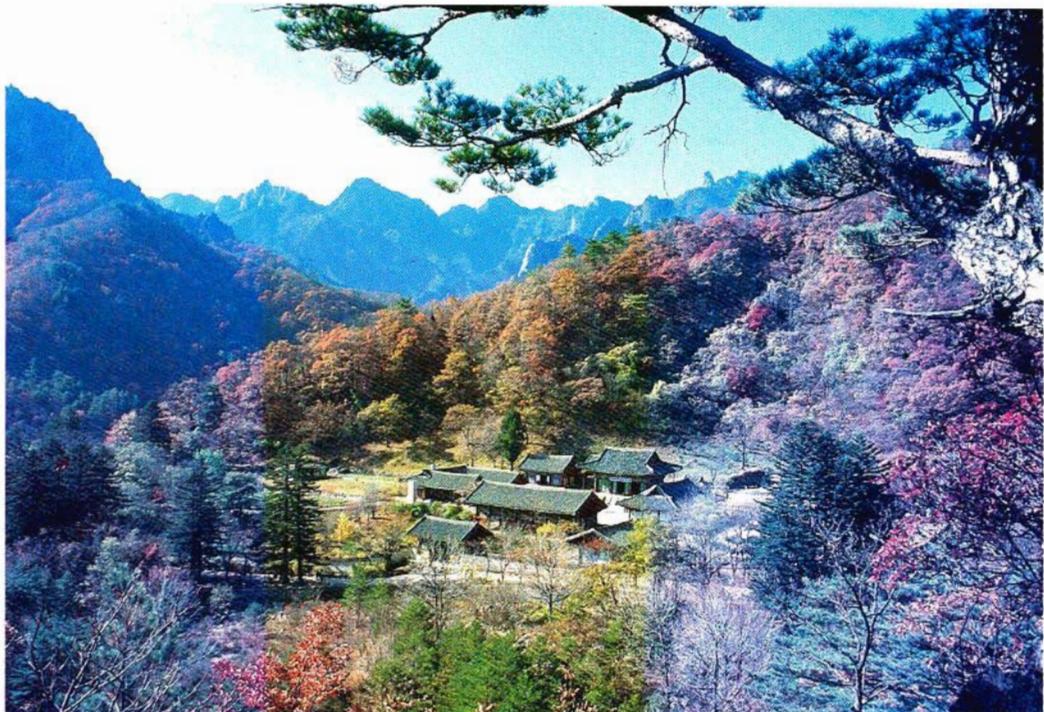
■ 본사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34-7365)

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39 정남빌딩 401호 (☎ 558-3889)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神興寺

住持 法學博士 金慧法



神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
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

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
선 인조22年 (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神
興寺라 개명하였다.

神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
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
시루, 극락 보전 (指定文化財14號),
경판 (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지정문



화재 104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
塔 (寶物 第443號) 이 보
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
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판 강원도지방유형
문화재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지정
문화재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흥사(계
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
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 존좌상외 9 점